

2019 에스컴시티프로젝트

도시의 로 기억하는 도시의 도시의

2019 에스컴시티프로젝트

소리를 기억하는 도시, 평양시

2019 애스컴시티프로젝트

도시

로 기억하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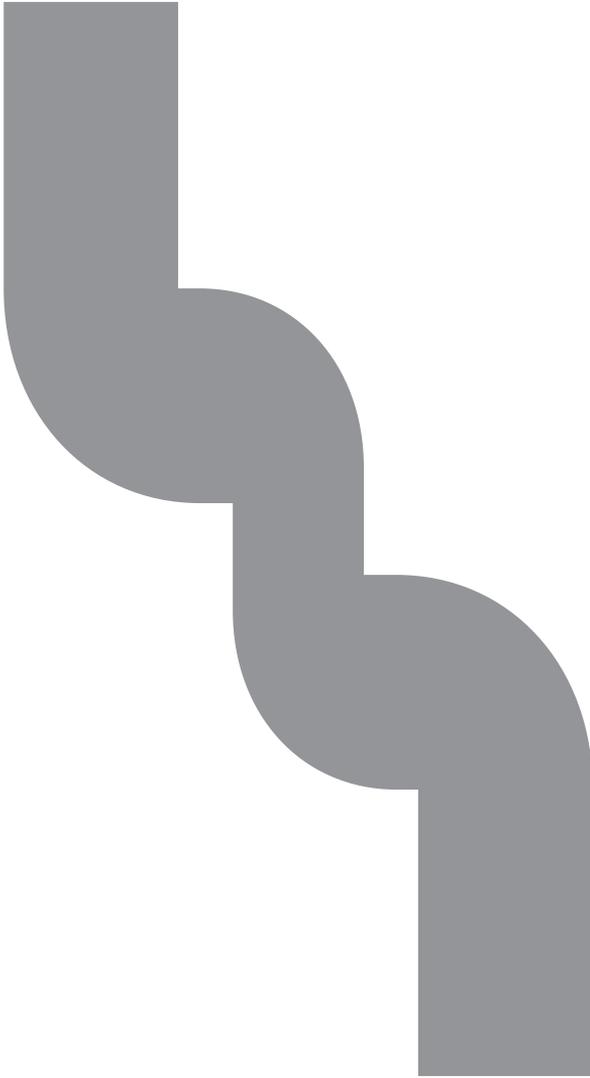
부평·인천

발간사 - 이영훈	4
애스컴시티프로젝트의 배경과 향후 전망 - 최정한	6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을 마무리하며 - 고경표	10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 걷고·듣고	16
2019 부평신촌 생활사 1 임종우	18
2019 부평신촌 생활사 2 김삼순	34
팝스 코리아나: 애스컴과 미8군 사운드의 주역들 1963~1972	62
Pops Koreana: ASCOM & the Eighth Army Years 1963~1972	
미8군, 애스컴에서 발화되어 한국 대중음악의 여명기를 밝힌 노래들 - 송명하	70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 기획전	76
2019 부평신촌 생활사 3 이종숙	104
2019 부평신촌 생활사 4 장흥식	122
#생활사 1 성낙필	144
#생활사 2 강오식	146
#생활사 3 한정숙	148
#생활사 4 이연옥	152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 기억지도	154
부록: 부평·신촌 시민생활연표	157

발간사



(4)

이영훈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부평구문화재단은 201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대중음악의 발상지인 부평의 음악 역사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애스컴시티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스컴시티프로젝트>는 부평의 역사를 기리고 지역의 문화 지형도를 새롭게 만들어가고자 주춧돌을 쌓는 소중한 작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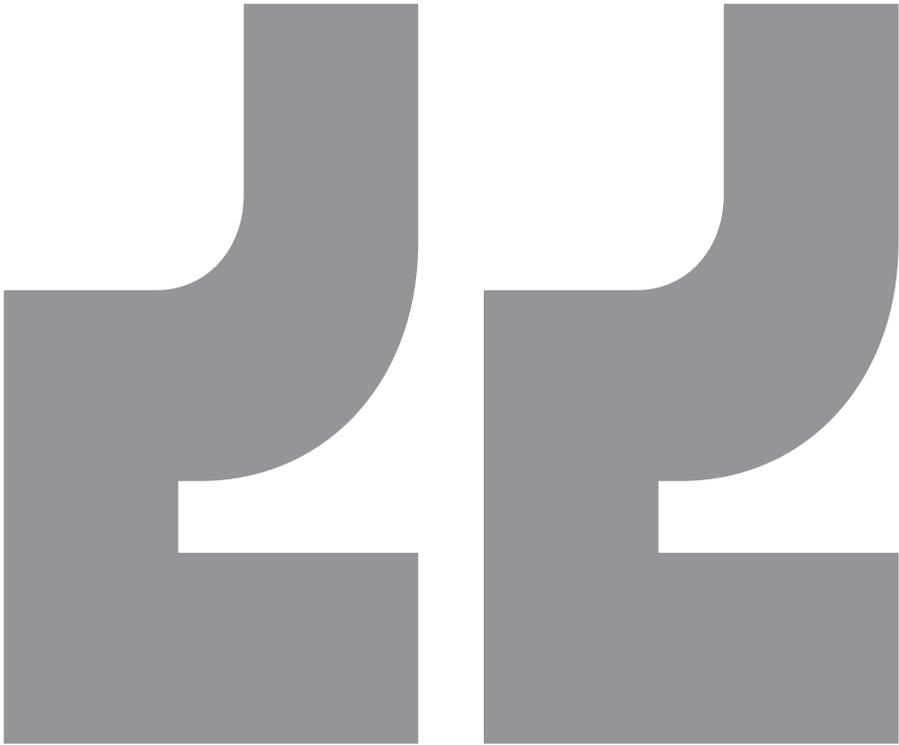
부평은 한국전쟁으로 1951년 미군수지원사령부(ASCOM: Army Service Command)가 주둔하면서 대중음악을 비롯해 새로운 문화를 유입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습니다. 부대 안에는 한국 뮤지션들이 연주하는 클럽이 있었고, 특히 부대의 정문이 위치한 부평신촌(현재 부평3동)은 미군을 대상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클럽들이 성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부평에 뮤지션이 모여 활동하며, 한국 대중음악 산업이 발달하는 기반 지역이 되었습니다. 1973년 일부 부대가 철수하고 애스컴이 캠프마켓으로 축소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클럽과 상업 시설이 쇠퇴했지만, 부평에서 활동했던 뮤지션들은 현재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스컴시티프로젝트>는 부평3동 일대에서 성행했던 음악 클럽과 당시의 음악 및 뮤지션들의 역사를 찾고 그 속에서 살아 온 지역 원주민들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의미를 담아낸 자료집입니다.

<애스컴시티프로젝트>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부평3동 지역 주민과 각 분야별 참여자, 유관기관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스컴시티프로젝트의 배경과 향후 전망



최정환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총괄기획가

주지하다시피 부평은 지난 4년간 음악도시를 표방해왔다. 그 출발점이 애스컴시티로 불려온 미군기지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대중음악이다. 물론 오늘날 미군기지 캠프마켓은 텅 빈 채 반환을 앞두고 있고, 부평 신촌의 클럽가와 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흔적을 찾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그동안 쌓아온 부평의 역사와 삶의 현장, 소통을 통해 지나온 시간을 이끌어내어 현재와 공존하고자 한다.

부평구가 음악도시 조성에 나서게 된 배경은 애스컴시티의 음악적 장소성이다. 이를 기반으로 2016년부터 5년간 진행되는 문체부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시작되어 4년차에 이르게 되었다. 사업 초기에는 지역 내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초기의 사업성과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8년 2월 총괄기획가를 선임하고 사업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2018년 재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음악을 매개로 한 문화적 장소재생이다. 삶의 지층이 쌓인 동네의 장소성(과거), 시민들의 다양한 음악 활동(현재), 지역 안팎이 결합하고 소통하는 대중음악 플랫폼(미래)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지역의 대중음악씬(SCENE)을 형성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부평공원을 포함한 신촌(부평3동)일대, 부평 문화의 거리와 국내 최대의 부평역 지하상가, 7호선라인과 맞물려있는 굴포천 지역 등 3개의 중심 생활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3개 중심생활권의 음악동네사업을 통해 시민주도의 음악도시 조성을 위한 상향식 문화 협치 구조를 세우고자 함이다.

그 가운데 부평공원 및 신촌(부평3동) 일대는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 찾기와 역사의 창조적 재생이라는 목적을 두고 애스컴시티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2018년은 음악전문가, 지역사(地域史) 연구자들이 참여한 아카이브 작업과 그 성과들을 활용한 프로그램화를 시도하였다. 홍대 앞 라이브 클럽데이와 공동주관한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 2018'에서는 동네 빈집을 활용한 팝업 전시, 골목길 재즈공연 및 토크쇼가 펼쳐졌다.

이러한 활동들은 2019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전문화, 체계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음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발굴과 기록 작업은 그 시절의 생활사를 담기위해 동네의 삶속으로 들어가 그곳의 기억과 기록을 현재로 소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화했다. 전문큐레이터를 중심으로 예술인, 주민, 문화재단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2019년 애스컴시티프로젝트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2019년 애스컴시티프로젝트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은 장르나 콘텐츠 혹은 과거의 장소성에 갇혀있던 '음악'을 '삶이 담긴 소리'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음악도시가 추구하는 방향이 음악에만 머물지 않고 삶이 되고 미래가치가 되는 '소리'로 확장되어 음악도시 부평의 문화정체성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록의 발간은 올해 진행된 프로그램의 결실이지만 그 속에는 2020년 이후 애스컴시티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과제들이 담겨있다. 무엇보다 아카이브의 성과가 동네의 삶속에서 지속가능한 형태로 보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주민, 작가, 지역연구자, 공공이 함께 삶을 기억,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리로 기억하는 부평·신촌' 마을뮤지움에 필요하다. 더 나아가 마을뮤지움이 열려있고 살아있도록 만들려면 지금의 대중음악과 접점을 찾아가는 활동들이 연계되고, 동네기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 미래가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애스컴시티프로젝트가 하향식 정책 사업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동네주민, 예술인, 문화 활동가, 지역사연구자, 행정 및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거버넌스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상향식 과정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부평은 음악을 소리로, 삶을 문화로 키워가는 문화도시로 성장해나갈 것이다.



2019년 애스컴시티프로젝트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을
마무리하며



고경표 2019 애스컴시티프로젝트 기획

책의 시작에는 의례 기획의 글이나 서문과 같은 '시작'의 글이 실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는 프로젝트의 마무리 글을 책의 서두에 넣고자 한다. 이 책은 지난 5개월 동안 진행된 2019년 애스컴시티프로젝트를 정리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며, 이 기록이 2020년의 애스컴시티프로젝트가 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1 애스컴시티프로젝트

부평구와 부평구문화재단이 2016년부터 진행해 온 '애스컴시티프로젝트'는 부평·신촌으로 불리는 부평3동을 소재로 진행되어 왔다. "1950-70년대 주한미군지원사령부 (ASCOM: Army Service Command) 주둔을 기점으로 부평·신촌 일대에서 운영되었던 음악 클럽과 당시의 음악, 음악인들의 역사를 찾고 그 속에서 생활해 온 부평 신촌 원주민들의 생활사를 기록하고자" 시작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세기 인천부평 대중음악』(score, 2017)이 나왔고, 지역 원로 두 분(성낙필, 강오식)의 구술사(윤진현 진행, 2018), 그리고 관련 공연과 전시가 개최되었다.

사실 나는 전국 각지에서 관 주도로 '도시'를 소재삼아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사업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거기에 '재생'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더욱 그렇다. 그러던 차에 나에게 2019년 애스컴시티프로젝트의 기획 의뢰가 들어와서 의아했고 참여 결정을 하기까지 다양한 고민이 있었다. 그중 가장 큰 고민은 시간이었다. 한 도시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다양하게 만들어 내기에 5개월은 너무나 짧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평 신촌과 내가 인연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2016년 5월 루비레코드가 기획, 진행한 '사운드 바운드 In 부평 애스컴(Sound Bound in Bupyeong ASCOM)'에서 '세븐·드림·아리랑'이라는 전시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그 전시는 앞서 부평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되었던 특별기획전 '신촌 다시보기'에서 일부 자료들을 얻어 와서 활용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획한 전시로 볼 수 없다. 게다가 사운드바운드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기획,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의 사업들과 성격이 많이 다르다. 여하튼 나는 그때의 경험으로

인해 부평 신촌의 도시역사를 어렵듯이 알고 있었고 부평구와 부평역사박물관에서 앞서 조사해 놓은 양질의 자료들이 꽤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었다.

2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의 시작

2016년의 경험에서 이 도시에 관한 나의 첫인상은 "이 도시의 역사가 외부에서 보기에 매력적이겠지만, 오래 살아온 원주민들의 의견은 완전 다를 수도 있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그 첫인상은 구체적인 고민거리가 되었다.

부평 신촌은 타자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되어 온 도시이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려야 하는 분들은 일제식민지=조병창, 미군기지=기지촌으로 연결되는 아픈 역사를 경험한 세대이다. 구술사를 활용한 아카이브 전시를 꾸준히 기획해 온 내게 그 경험담들은 너무나 귀중하고 매력적인 소재였지만 그들의 삶을 단순하게 대상화할 수는 없었다. 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와 같이 아직 발굴되지 않은 민간의 역사들로 도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병창이고 기지촌이었던 역사가 뭐가 내세울 꺼리냐고 손사래를 친다.

이렇듯 상반된 두 개의 의견이 상충하는 곳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음은 재개발 이슈이다. 재개발은 그 도시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문화·예술'을 껍질삼아 오래된 지역의 부동산 지가를 상승시키고 이른바 '먹튀'를 하는 '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인 이곳에서 문화와 관련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러웠다. 게다가 부평 신촌의 일부 주민들은 도시 관련 사업으로 인한 진통을 한 번 겪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피로도도 상당히 높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지난 기간 동안 부평 신촌에서 문화 사업을 진행해 온 부평구문화재단의 실무진들이 '경험을 통해' 이런 관계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올해 사업 기간 동안 가능한 많이 주민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발로 뛰며 애썼다. 이것은 '문화도시'라는 기관의 목표와 관계없이 진정할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었을 일이다.

3 '소리'라는 주제의 설정

환경 파악 이후의 고민은 프로젝트의 '정체성'이었다. 나에게 미션을 맡긴 부평구문화재단은 '음악도시'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나는 아카이브 프로젝트 안에 음악과 관련된 요소를 녹여내야 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결을 지니고 있는 이 도시가 '음악'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귀결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면서 내가 상상한 것은 "허허벌판에 조병창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텅 빈 공간이 복잡작해지고 그 조병창이 미군기지가 되면서 와글와글해지는 것"이었다.

당시를 이야기 해주는 지역 원로들의 목소리, 공장이 가동될 때 나오는 소음, 도시를 가로질렀던 원통천의 물소리, 생소했을 미군들의 언어와 목소리, 골목에서 싸우는 소리 등 복잡다단한 이 도시의 지난 시간 속에는 다양한 소리들이 존재했다. 따라서 나는 '음악'이라는 한정된 단어보다 '소리'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주제화해서 더 많은 내용을 프로젝트 속에 담고자 했다. 그래서 2019 애스컴시티프로젝트에서는 부평 신촌의 역사를 기록해 온 기존의 방법론을 넘어 보고자 소리를 키워드로 도시를 상상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아카이브 하기로 한 것이다.

4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은 네 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부평 신촌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도시 투어와 토크 콘서트인 '걸고, 들고', 1960-70년 인천-부평 지역의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활동했거나 관련된 대중 가수들의 번안곡을 모은 편집음반 '팝스 코리아나: 애스컴과 미8군 사운드의 주역들 (1963~1972)' 발매, 그리고 부평 신촌의 도시 연구 자료들을 활용하여 역사관을 만들고 도시 역사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한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한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 기획전' 마지막으로 지역 원로들의 구술사와 인터뷰 및 도시 연구 자료들을 기반으로 만든 '부평·신촌 기억지도'이다.

그 동안 부평 신촌이 형성되어 온 시간과 역사는 문헌자료와 시민들의 구술, 사진으로 집착되어 왔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에 축적된 역사를

레퍼런스로 삼고 활용하지만, 역사를 정의하고 기록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석과 시도를 더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여러 지층을 보여주고 그 역사가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확장 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고 5개월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시대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당시의 음악소리, 도시를 새롭게 읽은 다양한 소리들을 남길 수 있었다.

건축, 물건, 사람과 같은 유형의 요소가 도시를 채우고 남은 여백에는 무형의 요소들이 메워졌을 것이다. 그중 소리는 변화에 따른 도시 정체성을 가장 직접적이며, 상징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요소이며 도시가 변화하는 모습이 가장 많이 반영되었을 증거이다. 그러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 소리를 채집한다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왔다. 우리는 과거의 소리를 보존된 매체로만 경험할 수 있는데, 오래전의 것일수록 소리를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조건적이며 접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녹음된 테이프를 틀듯이 소리로 도시를 체험해 본다는 것은 문헌과 이미지를 넘어 도시의 역사를 감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었다.

5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을 마치며

이렇게 만들어 온 이 프로젝트는 그 고비 고비 마다 크고 작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어쩔 수 없는 조건들로 인해 발생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좋았던 순간들도 많았다.

중간에서 고생했을 부평구문화재단의 담당자들과 부평 신촌을 오가며 알게 된 주민 분들, 참여 작가님들과 전시에 와줬던 주민과 학생들, 어려운 일을 수락해 주신 협력자 분들, 사업에 공감해 주시고 기꺼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구술자 분들 등 그들의 소리를 통해 2019년의 프로젝트를 완결 지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도시의 결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냈다.

그러나 부평 신촌에는 아직도 듣지 못한 소리들이 남아있다.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도시 곳곳에 켜켜이 쌓여 있거나 살아 숨 쉬고 있을 것이다. 그 소리들을 모아 부평 신촌이 '음악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음악도' 있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



(15)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 도시투어, 걷고

- 날짜: 2019.7.6.토
- 장소: 부평 3동 일대
- 시간: 17:00~18:00
- 해설: 임종우

2019년도 애스컴시티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행사로 부평 신촌이라는 도시를 대중에게 소개하고 도시에 내재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기획했다. 1부에서는 부평·신촌 토박이인 임종우의 안내로 현재와 과거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는 부평 신촌의 곳곳을 돌아보았다.

2019 부평·신촌 생활사 I

임종우(1960)

부평 신촌에서 나고 자란 임종우는 그곳의 역사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실천해 왔다. 그의 어머니 한정순 여사님은 부평 신촌으로 시집을 와서 살림을 꾸리고 청파미용실을 운영하며 세 아들을 키워냈다. 임종우의 집과 어머니가 운영했던 청파미용실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에스컴 1번 게이트 맞은편 길인 신촌로에 있었다. 이곳에는 1974년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의 주인공인 권투선수 홍수환의 가족과 당시 미군 클럽에서 인기몰이를 했던 '차차차 오남매'의 집도 있었다.

- 면담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 지금 가족 말고 원래.
- 구술자 그때? 우리 삼형제, 삼형제
- 면담자 삼형제... 부모님이랑 삼형제랑.
- 구술자 삼형제 중에 둘째.
- 면담자 그럼 세 분 다 남자분이세요?
- 구술자 네.
- 면담자 어머니가 대단하시네요.
- 구술자 네 어머니가 대단하시죠. (웃음) 시집 오셔가지고 원래는 작전동이에요
작전동
- 면담자 어머니는요?
- 구술자 네 원래는 작전동인데, 아버님은 그때 해병대셨고.
- 면담자 군인이셨어요.
- 구술자 아니요. 군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6·25참전을 했죠.
- 면담자 아 진짜요? 군복무 중에 6·25가 터져가지고.
- 구술자 그렇죠.
- 면담자 결혼 하신 다음에?
- 구술자 네. 결혼 한 다음에.
- 면담자 무사히 귀한 하셨어요.
- 구술자 네.
- 면담자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부평3동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머니랑 아버님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셨어요?
- 구술자 그 이전에 원래 우리가 김포 마성 쪽이에요. 마성이 어디냐면 애기봉 가는
데,
- 면담자 애기봉?
- 구술자 그렇죠. 애기봉이 그 북한 바라보는 전망대가 있어요. 애기봉에. 그
애기봉 들어가는 초입에서 오른쪽인데 거기가 마성, 하성 쪽이래요.

근데 그 지역에서 좀 잘 살았었지요. 그러다가 그 할아버지 때 이 부평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언제나면 일제.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미쓰비시사 거기가 지금 부평공원이 되었잖아요? 거기를 지금 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천이 있었어요. 천 건너편에 이쪽 동네 그니까, 이렇게 바나나처럼 생겨있는 요 동네가 신촌이에요. 그 신촌 중간에 집을 짓고 그리로 이사를 오신 거죠.

면담자 그 할아버님께서 미쓰비시 공장에 근무를 하셨어요?

구술자 그렇죠. 결국에 그렇게 된거죠. 그래서 그 뒤 쪽에 이게 부대고 이게 미쓰비시사고 이게 신촌이고 이쪽이 삼릉이잖아요, 삼릉 쪽에는 관사들이 있어요. 노동자 관사들이 있었고 이쪽에는 민간들이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미쓰비시사를 다녔던거죠, 그리고 우리 집이 먼저 김포 지역에서 이주를 해서 집을 짓는 바람에 김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기숙을 하면서 미쓰비시를 다니고 그랬어요.

면담자 미쓰비시를 다니고 출퇴근을 하고.

구술자 네. 근데 이 미쓰비시사 다닌 이유는 뭐냐면 일제 때 징용을 안 끌러가려면 일본인 회사를 다니면, 일본 공장을 다니면 징용을 안 끌러갔어요.

면담자 그러면은 다 시발점이 돼서...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고향 인들을 일종의...

2 부평 · 신촌 2층집 아들

구술자 그래서 김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우리 집으로 주소지를 해서 왔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일제강점기 때 2층 집으로 올려서 지어요. 목재로. 목재 2층 집을.

면담자 나무 집을?

구술자 나무 집을. 2층 집이 되었어요. 우리 집 이름이.

면담자 아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2층집 아들이라고...

구술자 맞아요. 2층집 아들이라고...

- 면담자 2층집 아들...
- 구술자 그래서 2층 집 그러면, 신촌의 2층집 그러면 신촌 출신 애들은 다
알거예요...
- 면담자 그럼 혹시 할아버님께서 미쓰비시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어요?
- 구술자 그거는 정말 다니기만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월까 증권하고 적십자 무슨 채권, 보험 증권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뭐 관리자인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몰라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는. 그건 제가 너무 어렸었고 저는 할아버지를 못 봤으니까.
- 면담자 그렇죠.
- 구술자 이제 할머니한테,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어렸을 때 잠깐 잠깐 들었던 것만.
- 면담자 어떤 내용이 있어요?
- 구술자 뭐 그 얘기는 이제 미쓰비시사에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신촌이 일부
지역이 그 우리가 신촌에 땅을 몇 군데 가지고 있었어요. 그니까 예전에는
텃밭도 해놓고 했을 거 아니에요.
- 면담자 그렇죠.
- 구술자 그래서 개울가 쪽에도 땅이 있었고 이랬는데 옛날엔 그걸 막 썼어.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 짓고 살라고 주기도 하고 막 이랬대요.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해방 이후에 목재상을 해. 목재상
- 면담자 미쓰비시 나간 다음에?
- 구술자 예. 나간 다음에. 해방 후에. 목재상을 하시다가 나무 사러 가신다고
가셨다가 객사를 하셨거든요. 뭐 교통사고가 났는지 뭐 하여튼 객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할머니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면서, 두 아들... 그렇지
2남 1녀였지. 고모가 한명 계셨으니까. 아 두 분... 2남 2녀. 그래가지고
사남매를 키웠죠.
- 면담자 거기 계속 사시면서?
- 면담자 사시면서 할머니가.
- 구술자 목재상을 이어서 하시면서?

구술자 목재상은 아니고, 그 목재상은 그러고 나서 끝난 거예요.

면담자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구술자 예. 먼저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3남 2녀예요, 3남 2녀였어요. 우리 외가. 3남 2녀데 그리고 나서 큰아버지, 돌아가신 큰아버지가 사진관을 하셨대요.

면담자 같은 동네에서

구술자 그렇죠. 동네에서. 그때가 그 문화사진관 했던 그 분하고 같이 동업을 했었고 그리고 그 문화사진관 하시던 분이 다시 부평역 앞쪽으로 가면서 문화예식장을 하고 지금 문화오피스텔이 된 거예요. 그 양반이. (웃음)

근데 이 큰아버지도 저는 보질 못했어요. 얘기만 들었지. 그래서 우리는 두 고모님, 그니까 그쵸 할머니의 딸들. 한 사람은 박천으로 시집을 가고 한 사람은 저기 대명리, 대곶 쪽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산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거의 농사짓다시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농사 많이 짓는데 그런 데... 했고. 그래서 우리 외가 집도 작전동에 있었어요. 작전동도 그때 농사 지고 있었어요. 지금 작전동은 계산동 이런 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면담자 맞아요. 현대적이죠.

3 어린시절의 기억

구술자 근데 옛날엔 저 외가 집 가서 어린시절 많이 보냈는데 그 쪽에선 뭐 진짜 물고기 잡고 메뚜기 잡고 아카시아 꽃잎 따먹고 (웃음)

면담자 마치 소설 속에 나오는 것 같아요.

구술자 그렇죠. 농촌 풍경 그대로 어렸을 때 또 나름대로 그 뭐랄까 소나기 같은 그런 개념의.... 그런 생각도 있었고. 멍하게 엄마를 기다리면서 저 멀리 있는 버스 정류장을 바라도 보고.

면담자 아름다웠네요.

구술자 근데 엄청 외로웠죠. 왜 그러냐면 저만 외가 집에 남았지.

- 면담자 삼형제 중에... 왜 그랬어요?
- 구술자 그니까 형은 학교를 다니고 동생은 너무 어리고 그니까 중간인 나는 그때만 해도 어렸을 때 계속 미장원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 면담자 그러면은 이제 할아버님이 그렇게 객사를 하신 다음에 할머니는 계속 부평3동에 거주하시면서 형제자매를 키워냈고.
- 구술자 그래서 인제 일제 끝나고 해방 이후에 그런 사건이 있고 혼자 계셨잖아요. 그 후에 6·25가 났잖아요. 그 6·25하면서 결국은 할머니가 오남매를 키워야되는거지. 혼자서. 그니까 이제 바느질도 하고 미싱일 이런 것도 하고 이랬어요.
- 면담자 피난은 안 가셨어요?
- 구술자 피난도 갔다 왔죠. 갔다 오면서 우리가 원래 삼형제가 아니라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큰누나가 난리 통에 죽었어요. 급체로 해가지고. 그래서 삼형제만 남았어요. 그니까 큰아버지도 전 잘 모르고 기억이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미장원 할 때 우리가 2층에서 미장원을 했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1층에서 했다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 면담자 왜요? 어떻게 하다가 올라갔어요?
- 구술자 그니까 우리가 1,2층이 있었고 그 뒤에 집에 따로 또 있었어요. 이렇게 붙어서. 그니까 앞에 길 앞쪽은 2층이고 그 뒤에 가옥이 따로 있는 거예요?.
- 면담자 그럼 원래 지을 때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아니면
- 구술자 처음에는 그렇게 지었고 그 다음엔 뒤에 집을 또 사서 같이 했어요.
- 면담자 길게 하셨구나. 옛날 일본 집들은 이렇게 긴 땅에 있었으니까.
- 구술자 그래서 앞에는, 정면은 2층이고 뒤는 단독주택으로 되어서 앞마당이 따로 있었어요. 뒤로. 우물도 있었고.
- 면담자 집안에 중정이 있었던 거예요?
- 구술자 그렇죠.
- 면담자 그러면 그때 임종우 선생님 아버님은 이제 해병대 입대하시가지고...
- 구술자 예. 해병대. 6·25를 끝내고 재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부대

취직을 하신거죠

면담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구술자 미군부대는 약 창고지기

면담자 약 창고?

구술자 왜 그러냐면 미8군 위 애스컴이 그 미8군 사령부가 여기 있었어요. 부평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령부이면서도 그 예전에 미쓰비시사가 그 조병창으로 쓰던 모든 땅들 다 미군정이 접수를 하는 거예요. 접수를 해서 그거를 뭐냐면 일종의 사령부 같은 것처럼 있잖아요. 미국에서 오는 친구들 재배치를 하려면 사령부에서 왔다가 서부전선으로 배치를 하거든요. 서부전선. 그러다보니까 모든 군수물량과 그 다음에 군수품 그 다음에 병원부대 그 다음에 여인숙부대 그 다음에 헬기장 이런 것들을 다 갖췄었던 거예요... 그니까 부평 전체를 보면 지금도 굉장히 넓은데 저 백마장 지역 있는 데까지 다 군부대가 장악을 한 도시예요. 그래서 애스컴시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니까 일제강점기 때도 보면 원래는 일제가 여기에 수리 시설을 하면서 원래는 조선 때 늪지였어요. 일종의. 벌판인데 그래서 애들은 부평평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일종의 늪지 지역이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한남정맥이 이렇게 흐르지 않냐. 한남정맥 밑으로 부대를, 조병창기지를 만든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한포작용을 하면 산을 넘겨서 한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니까 산 밑에 있으면 방어가 되는 거예요.

면담자 아 산이 가림막이 되는건가.

구술자 그렇지. 그래서 이 한남정맥이 흐르는 이쪽이 다 바닷가였던 거예요. 그 바닷가 뒤에, 산 뒤에 조병창기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면담자 그렇네. 되게 중요한 것이니까 전쟁을 하려면.

구술자 그렇죠. 군사시설이니까. 그래서 이게 통일전쟁하고 기차 경인선이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실질적인 하나의 만주정벌기지.

면담자 전초기지같이?

구술자 예. 조병창기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인천 앞바다로 배로도 갈 수도 있고

철도로 해서 이리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었죠.

면담자 그러면 단순히 작은 한 부대의 약 창고를 지키는 업무가 아니라 전국의 미군 기지를 꾸러지는 물자들을 다...

구술자 그렇죠. 어떤 일을 정확히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때 약 창고를 지켰던 분이셨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거기는 약 창고뿐만 아니라 병원 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야전 병원같이 이렇게 병원 부대. 그니까 지금 현대 아파트 쪽 있죠?. 그제 전부 다 다 일제 때 깎아서 평준화 됐지만 거기도 하나의 언덕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언덕에 전부 야전 병원 천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옛날에는.

면담자 어마어마했구나.

㉔ 부평동 284번지와 청파미용실

면담자 그러면 선생님 혹시 정확한 집주소가 기억이 나세요?

구술자 예. 부평동 284번지.

면담자 284번지. (웃음) 그러면 집의 구조 대략의... 평수가 굉장히 넓었겠네요.

구술자 우리 집이요?

면담자 그렇죠. 확장되고 확장되고...

구술자 예. 한 4,50평 됐을 거예요.

면담자 그러면 앞에는 가정집으로 사용하다가 2층은 미용실이 됐고.

구술자 아니야. 뒤에 가정집이 있고 그니까 종이 있나.

면담자 네 있어요.

구술자 그러줄게. 이게 길이지 않아요. 이게 신촌 중앙로예요. 근데 여기 집에 하나 있었고 여기가 옛날에 부평구청 하셨던 북구청장 하셨던 그쪽 집인데 그 옆에 우리 집이 딱 붙어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 2층이야.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대문을 열고 골목을 들어가면 여기는 2층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이리로 들어가면 앞마당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집이 이렇게 ㄱ자로 되어있던 집이야. 여기가 우물이 있고.

면담자 약간 한옥 같네요.

구술자 그렇죠. 이렇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이 밑에도 방이 이렇게 있었어요. 방이 있었고 여기는 이쪽 마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방이 있고 이쪽에 부엌이 있고 이렇게 되어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집을 또 샀어. 그래서 이 집이 또 있었는데 이걸 텃어. 터서 이걸 또 썼어. 그래서 공간이 여기 방이 뒤에 두 개가 있고 이 쪽이 큰 방이 하나 있고 이 뒤에 작은 방이 달려있고 이렇게 있었어. 이걸 다 썼던거죠.

면담자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미용실을 2층에서 하시고.

구술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 미용실을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세를 준거야. 미용실을 처음엔.

면담자 미용실로?

구술자 미용실로. 그니까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여기를 세를 줬는데 그니까 어머니가 젊으니까 그걸 본거야. 그래서 어깨 너머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용기술을 여기서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 가서 미용사 자격증을 딴 거예요.

면담자 손재주가 어머어마 하셨나보다.

구술자 그래서 그 당시에 가르쳐 준 분이 미용실을 같이 했어요. 같이 하다가 그 양반은 서울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여기 1층에 있다가 1층을 의원을 준다. 전일의원이라고.

면담자 전일의원?

구술자 예. 병원.

면담자 병원.

구술자 1층은.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거야.

면담자 청파미용실 맞나.

구술자 맞아요. 청파미용실. 그래서 1층은 처음에는 그 전일의원이 여기 있었고 그래서 전일의원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 있다가 이 밑으로 일어서서 건물 새로 짓고 2층짜리 전일의원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빠져나갔을 때 뭐가 들어왔냐면 여기 약국이, 김약국이라고...

- 면담자 청파미용실은 계속 있고 밑에가 계속 바뀌었던 거네요.
- 구술자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약국에서 심부름도 많이 하고 어렸을 때 그래서 옛날에 석유를 이렇게 뒷병에 사와요.
- 면담자 유리병인가.
- 구술자 유리병. 그것도 가게에서 그것도 저 밑에 내려가면 애스컴 물건만 팔던 곳이 있어. 미군용품만 팔던 곳. 거기가 기름을 팔았어. 옛날엔 다 가갯집에서 데려다 놓고선 석유를 따라줬어. (웃음) 그것도 뭐냐면 새끼줄 이렇게 묶어가지고 비틀게 해서 그렇게 팔았어. 근데 재미난 게 이런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목욕탕이 생기고 골목에 여기가 원래 시내의원이라고 의원이 있었어요. 여기 앞에 양장점이 있었고 그럼 이 옆에는 포목집이 있었고 그리고 이 옆에는 그릇가게가 있었어요. 그릇가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골목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옆에는 쌀가게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는 원래는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구나. 여기. 여기가 저 일종의 지금 슈퍼마켓 같은 상회가 하나 있었고.
- 면담자 여기가 목욕탕이고?
- 구술자 그렇죠. 상회가 있었고. 그니까 이 길이 상권길이에요. 예전에.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에 경인 미용실이라고.
- 면담자 바로 경쟁업체가 바로 밑에.
- 구술자 근데 그때는 미장원이 숫자가 엄청 많았어요.
- 면담자 많았었요 또?
- 구술자 그렇죠. 시작은 했는데... 왜냐면 여기에 인원이 있잖아요. 양공주 인원이. 그러다보니까 미장원이 제일 많았어. 그럼 보세요. 포목집 있지 양장점 있지 그 다음에 상회가 여기도 있고 여기가 차차차예요. 여기가 차차차 양행이다.
- 면담자 차차차 양행.
- 구술자 그렇다. 차차차. 이 줄이 전부다 다 상업시설들이예요.

- 면담자 그러면 클럽은 이 뒤쪽에 있고 여기는 상권이고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생긴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거리였던 거네요.
- 구술자 그렇죠. 사람이 모이면 시장이 형성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근을 그때 당시로 보면 엄청난 변화가였던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사람들은 신촌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미군 부대 애스컴하고 관계가 있었고. 애스컴 정문이 이 길(현 경원대로)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군부대에 관계된, 그니까 다시 말해서 미군부대 근무하는 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이 주변에 다 있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앞쪽에 여기도 계속 넘어가면 여기도 가게야. 상회야.
- 면담자 상회가 엄청 많았구나.
- 구술자 방앗간도 있었고.
- 면담자 사람 사는 데네요. 똑같이.
- 구술자 그렇죠.
- 면담자 밥 해먹으려면 쌀이 있어야 될 거고.
- 구술자 시장처럼 있는데 상회도 굉장히 많았어. 블록에 하나씩 상회가 있다시피 했어.
- 면담자 그러면 그만큼 소비가 된다는 거네.
- 구술자 그렇거죠. 돈이 엄청 돈 거죠.
- 면담자 근데 돈이 선생님, 저 궁금한 것이 당시에 달러로 받았어요? 아니면 뭐...
- 구술자 뭐 달러도 받고 그냥 돈도 받았는데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 계실 때 돈을 벌었잖아요. 옛날에는 시집살이를 한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 면담자 그렇죠. 어머니는 시집살이를 하셨죠.
- 구술자 돈을 할머니한테 다 드렸죠. 그럼 이제 할머니가 돈놀이를 했어요.
- 면담자 아. 현찰이 있으니.
- 구술자 그렇죠! 현찰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온갖 이 동네에 그래도 우리가

유지가 된 게 뭐냐면. 이 할머니하고 관계되는 이 외가 라인의 친인척 그 다음에 우리 김포 라인 쪽으로 해서 친인척들 이 사람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면담자 그렇죠. 같이 건너 왔으니까.

6 아버님에 대한 기억과 애스컴한인노조

면담자 그 당시에 아버님은 출퇴근 하시고 이러던 모습 같은 거 기억하나요?
제복 같은 걸 입으셨어요?

구술자 아니요. 제복 안 입었어요. 민간이었어요. 민간으로.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미군부대 다니시는 분들의 일종의 한인노조가 있었어요.

면담자 아 그래요?

구술자 한인노조가 있어가지고 그게 부평에 있었어요. 전국 일종의 한인 무슨 미군노동장인가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평에 있어요 그게.

면담자 그럼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구술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작은 아버님도 미군 부대 경비를 했지.

면담자 그러면 가족 분들이 다 여기 이 부평이 변천사랑 다 관계되어 있는 것이네요.

구술자 다 관계되어 있었죠.

면담자 이렇게 도시랑 같이 형성되어 온 거네요.

구술자 그니까 이제 아버님의 친구 분들, 고등학교. 작은 아버님의 친구 분들. 작은 아버님의 친구 분들은 좀 이렇게... (웃음) 그래서 무슨 권투, 나중에는 권투 심사위원 이런 것도 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짝 있어요. 옛날부터. 그니까 경비로 근무를 하다가, 경비 대장하다가 평택으로 이전을 가죠. 자원으로. 평택의 미군부대로. 그래서 거기서 경비대장 하셨어.

면담자 이 당시에 미군부대에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끝발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구술자 그렇죠. 아무나 못 들어갔죠. 그 당시에는.

면담자 그러면 아버님이 미군 물건도 이렇게 갖다주고 하셨어요?

구술자 그렇죠. 우리는 미군 부대 물건이 맨날 있었어요.

면담자 햄이랑?

구술자 뭐 햄이랑 그런 거 치즈, 햄, 우유 뭐 이런 거. (웃음)

면담자 그럼 아버님의 직업이나 어머니의 직업이나 관련 되서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모습들이 있으세요?

구술자 그 아버님은 어렸을 바둑을 잘 두셨어요. 그 바둑. 그 동네 분들 오시면 맨날 바둑 두시고 맨날 맥심 강통 커피 있어요. 톱밥 커피라 그러는데.

면담자 톱파갑?

구술자 톱밥. 톱밥 커피. (웃음) 나 이제 여기 이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톱밥 커피라고 그래서 맥심에서 나온 강통커피가 있는데 그니까 이거를 끓인 물에다가 내려다가 먹는 거고 우리 지금 원두를 갈아서 먹잖아요. 그때는 그게 아니고 그니까 원두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이게 분말인데 분말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촉촉한 분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커피 한잔씩 딱 마시면서 바둑 두고. 바둑판도, 바둑을 좋아하시니까 바둑판도 만들어. 본인이. 그래서 부대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나오고. (웃음)

ㄱ 애스컴의 쇠퇴와 전성기에 대한 기억

면담자 그러면 미용실이 뭐 엄청 잘 되고 근데 나중에는 언제까지 아버님을 보셨던 거예요?

구술자 그니까 철수, 여기 철수할 때까지 계속 계시다가 여기 계시다가 사우디를 갔다 오시죠.

면담자 아. 그럼 철수할 때까지 계속 하시고 그럼 어머니는 그럼 미장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술자 미장원을 하시다가 철수 때 이제 여기가 광풍이 불어요. 그니까 미8군

사령부가 이태원으로 다 옮겨가면서 미군 감축이 되면서 여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떠나기 시작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태원으로 쫓아가요. 그래서 부평 사람들이 이태원을 만들었던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바나 이런 쪽들도 대거 사령부 따라 간 거예요. 이게 원조의 원조. 이태원의 클럽의 원조.

면담자 이제 좀 그림이 그려져요. 저는 되게 약간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있었거든요. 클럽이 있었다는데 사람들은 살았다는데 조선인 노동자들 사는 관사촌도 또 있었다고 하고 삼릉에서 또 음악인들도 살았다고 하고 이러니까...(웃음) 근데 좀 정리가 되네요. 이제.

구술자 그니까 여기에 클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음악인들이 과연 여기 있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음악을 하는 데는 몇 군데 안되. 나머지는 LP판 미군부대 원판 갖다가놓고 음악을 틀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통 보면 바가 요만한 것도 있었어.

면담자 이렇게 작은...

구술자 그니까 예네의 바 문화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바 문화가 아니고 그니까 테이블이 카운터 테이블처럼 딱 있어요. 그 뒤에서 전부다 술, 칵테일 이런 거 바텐더가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자리도 테이블이 몇 개 안돼요. 그리고 뭐냐면 당구대가 하나 있어. 꼭.

면담자 아. 그 안에. 바 안에?

구술자 그리고 이 바를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이름을. 바가 있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아까 뭐 클럽이나 아니면 뭐 무슨 유보튼가 뭐가 그런 클럽이라든가 몇 군데만 이름 알 뿐이지 옛날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다녔으니까.

면담자 그렇죠. 친구네 집이었겠지. 누구네 거기가자. 약간 이랬겠지.

구술자 그래가지고 낮에 하교 끝나고 가가지고 또 따구 들어가기고 당구 치고 바 안쪽에 뭐있나 보고 술도 조금씩 맛도 보고. 그랬지.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 토크콘서트, 듣고

- 날짜: 2019.7.6.토
- 장소: 장순일음악연구소(인천 부평구 신촌로 83)
- 시간: 18:00~19:30
- 토크 및 드럼연주: 김삼순(인천 최초의 걸그룹 레이디 버즈의 드러머)
- 진행: 고경표
- 공연: 찬란밴드
- 공연기획: 안수민

김삼순(1948)

인천 최초의 걸그룹(Girl group)인 '레이디 버즈(Lady birds)'의 드러머 김삼순이 드럼을 처음 배운 것은 그녀의 형부이자 이름난 밴드 마스터(Band Master)였던 김윤옥의 영향이었다. 음악 하는 사람답지 않게 "참 점잖고 멋졌던" 형부로 인해 가족들은 음악인들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고 한다. 그녀는 중학교 졸업 이후 고무신 공장에 취직하는 대신 드럼 스틱을 잡았고 19세의 어린 나이에 애스컴 영내 클럽에서 연주자로 활동하며 꿈을 키웠다.



1 에스컴에서 근무했던 아버지, 신촌에서의 어린 시절

구술자 태어나기는 삼산동에서 태어난 거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거기 올라가서 살았으니까 거기가 본주소라고 알고 있어. 삼산동인거야. 태어나긴 거기에서 태어나서, 네 살 땀가 다섯 살 땀가에 38번지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주소는 그거밖에 모르는데, 태어나기는 얘기를 들으니까 삼산동이래. 6·25 때 이북이 가까우니까 땅이 울리더라. 6월 24일 날 잠을 자는데. 탱크 밀고 왔잖아요 이북에서 그 당시. 탱크 오는 소리에 땅이 울렸더라잖아. 그때부터 피난을 오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12월 생일이니까 6·25가 1년 반만이잖아.

면담자 완전 얘기 때네요. 피난 갔다가

구술자 그럼. 1년 반만에 그거를 들쳐업고 피난을 계속 갔다가, 또 1·4후퇴 때 다시 저기까지 밀렸다가, 1·4후퇴 때 인천상륙작전 했잖아. 그때 집으로 들어간 거지. 왔다가 갔다가 피난을 2번을 그렇게 다녀가지고, 1·4후퇴하고 6·25하고. 그 조그마한 것을 업고 다녀가지고 내가 웃기는 말로 그러잖아. 왜 이렇게 못 컸냐 그러면, 대포 소리에 놀라서 못 컸어 그래(웃음). 6·25 때 대포소리에 놀라서 못 컸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

면담자 틀린 말은 아니네요(웃음).

구술자 딸 많은 집에 셋째 딸로 태어났어. 원래는 넷째 딸이야, 내가.

면담자 넷째 딸이세요?

구술자 응, 원래는 넷째 딸인데 셋째 딸로 왜 얘기가 됐냐면, 위에 삼순이 언니가 죽었어 나 태어나고. 나 태어나고 삼순이 언니가 죽은거야. 내가 옛날 얘기, 이거 창피해서 안 하는 얘기인데. 삼순이 언니가 죽었어. 그러니까 오빠가 태어나고, 바로 삼순이 언니가 태어났는데 옛날에는 잘 죽잖아. 그러니까 키워보고 호적에 올리는 습관이 있잖아. 키워보고 1년 있다가 올리는 습관이 있잖아. 우리도 그랬던 거야. 그래서 삼순이 언니를 안 올리고 있었던 거야. 안 올리고 있다가, 내가 나오니까 사순이야. 알고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사순이야. 우리 언니가 얘기해주니까 알았는데. 사순이가 태어나니까 얼른 삼순이를 올려야 하는거야 이제. 내가 태어나자 삼순이를 올려서 내 생일이 똑같은 거야 지금. 내 생일이 왜 12월 달이 되었냐면, 내가 그 무렵에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삼순이를 올린거야, 나를 올린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나를 올리려고, 1년 있으면 또 이제 올려야지, 1년 있다가. 올리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어찌고 해서 삼순이 언니가 죽은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고 안 올리다보니까 내가 그냥 삼순이가 되버려가지고.

면담자 셋째 딸이 되셨구나

구술자 셋째 딸이 되버린거지. 어쩐거나 살아있는 셋째 딸이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해본 적은 없고, 그냥 긍정적으로 그래 삼순이 이름도 좋아 그냥. 그냥 있는거야. 이름 어찌고저찌고, 왜 삼순이로 있냐고. 최근에는 이름 잘 바꿔줬잖아. 애들 때는 못 바꾸고 힘들었어도. 최근에 바꾸라는데 에이, 뭘 바꿔(웃음).

면담자 아니 근데 옛날 가수 분들 보면, 되게 멋있는 이름으로...

구술자 이름 가지고 했잖아. 안 했어 나는 그냥. 아니 그리고 내가 개인적인 이름이 필요했으면 했을 수도 있지만, 단체 이름으로 활동했으니까. 우리는 레이디버즈 이렇게 단체로 활동했으니까 이름 굳이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면담자 아버님이 애스컴에서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직종의?

구술자 막일이지 옛날에. 옛날에 많이 배운 사람들은 사무실에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엔 배운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 그러니까 막노동같은 걸로 막일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서. 한참 다니셨어 오래. 그래도 미군부대 월급이니까 괜찮잖아. 그래서 자랄 때 그렇게 궁색하지는 않았지, 아버지가 미군부대를 다니셨으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왜 우리 부모들이 가르치려고, 기를 쓰고 가르치려고 했었냐면, 미군부대를 보더라도 조금 배운 사람들과 월급 차이가 엄청 났어. 사무실에서 일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아버지 같이 막노동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하고의 월급 차이가 엄청났어. 그래서 엄마들이 그 당시 자식은 많이 가르쳐야겠다는 저기를 가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 세대, 우리 엄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는 다 버리고 가르쳤던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자기 인생은 다 버리고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하다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나 때까지도 애들을 많이 시켜야겠다는 게. 지금은 너무 많이들,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직종의 사람들이 너무 없잖아. 그게 다 사회적으로 그런 게 있어. 그 당시 엄마들이 느낀 점이 뭐냐면, 많이 배우면 그렇게 봉급이 많다는 것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느낀거지.

면담자 직접적으로 보셨으니까.

구술자 응, 봤으니까. 사실이 그랬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던 사람보다는 미군부대 사람들이 월급이 세니까 우리는, 우리 형제들은 궁하게 살지는 않았고.

면담자 그러면 사셨던 곳이, 피난갔다가 돌아오셔서 다시 ...

구술자 삼산동으로 갔을 거야.

면담자 삼산동으로 갔다가?

구술자 해방되고서 이리로 올라오신 거 같아

면담자 아버님이랑?

구술자 해방되고 삼산동으로 오셔가지고, 6·25 다 만나고, 1·4후퇴 끝나고, 내 기억으로 5살쯤. 5살 때, 6살 때 기억나는 걸 보니까 그 전에 온거 같아. 서너살 먹어서. 기억이 나. 옛날에 떡방앗간 하던, 만들던 절구가.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기억나는 걸 보면 거기에서 살았으니까 3살 때나 4살 때. 멀지 않아요, 여기 큰 대로 있잖아 부평대로. 대로에서 꺾어지기 전이야. 큰 대로가야.

면담자 5살, 6살 때 아버님이 애스컴에서 일하셨을 때 기억을 다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구술자 나쵸. 그럼요. 나 클 때까지 다니셨어요. 17살 때까지 다니셨어요. 아버지가 미군부대 다니시면서 내 드럼 사주셨다니까. 집에서 드럼

연습하고 그럴 때 악기를 사주셨다니까. 그니까 그때까지 다니셨다고.

면담자 그럼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셨네요?

구술자 응응.

면담자 그러면 선생님, 태어난 곳에서 1·4후퇴 끝나고 오셔서 백마장 입구 38번지를 기억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계속 거주를 하셨던 거예요?

구술자 그렇지, 결혼할 때까지.

면담자 부평이 미군부대가 있었던 당시에 기억이 좀 나시겠네요, 어렸을 때부터의 스케치가 어떠셨어요?

구술자 여기 신촌은 완전히 양공주들이 많은. 어렸을 때 신촌은 아주 반짝반짝. 옛날에 거기를 명동이라고 할 정도로 신촌이. 신촌이 여기에서 되게 가깝잖아. 부대 앞이 옛날에 그런 데였어

면담자 클럽 같은 것도?

구술자 클럽도 많이 있었지 그럼

면담자 지금 공원 이렇게 있고, 미군부대 이렇게 있고, 카센터가 하나 있고, 이렇게 쪽 오잖아요. 여기가 메인 길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 앞 쪽에 바가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술자 있었어요. 기억해. 많이 있었죠 미국 클럽이

면담자 바가 있었고, 클럽은 여기 뒤쪽으로 있었고 형성이 되어있었고.

구술자 예, 많이 있었어.

면담자 여기 사람 사는데, 여기 양공주 분들이 장교랑 같이 동거하고 그런 살림집이 많았다고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구술자 기억 다하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잖아. 양공주 동네에 그래도 더러 살았잖아. 유명한 권투선수 그이 네도 거기 살았잖아. 그 당시 그 사람들 어렸을 때 애들이 거기에서 소꿉장난을 놀면, 그렇게 놀았다잖아. 뽀족구두 신고, 핸드백 같은 거 매고, "야 부대 가자" 그랬다잖아. 애들 놀이문화도 그랬데. 그럴 정도로 부대가 그랬데. 그래도 우리는 조금 비켜섰었고,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가 부대 다니셨으니까 개방은 좀 됐었어도 좀.

면담자 딸들이 많아서 엄하셨을 거 같아요.

구술자 엄했어요. 그래도 부대 다니면서 좀 개방이 되셔가지고 언니들 세대는 좀 그랬지만 나부터는 허락을 하셨지 드림 치라고.

면담자 거주하셨던 그 집은요?

구술자 지금도 그냥 있어요.

면담자 지금도 그 자리에 가면 그대로 있어요?

구술자 응. 우리가 개조해놨던, 수리를 안 하고 그대로 있더라고. 사진관 하고 있어 보니까. 지나가다가 내가 옛날 집이라 보잖아. 거기 지나갈 일 있으면 보잖아. 그 집은 그대로야. 사진관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버스정류장 팻말이 딱 붙었어. 그게 우리 집이야, 나 자라던 집이야. 그 사진관 하는 집이. 다 지나가면 다 볼 수 있는 집이야(웃음).

2 음악을 접한 계기와 음악인 가족

면담자 음악을 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 자랄 때 그냥 앞만 보고, 부대 다니시고, 딸까지 대학 보내주고, 수준은 안 됐고. 밥은 안 굶었지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할까 그랬어. 취직을 하려고 해도 예전에는 직장이 전부 힘으로 하는, 노동으로 하는 공장밖에 없는 거지. 공장에 가서 하면 할까, 그런 건 없는 거지. 그런데 공장도 힘으로 하는 거라 조그맣고 몸이 이러니까 취직이 안돼 우리 같은 사람은. 중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싶어도. 한 번은 내가 기억나는 게 영등포 저 쪽 어디에 고무신 공장이 유명했어. 발표 고무신 들어봤나?

면담자 알 거 같아요.

구술자 신발공장이 옛날에 유명해가지고, 친구랑 취직을 하려고 갔어. 줄을 서서 면접을 보러 들어가는 거야. 우리 친구는 앞에 서고, 난 뒤에 섰는데. 친구는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나보고 집에 가래(웃음). 쪽 서있는데 너는 집에 가래.

면담자 속상하셨겠다.

- 구술자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는 거지.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힘이 없어 보이니까 집에 가라는 거야. 친구는 들어갔는데 나 혼자 집을 터덜터덜하고 돌아왔는데.
- 면담자 집에 혼자 돌아왔어요?
- 구술자 그렇지, 영등포에서. 그때는 영등포역만 있을 때라 버스를 타고 양평동인지 무슨 동까지 들어갔는데 신발공장이 꽤 깊었어. 근데 거기에서 혼자 나오려니까 겁도 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몰어서 버스를 타고 집을 왔어. 그 정도로 그 당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를 더 갔어.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돈 안 드는 학교라도 가자 하고 생각해서 간 게 지금의 명신여고예요. 지금은 명신학교인데, 그 전에는 돈 별로 안 들이는 전수학교 같이 있었어. 전수학교. 중학교를 그렇게 나왔으니깐 전수학교로 고등학교 입학할 한 거야. 그냥 다녔지. 다니던 도중에 우리 형부가 드러머였어
- 면담자 네, 클럽마스터 김윤옥 선생님.
- 구술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 드러머야. 역사를 조사해보니까, 선생님이 검색해본 결과 최초야. 그 당시는 우리 형부가 서울에서 하시다가 내려왔다고 우리 언니랑 결혼을 했는데 엄청 점잖고 멋지신 거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봐도 우리 사위가 너무 점잖고 멋지신 거야. 그러니까 음악을 한다고 해서 저렇게 볼게 아니다 느끼신 거지 엄마랑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는 멍치가 적어서 취직도 안 되지, 별로 할 것이 없고 하니까 우리 언니가 너도 형부한테 드림이나 배워라 이런 거야. 돈 안 들이고 배울 수 있고 하니까 그렇잖아
- 면담자 가까이 또 스승이 있으니까
- 구술자 그리고 내가 싫지를 않아 그런 게. 그래서 형부한테 두드리고 배우고, 형부 하시는 거 가서 보고 하다가 된 거지. 우리 오빠는 또 아코디언을 하셨어. 아코디언을 해서 직업으로 관촬았지. 오빠는 옛날에 유명한 단체야 장소팔, 고춘자. 옛날에 장소팔, 고춘자 제일 유명할 때 마스터를 6년인가, 7년을 따라다닌 양반이 우리 오빠야. 아주 잘했어. 오빠도

하지, 형부도 그렇게 하시지 하니까 인천에서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 여자애다가, 오빠 있지, 형부 있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봐도 되는거지. 실력도 그렇지만 여자가 이렇게 해도, 말하자면 날라리로 보지 않고.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여자고, 남자고 좀 이렇게 봤어. 그때는 음악인이라고도 안 하고 뭐라고 했더라. 아무튼 그랬어. 인식이 안 좋은 시대인데 우리 형부가 너무 점잖으신 거야. 추측으로, 내가 저기를 못 해서 그런데, 내가 지금 추측으로 군함도, 군함도 영화 보셨어요? 군함도 강제로 끌려가서 복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그 멤버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면담자 어째서요 선생님?

구술자 년도 수를 따져볼 때 우리 형부가 군함도에서 해방됐던 때가 딱 22살이예요 우리 형부가.

면담자 근데 군함도에 계셨다고 하셨어요?

구술자 그런 말을 절대 안 해요, 우리 형부가. 안 하시고 이북에서 오셨다는데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북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과거 얘기를 안 하셨어. 결혼이 늦으셨어 우리 형부가. 그 뒤로 음악 한 걸 보니까 년도 수를 따졌을 때, 해병대에서 연주한 사진이 있어. 그런 걸 가만히 비춰볼 때 알아보고 싶어 진짜. 군함도에 갔던 사람들이, 멤버가 누구였는지 알아보고 싶어 정도로. 우리 형부가 거기에 계시지 않았을까. 나중에 폐병으로 돌아가셨거든. 군함도 거기에서 일하는 걸 했으니 얼마나 안 좋았겠어.

면담자 그럼 형부가 어디에서 음악을 배웠고 이런 건 전혀?

구술자 얘기를 안 하셔. 근데 옛날엔 일본사람이지 다 뭐, 일본 계통이야. 악기 이름도 전부 다 일본말로 했어

면담자 그럼 드럼은 뭐라고 했어요?

구술자 와꾸(틀), 와꾸 때려라. 일본말로 전부 다 하더라고. 나도 그렇게 배웠어. 스틱을 스틱이라고 안 하고, 뭐더라 내가 나중에 생각하면 얘기해줄게. 하여튼 일본말로 했던 걸 생각해보면, 일정 때 일본 사람들을 결혼질로

봤거나 이런 식으로

면담자 오빠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 김덕순. 여자 이름이었어. 돌아가셨어

면담자 오빠는 아코디언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구술자 아코디언은 형부가 음악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해봐라. 오빠도 그냥 그냥 배우다보니까 잘 하더라고. 가족력도 있었나 봐

면담자 그러면 형부가 연습을 시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악기는 처음에 어떻게?

구술자 없었지.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에는 스틱가지고 연습하지. 집에 가서 연습하면 틀린 점 지적해주시고, 따라가서 형부가 하는 걸 많이 봤지 클럽에

면담자 형부가 연주하셨던 클럽은 어디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구술자 그럼. 기억나는데 한 군데 있어요

면담자 어디였는지, 혹시 이름이?

구술자 처음에는 8군에 단원으로 계시고, 나 어렸을 때는 8군에서 단체를 몇 개씩 가지고 계셨었어. 결혼하고 바로는. 8군에 단체를 몇 개씩 가지고 일 보내고 그러셨어

면담자 마스터라는 게 그러면 한 단체만...

구술자 한 단체의 마스터만 될 수도 있지만, 매니저 식으로 몇 단체를 내가 거느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일을 보내고, 그 사람들 월급 다 주고, 자기가 조금 얻어먹을 수도 있는 게 있는 거지. 클럽에 얼마씩 나오는 게 있으면. 그 전에는 그랬어. 그래서 몇 개 단체씩 가지고 계시다가, 나이 좀 더 드시니까, 나도 나이 먹고 그랬을 때는. 아 그때도 아니야. 내가 17-18살에 배웠을 때 그때는 동인천에. 그때는 동인천이 인천에서 제일 개발 많이 됐었었어. 그렇게 할 때 동인천의 제일 큰 클럽에서 했었어. 동인천역 맞은편에 큰 극장이 하나 있었을거야

면담자 애관극장?

구술자 애관극장은 이 쪽에 있었고

면담자 미림극장? 거기 극장이 되게 많았어요

구술자 아니야. 바로 역사 건너편. 왼쪽편으로. 직선으로 왼쪽에 제일 큰 극장이 있었고, 그 골목에 제일 유명한 클럽이 하나 있는데, 클럽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클럽에 오래 계셨거든

면담자 그것도 미군 클럽이에요?

구술자 아니죠, 한국인 클럽이죠. 우리 형부는 미군 클럽에서 하신 건 기억이 안 나고, 8군에 계셨던 것만 기억나고

면담자 8군에 계셨다가, 부평으로 내려오시면서?

구술자 아니, 8군은 부평에도 있었어. 부평 8군에서 했어, 내가 알아. 부평 8군에 지금 성모병원 앞 쪽 될 거야. 거기에 모여서 스테이(stay), 이렇게 하는 데가 있었어.

면담자 숙소?

구술자 아니지 밴드들이 모여 있다가 일 나가는데. 스테이션(station)?

면담자 사무실 같이? 인력사무소 같이?

구술자 응응. 거기에서 밴드들이 모여서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기로 가고. 단체들이 모여서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형부는 그 8군을 그만두셨어. 단체를 몇 개 가지고 계시다가 내가 들어갔을 때는. 내가 18-19살 때 거기에서 1년 했어요, 부평 8군에서. 부평 8군이 2사단이야. 옛날에 왜 미8군이냐면 8군이 있었어 8사단 우리나라에. 용산이 있는 서울이 1사단이면, 인천 지역이 2사단이야 평택까지인가. 내가 8군을 많이 돌아다녀서 아는 거야. 그런데 우리 형부는 여기 2사단에 8군만 단체 몇 개를 가지고 계시다가 일본으로 나가시고 나는 여기를 들어온 거지. 거기에서 여자들 밴드를 구성해서 8군으로 좀 뛰었지 부평에서.

면담자 그럼 선생님 좀 정리를 한 번 해볼게요. 김윤옥 선생님은 미8군에서 마스터로 활동을 하시다가 나오시고, 그 김윤옥 선생님이 활동을 할 때 선생님은 김윤옥 선생님에게 드럼을 배우셨고

구술자 그렇지, 그때 내가 배운 거고

면담자 그 다음 김윤옥 선생님이 미군 은퇴하고 동인천 클럽에 나가실 때에

구술자 개인 클럽이야. 거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데였어

3 미 8군 무대 데뷔와 본격적인 활동

면담자 굉장히 큰 클럽에서 활동하셨을 때 선생님은 미8군에서 데뷔를 해서 활동을 시작했고, 그게 17살이나 18살이었던 때 즈음인 거죠

구술자 네네, 17살 때 와서 18살 때 했다고 봐야죠. 시작은 17살 때부터 해가지고 18살 때 들어와서 거기에서 단장이 자기 딸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자 멤버를 꾸며서 일을 내보내더라고.

면담자 그러면 선생님 말고도 다른 여자 활동하는 분들이?

구술자 거기에서 활동하던. 서울도 같이 갔었잖아요. 그 중에 서울에 같이 올라간 멤버가 있죠. 단장님 딸이 세컨 기타를 했어. 베이스 여자 하나 있었고, 나하고 하면 여자가 셋, 거기에 남자 끼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했지. 8군 일을 하다가 서울 올라가자고 누가 와서 서울에 여자 멤버를 하나 해서 올라갑시다 누가 얘기를 했어. 날보고 한 번 해볼래냐고. 한 번 생각해보자고 해서 하게 된 건데, 그때 누구를 합세했느냐면 임정민. 올라가면서 합세한 게 임정민 부르고, 도토리자매의 언니를 부르고. 나하고. 퍼스트 기타 하는 여자도 하나 있었어.

면담자 17살 때 처음으로 부평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첫 공연이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구술자 여기 8군 미군부대에 처음 들어와서 그냥 가자는 대로 가서 따라서 했는데. 그 기억보다는 여기 사진에 있는 게 머리 땀고서 한 게 있어. 내가 이거 보고 웃었는데. 어디 가서 했던게 기억 나. 첫 공연이라는 게 이게 기억나. 이거 봐봐. 머리 땀잖아. 내가 학교다닐 때니까 머리 땀잖아. 그걸 보면 첫 공연이 생각이 나.

면담자 이게 어디예요 선생님? (사진을 보며)

구술자 야외 같아.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야외에 가서 했어. 그게 생각이 나. 첫째 무대라는 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면담자 이(사진) 드림이 아버님이 사주신 그 드림이예요?

구술자 그렇지. 그때에는 악기가 없으면 어디 가서 하기 힘들 정도로. 근데 미군 부대라는 거는 지정되어 있어. 그 부대 클럽에 악기 안 들고 다니고 고정되어 있었어. 기타 같은 사람은 자기 기타 들고 다니지만 드림 세트는 무거우니까 아마도 있었던 거 같아. 내가 들고 다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면담자 1968년 2월 20일이라고 써 있네요 사진에.

구술자 써 있어? 68년이면 나 몇 살이야, 한국 나이로 스무 살이네.

면담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 기억나세요?

구술자 여자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면담자 여성 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구술자 애가 기타를 제법 쳤어. 그런데 애가 시집을 일찍 가는 바람에 헤어졌지. 시집가서 잘 사는지 어찌는지 모르겠네(웃음). 그 뒤로는 잘 모르고.

면담자 그래서 선생님의 처음의 기억이 이게?

구술자 응 기억이 나.

면담자 그 다음엔 어떤 클럽?

구술자 나는 클럽 생활은 안 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여기 8군에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공부도 좀 된 거지. 처음에 못 하던 실력이 여기 8군도 다니고, 야외도 다니고 8군에 있으면서. 부평 애스컴에.

면담자 아 그러면 선생님은 부평 신촌 클럽에서 한 게 아니고, 부평 애스컴에 바로?

구술자 응 그럼. 바로 8군으로 들어갔다니까 나는 애스컴에.

면담자 오디션 안 보고?

구술자 근데 오디션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 내가 오디션 본 거는 급수가 있어요. 서울에서 한 거는 A클래스, B클래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씬(scene)이 틀려. 여기 부평 8군에서 한 거는 한 C급 정도 될 거야. 그러면 거기 빈자리 메꾸고 가서 하는 식이지. 단체 이름은 자기들이 시험을 봐서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시험도 안 본 상태에서 남의 자리에 가서 1년을 해

주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내 실력이 늘고. 여기서는 그니까 차츰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오디션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 형부도 아는 사람 천지니까. 어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그 자리 들어가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 면담자 그렇게 1년 동안 여기에서 연주를 하신 거구나?
- 구술자 그렇지. 부대에서 한 거야 나는, 일반에선 안 했어. 미군 부대에서 한 거야.
- 면담자 그럼 부대 안에서도 무대가, 공연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 구술자 그런 걸 모르시는 구나. 옛날에 8군이라는 데는, 8군 안에 장교 클럽, 미군 부대 어느 사단이든지. 부대 안에 장교 클럽, 사병 클럽, 중상사 클럽이 어디에나 있어. 그러니까 장교들만 앉아서 구경할 수 있는 클럽이 있고, 중상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클럽이 있고, 또 사병들이 들어가는 클럽이 있는 거야. 8군 단체가 있으면 한 달 스케줄이 나와. 몇 일 날엔 어디로 가라, 몇 일 날에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그러면 그 날 사람이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거는 3등급, C클래스 수준이야 내가 볼 때. 내가 서울 가서 본 거는 완전 프로 클럽이야. 이런 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프로들의 오디션인 거야. 우리가 B클래스를 받았는데 월급 차이도 장난이 아닌 거지. 여기는 사실 내가 본 거기의 C클래스 수준도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이 사단만 돌지만, 내가 본 오디션은 전국을 도는 거야. 어느 클럽에서든지 매니저들이 부르면 전국을 다 갈 수 있어, 1사단, 2사단, 3사단 다 갈 수 있는 게 우리 자격증이야, 말하자면 우리 자격증.
- 면담자 어쨌든 선생님의 시작이 여기 미8군이니까, 여기에서 공연하셨던 얘기를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 구술자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 부평 클럽을 다닐 때에는 서울에서 밴드들이 오는 거야, 쇼 악단이. 우리는 쇼야. 나중에 본 거는 쇼야, 그냥 이런 밴드가 아니고. 프로 쇼라고 해 그걸. 쇼가 오면 우리가 세 타임을 뛰어 원래. 장교 클럽을 가든지, 사병 클럽을 가든지. 세 타임을 30-40분 하고 쉬었다가 또 한 타임 하고, 또 한 타임 하고 그렇게 해. 그런데 두 번째 타임에 쇼를

부르는 수가 있어. 쇼를 부르면 누가 오냐면, 그 당시 서수남, 하청일 씨가 8군에 있을 당시 그 단체들이 와서 가운데 타임을 탁 떼어 주는거야 중간에. 싱어들도 데리고 와서.

면담자 춤추고? 야한 옷 입고.

구술자 그런 옷 입은 사람들 데리고 오는 쇼도 있고.

면담자 되게 화려하더라구요, 생각보단.

구술자 아이고, 말도 못했지 뭐 옛날엔. 그렇게 오는 걸 우리도 본 거야, 나도. 내가 첫 번째 타임을 하고 쇼가 들어오는 날은 구경을 하는 거지. 얼마나 멋있던지,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거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거를 엄청 부러워하다가 내가 얼마 안 있다가 서울을 올라간 거지. 서울을 올라가서 그 오디션을 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진도가 빨랐다고 그럴까? 진도를 빨리 나간거지. 남자들 같으면 그걸 수십 년 해도 가기가 어려운 데가 그 쇼 단체예요.

면담자 그러면 선생님, 17살 때 부평 단체에서 1년 동안 계시다가 19살에 서울로?

구술자 17살의 1년은 연습 단계라고 보고, 18살에는 부평 애스컴에서 했다고 보고, 19살에 가서 1년 정도는 여자들하고 스테이지, 이미지 쇼도 따라 다니고. 최희준 쇼도 유명했었거든, 그런 데에 잠깐 찬조출연도 하고. 그렇게 1년 정도 하다가 오디션을 봤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B클래스를 받았는데, 그건 밴드가 아니야, 쇼야 완전.

면담자 그러면 부평에 있다가, 매니저가 제안을 해서 팀을 꾸려 서울로 가서, 최희준·이미자쇼 이런 활동을 하다가 오디션을 보시게 되는 거죠?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오디션은 어떤 계기로 보신 거예요?

구술자 오디션을 목적으로 간 거죠. 오디션을 목적으로 연습을 시키면서. 일반 무대는 약간의 수익을 얻고자 경험 삼아서.

면담자 약간 아르바이트 식으로?

구술자 그렇지. 그렇게 보내주는 거지. 이게 다 그때 사진이지.

- 면담자 이게 다 19살 때.
- 면담자 데뷔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할 때예요?
- 구술자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닌다고 했잖아 일을. 그러니 부산 부대에서 부르면 부산으로 가는 거야. 해운대 극동호텔나이트까지 갔었어. 그런 데에서 초청하면 극동호텔나이트, 해운대에 간 거야. 일주일씩 나이트 가서 해주고. 8군에서도 큰 데에서 부르면 해주지. 일반 클럽, 작은 데에 가서는 안 했어. 올림푸스나이트에서 내가 했다고 했잖아 일주일. 옛날에 올림푸스.
- 면담자 오디션 봤을 때의 분위기나 어떤 방식으로 봤는지 기억나세요?
- 구술자 아이고, 기억나죠. 그게 얼마나 떨리는 거겠어요, 미군들 앞에서 오디션을 보는데.
- 면담자 들어가면 미군들이 짝 앉아 있었어요?
- 구술자 미군 심사위원들이 짝 앉았죠. 그때에는 와이프아웃(The Ventures, Wipe out) 드럼 솔로가 인기할 때야. 그러니까 와이프아웃을 못 하면 안돼. 나도 연습을 해갖고, 왜 어디를 가면 자기네들이 지정한 몇 곡이 있잖아요. 몇 곡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와이프아웃이 낀거야. 그니까 그 미군들 앞에서 다가가다가, 와이프아웃 솔로를. 당가당 기타는 리듬만 쳐주면 드럼이 혼자 막 솔로로 나가는거야. 그 와이프아웃이라는 걸 하는데 엄청 떨렸지. 지금도 안 잊어버리지. 스틱을 놓칠 뻔 했다니까.
- 면담자 그런데 안 놓치고 잘 하셨나 봐요.
- 구술자 잘 했어요. 그래서 B클래스 받았다니까.
- 면담자 B클래스 받았으면 엄청난 거죠?
- 구술자 잘 한거야. A클래스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초청할 정도니까, A클래스 받은 단체는. 애들 단체인데, 조그마한 꼬마들 단체인데 있어, 탑파이브(Top Five)인가. 같이 오디션을 봤는데 개네들이 A클래스를 받은 거야, 귀여우니까. 어리고 귀엽고 실력들도 있었지만. 그때 드러머가 12살인가 밖에 안 먹었을 때야, 남자인데. 부평 사람이야 그 사람이. 부평

사람이라 나중에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지금도 교류는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지금 육십이 다 됐나 그런 나이가 됐는데, 그때는 나보다 한참 어려단 말이야. 나는 스무 살 됐는데 거기는 열두 살인가 밖에 안 먹었어. 그 단체가 같이 오디션을 한 날에 봤어. 근데 그 사람 팀이 A클래스를 받은 거야.

- 면담자 거기에 많은 팀이 올 거잖아요. 그 중에 A클래스는 한 단체만 준다는거?
구술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내 기억으로는 그 팀이 A클래스를 받아서. 애들이고 귀엽고 그러니까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 선생님도 따라 가셨어요. 미국 초청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갔다고 그래. 학교 다니고 너무 어리니까 부모님이 안 보내서. 딴 사람 끼워서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수도 있어 단체가. 이름은 탐파이브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람 하나 바꿔가지고 가는 거고, 연습시켜가지고.
- 면담자 선생님 서울 처음 올라갔을 때 연습실은 어느 동네에 있었어요?
구술자 용산.
면담자 용산에? 오디션 보는 것도 용산이었어요?
구술자 그렇죠. 용산에 1사단 최고 요지잖아요. 용산에서.
면담자 그 쪽에 라인 딱 잡고.
구술자 그 근처에서 숙소는 하나 얻어줘서. 밥집하고 숙소 다 얻어줘서 같이 있고. 연습장소는 바인지 뭔지 드럼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런대를 단장님이 빌리더라고. 빌린데 가서 조용히 연습시키고 스승님 부르다가.
- 면담자 스승님도 있었어요?
구술자 스승님도 불러다가 시켰죠. 내가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면담자 단장님 성함은 기억나세요?
구술자 단장님 성함은 내가 그때 기억을 했었거든.
면담자 이 팀을 임정민 선생님이랑 도토리자매의 언니 분이랑 선생님이랑 남자 기타 분까지 다 구성을 한게 단장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레이디버드였어요?
구술자 두 형님이 다 드러머였어. 나는 굉장히 좋은 게 드럼을 코치를 잘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좋은 거야. 둘 다 드러머였어. 그 단장님이 사는 곳은 군인들이 있는데 어디죠?

면담자 파주?

구술자 서울 쪽에 저 쪽으로 해서.

면담자 의정부?

구술자 군인들 큰 묘 있는데.

면담자 동작구 현충원 있는데?

구술자 현충원 다 가서 그 동네 살았어. 현충원 있는 데로 가기 때문에 단장님 집이 아주 시골, 그때는 한강변이더라도 너무 허술했었지. 한강물에 구정물 내보내던 시대야. 동작구 그 쪽에 단장님이 살았을 때 형님이 우리를 다시 잡은 거야.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파괴가 되게 생겼잖아. 팀이 깨질 뻔 했잖아. 형님이 다시 잡아가지고 남자를 꺼서 그때 오디션을 본 거지.

4 전국구 클럽 쇼 투어

면담자 오디션을 봐서 B클래스를 받아서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구술자 그렇지. 서울에서 활동을 해도 전국구예요 그거는. 프로 쇼야, 프로 쇼. 그냥 일반 쇼가 아니고 프로 쇼기 때문에 전국구야. 전국 어느 클럽에서라도 부르면 가.

면담자 미 8군만 하는게 아니라?

구술자 8군만. 8군에서. 8군이 지금은 사단이 줄어서 8군까지 아닐지도 몰라. 그 당시는 광주, 전라도 쪽에도 있었어. 서울이 1사단이면, 인천부터 평택까지 2사단이잖아. 의정부 저 쪽이 3사단이지, 대전 4사단, 부산 5사단, 어디 이렇게 해서 사단은 잘 몰라도 8사단까지, 8군이 있었던 거야. 우리가 목포 있는데 까지 하여튼 거기까지도 갔어. 부르면 가게 되어 있어 우리는. 그래서 다 해봤어. 장교 클럽에 가잖아? 재미없어.

면담자 왜요(웃음)?

구술자 장교 클럽에 가서 젊은애들이 막 뛰고 해도 장교들은 나이가 좀 먹고 점잖아. 아무리 흔들어도 장교들은 자기들 체면이 있고 점잖잖아.우리가 아무리 해도 재미가 없어. 중상사 클럽만 가도 조금 나아. 소리고 지르고. 호응도 좀 하고. 제일 재미있는게 사병. 우리 애들보다 더 어리다고 봐야 돼. 미군들 나이는 17살, 그때도 미국 사람들 나이로는 오잖아. 그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고 하지. 우리가 미니스커트 입고 하잖아. 무대가 조금만 높잖아. 그러면 막 앞에 와서, 장난 삼아서 막 야유하고, 소리지르고(웃음). 그러니까 재미는 사병 클럽이 재미있지. 우리가 이런 단체다 하고 한 번 보여주면 자기들 클럽 매니저들끼리는 서로 그런 게 있는 거지. 어느 단체가 멋있다 하며는 어디에서든지 부르는 거야. 대전이 됐든, 부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방에서도 부르면 스케줄 맞춰서. 우리는 옛날에 관광버스 한 대가 우리 기본으로 실고 다니는 거였어.

면담자 아예 전용버스가 있었던 거예요?

구술자 전용버스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스케줄이 먼 데다 하면 그거 한 대를 불렀어. 그게 한 대가 와있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런 거 보면. 지금의 거의 헬기 한 대 수준이야.

면담자 선생님의 레이디 버즈만 타고 가는 거예요?

구술자 그럼. 약기 다 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관광버스가 우리나라에 몇 대 없을 정도인데. 최초로 생긴 관광버스 한 대가 우리를 전용으로 실고 다녔다니까 지방 갈 때는. 여기에서 의정부, 어디만 가도 그 버스가 와야 가. 트럭에다 덜덜덜 실고 갈 수는 없잖아. 가수들 의상도 있고, 우리들 약기도 있고. 8군에 있을 때에는 약기 실어 나르는 보조가 2명씩 있었어. 보조애들이 2명씩 붙었어. 우리가 어디 연주하면 약기 다 갖다 날라줘야지, 어린 우리들이 못 나르잖아. 엠프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드럼 세트는 특히나. 그러니까 남자애들을 보조로 꼭 2명씩 뒤서 우리 단체의 기본으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약기 설치해주고 다 해줬어.

면담자 단장님이 아예 그렇게 구성을 한 거네요?

구술자페이(pay)가 나오는 걸로 그게 다 되는 거지. 월 페이가 단장한테 나오는

걸로 우리를 봉급 얼마씩 주고, 그들 페이까지 다 얼마 주는 거야.

면담자 아예 팀을 꾸리는 게 그런 거였구나?

구술자 그럼. 그게 8군 단체지.

면담자 B클래스 받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예 팀을 그렇게 구성을 해서.

구술자 2년을 했어 서울에서.

면담자 서울에서 용산에서 계속 머물면서?

구술자 그렇죠. 머물기는 회사가 거기에 있어요, 8군 회사라고 해서.

면담자 8군 회사라고 했어요 당시에?

구술자 그때는 회사가 ...

면담자 아니면 스테이션 간다 이렇게 했어요?

구술자 아니. 용산 근처에 8군 회사가 2개가, 3개가 있었어. 근데 내가 있던 회사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 저번에(웃음). 그때는 생각했어서 썼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나중에 생각해서.

면담자 지금으로 치면 소속사?

구술자 소속사. 소속사가 2개가, 3개가 있었어. 나는 옛날에 삼각지 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삼각지가 있을 때에 이 쪽이 8군이었던 거든. 그러면 우리는 요쪽에 사무실, 소속사가 있었어. 다리 하나 건너서 소속사가 있었어. 가깝게 있었지. 거기 그때 신중현 씨도 있었다고.

면담자 신중현 선생님도 보셨어요?

구술자 그럼. 그때 신중현 선생님이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김추자를 키울 때야. 회사매 키울 때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개들을 키워서 조금 있다가 내보내더라고. 나 2년 활동을 거기에서 했으니까 김추자도. 극장 같은데 하다보니까 김추자도 같이 했어. 신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님은 먼곳에' 그거 누구지, 아 회사매. 회사매랑 같이 많이 다녔어. 회사매랑도 많이 다니고, 김추자랑도 많이 다니고.

면담자 그때 선생님 그룹 이름이 레이디 버즈?

구술자 벌스. S자를 붙였다고 했잖아. 내가 저번에 얘기하다가 생각 안 난다고 한 게 장미화씨야. 장미화씨가 드림을 애초에 했었다네. 이름이 저번에

생각이 안 난다고 했잖아. 그 장미화씨가 레이디버드 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이미 레이디버드 단체가 있었나 봐. 그건 내 생각에 8군 오디션까지는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거 까지는 모르겠는데. 나 서울 올라갈 때 이미 레이디버드가 있었다가 없어졌어. 서울에선 없어. 장미화씨가 월남인가 외국을 가버린 거야. 나는 장미화씨랑 한 번도 마주친 적은 없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장미화씨가 레이디버드를 했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레이디버드 이름이 괜찮은데 레이디버드로 이름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레이디버즈라고 하자 그래서 S자를 붙였잖아. 그래서 오디션을 레이디버즈로 본 거잖아. 보고 나서 내가 만 2년을 거기에서 하고 나서, 결혼을 하려고 헤어졌잖아. 최선생님이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에 장미화씨가 다시 와서 들어와 있더라(웃음). 사진 찍은 게 여기 어디에도 있어. 장미화랑 사진 찍은 것도 있더라고. 나 결혼하니까 정민이랑 다시 합세를 한거야. 나는 장미화씨랑 얼굴은 마주치지 않았는데. 내가 장미화 자리로 들어간 거고, 다시 장미화씨가 내 자리로 들어간 거고 그렇게 됐더라고(웃음).

면담자 레이디버즈가 선생님이 있었을 때 전성기였고. 미 8군 클럽 공연이 되게 활발했던 때니까?

구술자 그때는 8군이 진짜 활기찰 때야.

5 보컬경연대회 출전, 당시 유명했던 밴드들

면담자 생각나는 일화같은 거 있으세요 선생님? 그때 서울 가서 저번에 말씀해주셨던 거 남산 텔레비전은 어떻게 나가게 된 거예요?

구술자 초청해서 갔겠지. 내가 기억에 젤 많이 남는 게 방송국에서 초청해서 간 거지. 김상희 씨랑 하면서 했다니까. 그때는 생방송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30분 있다가 보니까 생방송이라고 하더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연주를 고 하고 시켜도 잘못될까 봐 다시 시키잖아. 그런 건 있어 확실히. 그걸 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생방송이라고 하면서

하더라고.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

면담자 남산 방송국가서 생방송이라고 해서.

구술자 바로 하고 아래층에 내려와서 커피 마시면서 티비를 보니까 생방송이라고. 우리는 가정집에 티비도 별로 없을 때야 그 당시는. 남산이니까 건물이 큰 데잖아. 티비가 요만한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더라고. 그런 기억하고, 또 우리 때 뭐가 제일 유명했냐면 보컬 경연대회가 유명했어요. 지금 세종문화회관이라고 그러데? 지금은 거기지만, 옛날에는 서울시민회관이라고 해서 딱 하나밖에 없었어 그 크게. 거기 무대가 이렇게 돌아갔어 처음엔. 무대가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동그랗게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선 준비하고, 저기에선 무대를 보고 활동을 해. 그러면 여기에서는 준비를 하면 돌아가. 돌아가면 끝나고 이렇게 하고. 그 당시에 그런 무대였어 시민회관 무대가. 그런데 그때 보컬경연대회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일주일 이상은 해.

면담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참가하는?

구술자 참가하는 사람이 많은 것 보다 구경할 사람이 많은 거야. 그때는 보컬경연대회가 인기가 엄청 좋았어. 한 달이면 일주일은 했어.

면담자 선생님네 팀도 나가셨어요?

구술자 그럼. 보컬경연대회를 하면 김홍탁씨 단체도 나오고, 말하자면 윤복희의 오빠 윤희기씨. 키보이스(Key boys), 히식스(He 6), 유명했던 최현 네 단체, 기타 잘 치고 노래 잘하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 누구지(웃음). 개 이름도 생각이 안 나냐(웃음). 그 유명한 기타 잘 치고, 노래 잘하는.

면담자 너무 많아요.

구술자 아니야, 옛날 선배치고 그 사람처럼 유명한 사람이 없지. 근데 그 사람은 옛날에 키 조그맣고. 미국갔잖아. 미국에서. 나중에 얘기해줄게(웃음).

면담자 신중현? 이장희?

구술자 신중현 씨보다는 후배지. 그 사람 단체도 있었는데, 그 당시 나하고 그 사람이 나이가 비슷할 거야. 1살인가 어리든가. 그 당시 세컨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잘 안 했어 나랑 경연대회 나올 때는. 최현씨는 그래도

조금 알아준다고 그럴까? 그래서 8군에서 노래도 잘 하고. 최현씨 사람 참 좋아. 우리 동갑이니까 친구처럼. 그 사람은 처음엔 인기가 별로 없었어. 나중에 최현 지나간 다음에 그 사람이 인기가 많았는데. 그 사람 단체도 나오고. 보컬이 8군 보컬이야 다. 경연대회를 하잖아, 그러면 구경하는 사람이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한 달이면 일주일을 했단니까. 지금은 밴드경연대회가 있더라 텔레비전 보니까. 밴드경연대회 같은게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야 실력이 너무 좋고, 자작곡 전부 하드만 보니까. 그 정도로 유명하고. 지금하고야 실력이 비등이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도 보컬경연대회라고 해서 굉장히 히트했어 하여튼. 우리는 등수에는 못 들었지만 실력들은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이 꺾었으니까 실력들이 미약하니까 등수에는 못 들었지만 경연대회는 참석을 꼭 했어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3번인가 할 걸 그게 아마. 세 타임인가 할 걸. 거기에서도 내가 드림 솔로를 한 사람이야. 드림 솔로 항상 꺾었으니까. 레파토리에. 거기 3층에 올라가서 무대를 보잖아. 옛날에도 사람이 콩나물 시루 같았어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시민회관이 그렇게 큰 데니까. 그런 무대를 내가 자랑은 아니지만, 평생 한 번이라도 서봤으면 하는 게 소원인 사람도 많을 당시이지. 그렇잖아. 그 큰 무대에 한 번이라도 서봤으면 소원인 사람이 많지. 지방에 있는 밴드들은 꿈의 무대이지. 그런데 서울에서 8군에 있는 단체들은 전부 다 거기 경연대회에 참여를 했다고 봐야지. 지금 다 알잖아. 최현씨 단체, 김홍탁씨, 윤항기씨 단체. 윤항기씨 단체랑 김홍탁씨 단체는 막 1등도 하고 그랬어. 내가 알아. 거기는 잘 했던 사람들이라 그때 인정받은 팀이라 1등하고. 그 다음에 또 팀 하나가 지금 정훈희 남편 이름이 뭐야? 가수 정훈희 있잖아. 그 사람 이름이 뭐야, 그 사람 단체도 있었어.

면담자 김태화?

구술자 김태화씨 단체도 있었어. 김태화씨도 클럽 밴드 했었어.

면담자 '우리는 하나', '인생과 구름'?

구술자 나중에 이 사람이 노래도 좀 했지. 노래도 좀 했는데 김태화씨는 유명한

게 밴드마스터, 밴드 가지고 8군에 있었으니까 알지.

면담자 당시 레파토리는 기억 나세요? 선생님 드림 솔로.

구술자 그때 레파토리 중에 아이쏘허트(I'm so hert)라고 임정민이 노래했던 거 기억하고. 기억하는 게 별로 없고 그렇긴 한데 요새 젊은 애들이 알 수 있는 곡은 (악보를 보여주는 중) 이게 우리 실버악단에서 하는 거거든? 옛날 실버악단에서 하던 거 가져와봤어. 블랙나이트... 이거 한 번 봐봐. 옛날 악보야. 그 시절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된 거야. 그거 제목은 뭐야? 그것도 옛날에 하던

면담자 비틀즈 멜로디라고 써있어요.

구술자 비틀즈 멜로디인데, 비틀즈 음악을 많이 했잖아 그 전에. 비틀즈 음악을 꾸며서 한 거지 말하자면. 몇 곡을 편곡을 해서. 하기만 하면 굉장히 멋있는 거지. 비틀즈 음악을 대체로 많이 했고.

면담자 클럽에서도요?

구술자 8군에서도 비틀즈 음악을 많이 했죠. 비틀즈가 워낙에 유명했으니까. 비틀즈 곡은 거의 다 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여기도 몇 곡이 들어가 있는 건데.

면담자 그때 작사·작곡을 직접 하실 생각은 안 했죠?

구술자 감히 뭐. 그렇게까지는. 그 당시는.

면담자 미 8군에서 활동하셨던 선생님들이 거의 다 그러셨다고 하더라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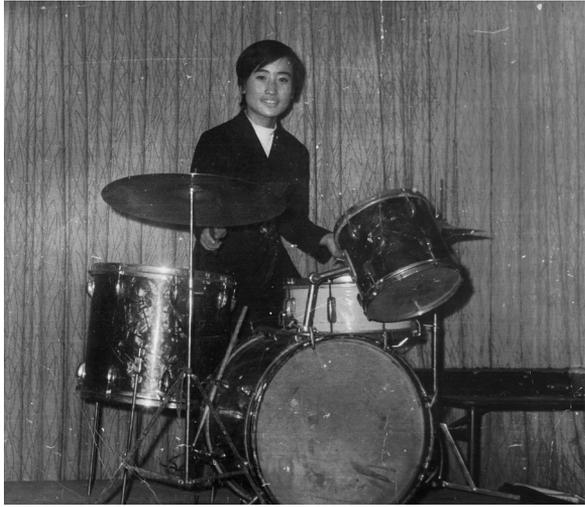
구술자 감히 할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중에 윤항기씨 같은 수준의 사람들은 조금씩 그런 걸 가지고. 윤항기씨는 판도 좀 내고 그랬어. 우리네는 그거까진 생각을 못 했어. 우리 애들한테는 음악만 해서는 안 되니까, 돈도 안 되고. 그런 걸 해라, 그런 걸 해야 된다 지도는 했었고. 요새 또 손자가 드림을 친다고(웃음).

면담자 어떻게 해요, 피는 못 속여요.

6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어야 했던 음악

- 면담자 레이디버즈를 그만두게 된 사연이?
- 구술자 결혼하느라고.
- 면담자 그러면 한 2년 동안 활동을 하고.
- 구술자 2년을 서울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1년 하고. 1년은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연습하고. 1년은 부평 애스컴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만 2년을 저기에서 한 거야. 연습기간까지 한 4-5년 했어 내가. 그러고선 23살에 12월달에 결혼을 했지. 결혼을 하면서는 못 하게 하지. 남편도 못 하게 하고, 내가 여기 부평에 와서 살아도. 내가 경력은 있으니까 부평에 음악학원. 음악학원 하나 밖에 없을 때에 원장님이 나와서 지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연습하러 나오는 애들이 깔렁깔렁 하잖아. 깔렁깔렁한 애들이 연습실에 나와 있는데 젊은 나를 우리 신랑이 하게 놔두겠어? 못 하게 해서 죽고 살았지 뭐. 그냥 애들 키우고 죽고 살다가 나중에 애들 다 키워놓고는 다시 오케스트라. 그래도 오케스트라 나가게 된 게 참 고맙더라고.
- 면담자 선생님 저는 항상 그 시절에 관하여 궁금한 게 의상 같은 건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 구술자 언제 하는 거?
- 면담자 선생님 전성기 때, 8군에서 할 때.
- 구술자 우리가 맞춰 입은 것도 있지. (사진 보며) 이거 하얀 거는 맞춰 입었어. 똑같이 맞춰 입었는데 노란 거, 야한 거. 사진 본 적 있지?
- 면담자 본 적 있어요. 미니스커트?
- 구술자 응, 그거는 선배들이 입던 거 얻어 입었어. 커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늘어지고 그랬어. 의상 맞춰 입을 형편들이 안 되고 그러니까.
- 면담자 고속버스까지 대절해서 했는데도.
- 구술자 그렇게 야한 의상 맞춰 입을 정도의 수준이 안됐지. 하얗게 간단한 거, 레이스 조금 달리고 이런 건 해 입었는데 그 노란 거는 선배 꺼라고 그러더라고. 얻어 입기도 하고, 우리가 해 입기도 하고 그랬는데.

면담자 그래요, 그 사진. 여기 선생님 계시고, 이게 도토리자매, 임정민 선생님.
구술자 애들이 노래하던 애들인데 기타 들고 찍자 그래서 찍은 거지.
면담자 이것도 레이디버즈죠?
구술자 레이디버즈죠. 이 남자가 나중에 낀 그 남자야. 그게 우리 단체였어.
면담자 이건 어디인지 기억 나세요 선생님? 적혀져 있나?
구술자 아니 안 적었어. 이게 미군 부대 어느 클럽에 와서 일 할 때인데, 미군들이
 카메라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이 찍어서 바로 빼 준거야. 옛날에
 우리는 카메라도 귀하고 그런 당시, 미군 사람들은 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바로 찍어서 주는 거지.
면담자 이거는 부산 가셨을 때, 공연 끝나고 해변에서.
구술자 응응. 낮에는 클럽에서 일을 안 하니까 해운대에 와서 놀다가 저녁에 가서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된 거지. 이 남자애가, 가운데 있는 남자애 있잖아.
 개가 일하던 애야. 우리가 데리고 다니면서 일 시키고.
면담자 약기 날라주고?
구술자 응응. 그 남자애야.
면담자 선생님 진짜 인상이 지금이랑 되게 똑같으세요. 건강하고, 싱그러운. 뭔가
 싱그럽고 되게 예뻐다.
구술자 머리 바로 자르고 남자처럼 하고 다녔다니까 그렇게.
면담자 아니예요 선생님, 남자 같지 않아요. 여성스럽고 예뻐요. 얼마나 예쁠
 때예요 이 때.



드럼을 배우던 시절의 김삼순과 데뷔 이후 머리를
자르고 드럼 앞에 앉은 김삼순. 그리고 스승이자
형부인 김윤옥(토미김)의 드럼 연주 모습



레이디 버즈 활동 시절의 모습들



(60)



(61)

팝스 코리아나: 애스컴과 미8군 사운드의 주역들 'Pops Koreana: ASCOM & the Eighth Army Years 1963~1972'

- 기획 및 제작: 비트볼 뮤직 Beatball music
- 디자인: 김규호
- 라이너노트 Liner note: 송명하(대중음악사 파라노이드 편집장)
- 앨범발매기념 음악감상회: 2019.8.10.토
- 장소: 부평3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부평구 마장로 82)
- 진행 및 해설: 고경표, 송명하, 이봉수

한국전쟁 이후 애스컴과 애스컴 데포(ASCOM DEPOT)의 미군들은 관내와 관외에서 재즈, 로큰롤, 팝 등 다양한 음악을 즐겼다. 배호, 최희준, 한명숙, 신중현 등 우리 대중 음악사의 걸출한 인물들이 연주 실력을 익히고 경험을 쌓은 곳이 바로 미8군무대로, 김홍택, 최이철 등 내노라하는 연주자들은 미8군 클럽 무대를 거치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이다.

2019 애스컴시티프로젝트를 통해 발매된 '팝스 코리아나: 애스컴과 미8군 사운드의 주역들'은 애스컴과 미군의 GI문화에서 영향 받은 한국 대중음악 가수들의 번안곡을 모은 편집 앨범으로 인천과 부평 지역의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같은 지역 출신을 교집합으로 하는 가수와 그룹들의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Pops Korea:na:
AFKIM & Inhe
Eighties Heavy Years
1967-1970
 콤스리이커:
 에스림과 미용군
 서울드의 추억을

SIDE A

1. 신중현 **SIMI 2000-4P/01** - 일양 이리방(연주곡)
2. 키보이스 **KEY KEYS** - 고서 인물은 달콤해
3. 짐보제스리온 **JIMBLE SISTERS** - 카미탄 (Aultrae-010)
4. 이베스티아즈 **THE SISTERS** - 뭘 갖는 기쁨에
5. 최희준 **CHOE HUI-JUN** - 태양
6. 배오 **BAE HO** - 그 이름

SIDE B

1. 윤복희 **YUN BOK-HEE** - Suspect
2. 박인수 **PARK IN-SOO** - 의심 받는 사랑 (Suspicion)
3. 아이스 **ICE** - 해산당원 내 가슴 (Purple Heart)
4. 피닉스 **PHENIX** - Dance To The Music
5. 댄스 **DANCE** - 뽀뽀하기 (You Don't Know Like I Know)
6. 김대환과 김리코 **KIM DAE-HWAN & THE KIM TRIO** - 꽃을 구리 (연주곡)

beatball. **MUSICITY**

This compilation © & © 2019
 EURPEAN CULTURAL FOUNDATION,
 BEATBALL MUSIC GROUP
 Released by COBRAROSE RECORDS,
 a division of BEATBALL MUSIC GROUP,
 in coordination with EURPEAN CULTURAL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Made in Czech.

8 809114 698484

The copyrights of these
 sound recordings are owned
 by the copyright owners
 listed inside and are licensed to
 BEATBALL MUSIC GROUP, KOREA.

SIDE A

1. 신중현 **SIMI 2000-4P/01** - 일양 이리방(연주곡)
2. 키보이스 **KEY KEYS** - 고서 인물은 달콤해
3. 짐보제스리온 **JIMBLE SISTERS** - 카미탄 (Aultrae-010)
4. 이베스티아즈 **THE SISTERS** - 뭘 갖는 기쁨에
5. 최희준 **CHOE HUI-JUN** - 태양
6. 배오 **BAE HO** - 그 이름

SID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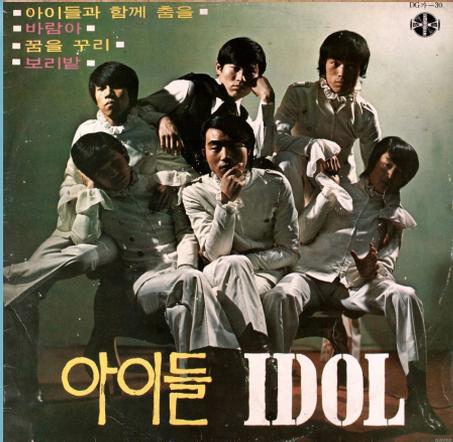
1. 윤복희 **YUN BOK-HEE** - Suspect
2. 박인수 **PARK IN-SOO** - 의심 받는 사랑 (Suspicion)
3. 아이스 **ICE** - 해산당원 내 가슴 (Purple Heart)
4. 피닉스 **PHENIX** - Dance To The Music
5. 댄스 **DANCE** - 뽀뽀하기 (You Don't Know Like I Know)
6. 김대환과 김리코 **KIM DAE-HWAN & THE KIM TRIO** - 꽃을 구리 (연주곡)

beatball. **MUSICITY**

This compilation © & © 2019
 EURPEAN CULTURAL FOUNDATION,
 BEATBALL MUSIC GROUP
 Released by COBRAROSE RECORDS,
 a division of BEATBALL MUSIC GROUP,
 in coordination with EURPEAN CULTURAL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Made in Czech.

8 809114 698484

The copyrights of these
 sound recordings are owned
 by the copyright owners
 listed inside and are licensed to
 BEATBALL MUSIC GROUP, KOREA.



(66)



트랙 리스트 Track List SIDE A

1. 신중현 SHIN JOONG-HYUN - 밀양 아리랑(연주곡)
민요, 편곡 신중현
(도미도 레코드 발매, 1963)
2. 키보이스 KEY BOYS - 그녀 입술은 달콤해
작사 주리오, 작곡 김영광
(신세기 레코드 발매, 1964)
3. 점블씨스터즈 JUMBLE SISTERS - 기타맨(Guitar Man)
개사 지명길, 작곡 리 헤이즐우드 Lee Hazlewood, 편곡 정민섭
(신세기 레코드 발매, 1966)
4. 이씨스터즈 LEE SISTERS - 철 없는 기집애
작사 임희재, 작곡 정민섭
(신세기 레코드 발매, 1967)
5. 최희준 CHOE HUI-JUN - 태양
작사, 작곡 이봉조
(신세기 레코드 발매, 1969)
6. 배호 BAE HO - 그 이름
작사, 작곡 배상태
(아세아 레코드 발매, 1969)



트랙 리스트 Track List SIDE B

1. 윤복희 YOON BOK-HEE - Sunny

작사, 작곡 바비 헵 Bobby Hebb, 부분 개사 전우, 편곡 이봉조
(신세기 레코드 발매, 1967)

2. 박인수 PARK IN-SOO - 의심 받는 사랑(Suspicion)

개사 지명길, 작곡 모트 슈만 Mort Shuman, 편곡 최영훈
(아세아 레코드 발매, 1971)

3. 아이들 IDOL - 배신당한 내 가슴(Purple Haze)

개사 김미성, 작곡 지미 헨드릭스 Jimi Hendrix, 편곡 최이철
(성음 레코드 발매, 1971)

4. 히식스 HE 6 - Dance to the Music

작사, 작곡 슬라이 스톤 Sly Stone, 편곡 김홍탁
(그랜드 레코드공사 발매, 1971)

5. 데블스 DEVILS - 별들에게(You Don't Know Like I know)

작사, 작곡 데이빗 포터와 아이작 헤이스 David Porter & Issac Hayes,
편곡 데블스(아세아 레코드 발매,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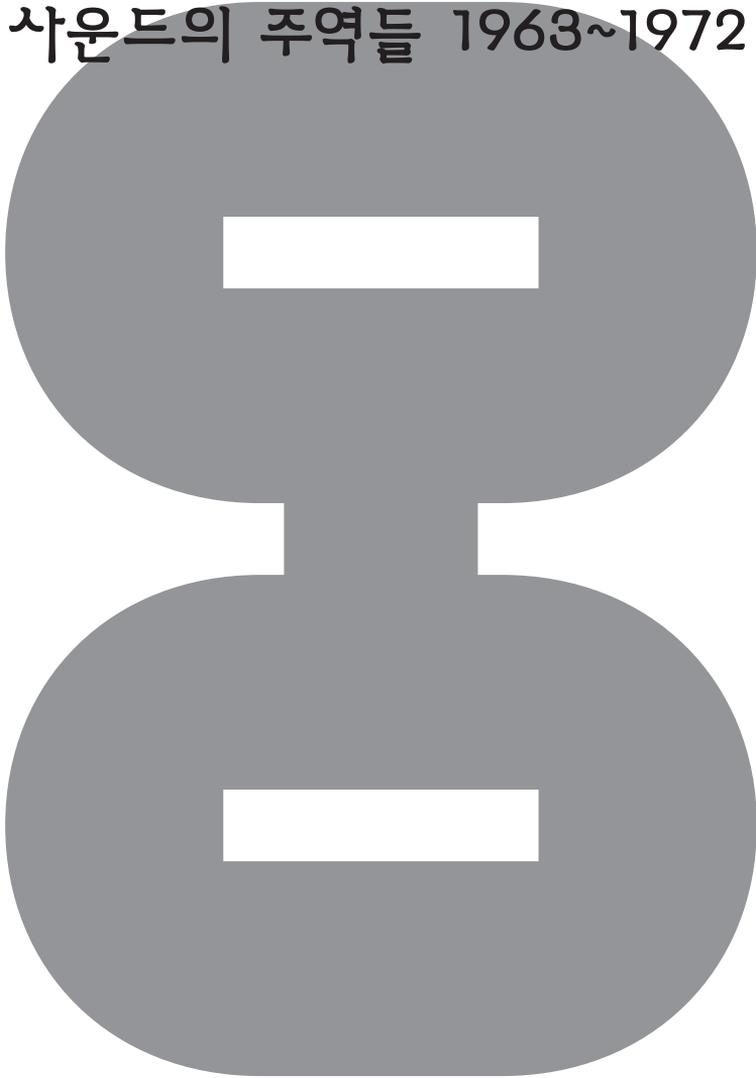
6. 김대환과 김트리오 KIM DAE-HWAN & THE KIM TRIO - 꿈을 꾸리(연주곡)

작곡 김미성과 최이철, 편곡 김대환
(국제기획 발매, 1972)



'미8군, 애스컴에서 발화되어 한국
대중음악의 여명기를
밝힌 노래들'

팝스코리아나: 애스컴과 미8군
사운드의 주역들 1963~1972



송명하 대중음악지 파라노이드 편집장

국내 대중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8군이 우리 대중음악 태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거점을 차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미8군은 1955년 8군 사령부가 일본에서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며 일반적으로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통칭하는 용어가 되었고, 여기에 소속된 군인과 군무원을 상대로 하는 쇼 무대는 확대되며 상설화됐다. 쇼 무대는 처음 미국 본토에서 공연단이 와서 직접 위문공연을 펼쳤지만, 상설화된 무대를 모두 책임지기엔 그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미군의 요청이 있을 때 한국 음악인들이 무대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가수과 악단이 미8군 무대에 오르게 됐다. 미8군 무대에 오른 악사들은 당시 일반적인 일자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경제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군부대에 인력을 공급하는 이른바 '연예인 용역사업'을 하는 쇼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1950년대 중반 미군 클럽의 수는 264개에 이르렀고, 미군이 한국 연예인들의 쇼 공연단에 지불하는 금액은 당시 한국의 연간 수출 총액과 맞먹었다.

밴드 파이오니아의 리더이며, 1960년대 애스컴 미군클럽 밴드의 마스터 겸 클럽 운영자기도 했던 차영수는 한 인터뷰에서 "악단이 연주하는 다운타운 클럽이 용산보다 애스컴시티에 많았고, 그 중 컨트리 음악을 연주한 세븐 클럽은 미군들이 유난히 좋아했다"고 했다. 한국에 들어오는 미군들이 반드시 거쳤던 애스컴은 부평의 삼릉과 신촌에 위치하고 있었다. 1939년, 조선총독부가 현재의 부평1동과 산곡3, 4동에 일본 육군의 조병창을 설립하고, 1940년 4월 1일 지금의 부평구 전역을 인천에 편입하면서 조병창 또한 확장하였다. 부평조병창은 빠르게 군수산업단지로 커졌고, 생산된 군수품은 모두 전쟁 물자로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각지의 일본군에 보급되었다. 1945년 말, 한반도 남부 점령군으로서 상륙한 미군 제24(XXIV)군단이 부평 군수산업단지를 접수하여 구역을 나누어 각각 캠프마켓, 캠프 그랜트, 캠프 타일러, 캠프 해리스, 캠프 하이에스로 이름 짓고, 제24지원사령부(ASCOM: Army Service Command 24)를 주둔시켰다. 주민들은 이 사령부의 이니셜을 따서 그 일대를 '애스컴시티(ASCOM City)'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1951년, 유엔사령부 소속 부대가 조선인민군과 중화인민지원군의 연합 공산주의군으로부터 인천, 부평 지역의 통제권을 확보하면서 애스컴 단지는 재가동되었다. 미국 해병대는 애스컴지역에 '인천 보충소'와 지원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이곳에서 미군들은 2~3개월 머물다가 동두천, 송탄, 평택에 있는 부대로 자대배치를 받았다. 미군을 상대로 한 각종 부대산업이 꽃을 피우며 애스컴이 있던 부평 산곡동 일대에 수많은 미군 클럽이 운영된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1950년대 김시스터즈 등 초창기 미8군 가수들과 연주인들은 거의 이곳을 거쳤으며, 김윤옥이 주도한 토미스 밴드를 시작으로 10여개 밴드가 애스컴 미군클럽에서 활동했다. 1960년대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이들은 초기 트로트 일색이었던 이 땅에 서구 음악장르인 스탠더드 팝, 스윙 재즈와 로큰롤을 처음으로 소개했으며 최희준, 한명숙, 패티김, 신중현, 이시스터즈, 장미화 등 미8군 무대의 인기스타들이 빼짐없이 찾아왔다. 앞서 차영수의 이야기처럼 용산보다 오히려 많이 밀집된 클럽들은 당시 국내 음악인들에게 활동무대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클럽에 출연했던 음악인들은 애스컴 근처에 모여 살았다. 인천시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가 2013년 12월 발간한 자료 <음악도시 부평>에서도 부평2동에 뮤지션 수백명이 모여 살았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애스컴은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군비축소와 데탕트 현상으로 미국 육군의 제1군단과 제7보병사단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1972년, 미사일과 항공 지원 작전 기능이 캠프 험프리스, 그리고 중장비 정비 지원 기능이 캠프 캐롤로 옮겨지면서 운용 단계가 낮아졌고 관할지역도 줄어들었다. 그에 따라 애스컴은 제8군 지원처로 축소되었고, 이듬해 1973년 1월 31일에 애스컴 단지 가동이 중단되고, 6월 30일에는 애스컴 단지의 통제권이 대한민국 국방부로 넘겨졌다. 철수한 미군이 남긴 자리에 캠프 마켓(Camp Market)이란 이름은 그대로 남았지만, 미군을 상대하던 주변의 많은 클럽은 문을 닫았다. 이 클럽들에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밴드들 역시 이동이 불가피했다. 음악이 곧 직업이었던 당시 밴드들에게 있어 부평은 더 이상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스컴 일대의 미군클럽들을 통해 서구의 대중음악이 본격적으로 상륙했으며, 오디션을 통과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은 1970년대 우리 대중음악의 질적 발전에 직접적인 밑거름이 되었다.

이번에 발매되는 컴필레이션 <Pops Koreana: ASCOM & the Eighth Army Years 1963~1972>은 미8군 무대에 서기 위한 관문으로 부평의 애스컴을 통해 프로모지션 활동을 시작한 가수과 밴드를 염두에 두고, 인천 출신 또는 인천 지역 미 8군 무대에 연고가 있다고 추정되는 뮤지션들로 구성된 음반이다. 레퍼토리 역시 그들이 당시 미8군 무대에서 연주하고 노래했을법한 커버곡 위주로 선곡되어, 스윙 재즈와 스탠더드 팝을 거쳐 소규모 캄보 형태로 변모하며 초기 로큰롤 스타일로 발전해 나가는 국내 대중음악의 발전사 역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신중현 - 밀양 아리랑

두말할 필요가 없는 '국내 록의 대부' 신중현의 첫 번째 녹음 음반 <히키-申 기타 멜로디 輕音樂 特選集>에 수록된 곡이다. 민요를 편곡한 곡으로 휴대용 녹음기로 녹음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선명한 음질은 아니지만, 캄보 밴드와 화음을 맞추는 스윙감 넘친 신중현의 솔로 기타가 매력적이다.

키보이스 - 그녀 입술은 달콤해

키보이스의 데뷔앨범이며, 한국 최초 밴드음반의 타이틀곡이다. 키보이스는 미8군시절 송영란과 함께 록&키라는 이름으로 데뷔해 일반 무대로 진출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밴드다. '한국의 비틀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수록곡 대부분이 번안곡으로 꾸며진 데뷔앨범이었지만, 이 곡은 김영광이 작곡한 창작곡이며 흥겨운 서프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

점블씨스터즈 - 기타맨(Guitar Man)

기타리스트 듀언 에디(Duane Eddy)가 걸그룹 블로섬스(The Blossoms)의 보컬과 함께 발표한 '(Dance With The) Guitar Man'을 번안한 곡이다. 점블씨스터즈는 1966년 워커힐 모던댄싱 클럽 멤버 중 노래에 재능 있는 멤버로 결성된 걸그룹이다. 비교적 원곡에 충실하게 편곡되어 중반부 기타 솔로 역시 유사하다.



이 씨스터즈 - 철 없는 기집애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을 빅 히트시킨 삼인조 중창팀 이 씨스터즈는 펄 씨스터즈 등장 이전까지 국내 걸그룹을 대표하는 트리오였다. 이들이 1967년 발표한 '철 없는 기집애'는 같은 해 개봉한 박종호 감독 신성일, 남정임, 문정숙 주연의 영화 '학사 며느리' 주제가로 정민섭이 작곡한 곡이다. 앤드류 씨스터즈(Andrew Sisters)를 듣는 듯 세련된 보컬 화음에 빅밴드 재즈 스타일의 연주와 스탠더드 팝이 어우러진 편곡을 들을 수 있으며, 당시 청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재미있는 가사와 창법도 흥미롭다.

최희준 - 태양

학사 출신 가수 최희준이 부른 이봉조 작곡의 노래다. 한국의 냇 킹 콜(Nat King Cole)로 불리며 부드럽고 달콤한 음색을 자랑하며, 초창기 빅밴드 스타일의 스윙재즈와 스탠더드 팝 넘버를 잘 소화했던 그의 매력을 그대로 담고 있다.

배호 - 그 이름

'불세출의 가수'라는 예명을 갖고 있는 배호는 17세부터 미8군의 와인클럽에서 드럼연주를 시작했고, 애스컴시티에 있는 클럽에서 2년간 악단 생활을 하면서 음악인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소규모 캠프 스타일과 빅밴드 스타일이 공존하는 과도기 형태의 연주와 함께 하는 그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다.

윤복희 - Sunny

보니 엠(Boney M)의 리메이크로 잘 알려진 'Sunny'는 1966년 바비 헵(Bobby Hebb)이 1966년 발표한 곡이다. 앨범 재킷을 장식한 미니스커트 사진으로도 화제가 됐던 윤복희의 데뷔앨범에 국내 최초로 번안되어, 원곡의 느낌을 잘 살린 솔 풍의 곡으로 수록됐다. 탁월한 윤복희의 보컬 감성을 잘 살린 번안곡이다.

박인수 - 의심 받는 사랑(Suspicion)

테리 스태포드(Terry Stafford)가 작곡하고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가 불러 히트시킨 (Suspicion)을 번안한 곡이다. 신중현 사단의 일원으로 '볼비'를 불러 당대를 풍미했던 솔 싱어 박인수는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특유의 검은색 도는 창법으로 끈끈한 감성을 자극한다.

아이들 - 배신당한 가슴(Purple Haze)

'배신당한 가슴'의 원곡은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가 1967년 발표한 일렉트릭 기타의 명곡이다. 아이들은 미8군에서 활동하던 기타리스트 최이철이 일반무대로 진출하며 드러머 김대환의 주선으로 결성한 밴드다. 녹음하던 당시의 열악한 환경이 음원에 그대로 남아있긴 하지만, 10대 젊은이의 호기어린 자신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히식스 - Dance to the Music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Sly and the Family Stone)의 곡을 히식스가 자신의 두 번째 음반에 커버곡으로 담은 버전이다. 원곡의 브라스 파트 대신 호느적거리는 키보드 연주와 퍼즈 사운드 기타의 전방배치로 더욱 록적인 사운드를 들을 수 있고, 최현의 사우팅을 비롯 멤버간의 뛰어난 합을 자랑한다.

데블스 - 별들에게(You Don't Know Like I know)

'별들에게'는 샘 앤 데이브(Sam And Dave)가 1966년 발표한 전형적인 스택스 솔 사운드 'You Don't Know Like I Know'를 번안한 곡으로, 밴드 편성으로 다시 편곡하며 다소 암전한 진행으로 거듭났다. 샘 앤 데이브는 데블스를 다룬 영화 '고고 70'에 주제가처럼 흘러나오던 'Soul Man'의 원곡자기도 하다.

김대환과 김트리오 - 꿈을 꾸리

전설의 드러머 김대환이 이끌었던 김트리오는 조용필, 최이철, 이남이를 배출한 밴드로, 이 음반에서는 조용필이 기타리스트로, 이남이가 베이스스트로 참여했고, 색소폰에 강태환과 건반주자 김종호가 세션으로 참여했다. 같은 해 발표된 조용필의 솔로 음반 삽입 버전이 평이한 반주의 솔 풍 보컬 버전인 반면 김대환 자신의 드럼 연주가 전면에 나서긴 하지만 색소폰과 사이키델릭한 오르간, 기타 연주들이 확실한 멜로디를 이끌어가며 록 밴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1971년 아이들의 음반에 먼저 수록된 버전에 비해 빠른 템포로 편곡됐다.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 기획전

- 날짜: 2019.8.19.월~10.2.수
- 장소: 부평구 경원대로 1262번길 5, 1층
- 생활사 구술: 김삼순, 이종숙, 이연옥, 임종우, 장흥식
- 참여작가: 목소(Morceau), 오대리, 복코(Bocko 박은지&이진원), 이의중
- 디자인: 김규호
- 영상: 이야기, 노기훈
- 도시해설: 이의중
- 사진: 오석근
- 전시지원: 원제성, 원종은
- 시공: (주)디자인마룬

2018년 구술채록(성낙필, 강오식)

- 책임: 윤진현
- 영상: 사회적협동조합 모씨네

참고자료

- 부평사편찬위원회 편, 노영돈 문용식 박덕유 서영대 양보경 유세준 이창남 정연학 정영태 최원식 홍순민 저, 『부평사富平史 제1권-제2권』,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 정진철, 김현석, 정연학, 하수민 저, 『부평역사박물관 학술총서 2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 2015
- 한만송 저, 『아픈 희망의 역사 부평미군기지를 말하다 캠프마켓』, 봉구네 책방, 2013
-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www.nl.go.kr/newspape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2019
엑스컴시티프로젝트
기획전

기간
2019.8.19.(월) -
2019.10.2.(수)
관람시간
12:00-18:00
월요일 휴무

아카이브 전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262번 길 5.1층

작가 전시
부평신촌 일대
지도 QR코드 스캔 >



소외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 인천

문의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팀
032-914-2044
www.bcf.or.kr

전 연령
무료관람

목소
오대리
복코
이의중



(77)



노의
도시,
부평이신촌





09-15-2018 10:10
10월 15일
부평아트센터

10-15-2018









1 부평·신촌

옛 정취가 남아있는 골목과 오래된 가옥들, 빌라들이 들어선 부평·신촌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주거지역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동안 군수공장과 일본육군조병창이 조성되며 새롭게 조성된 이곳은 1945년 주한미육군병참본부인 애스컴(ASCOM), 1973년 현 부평공원 자리를 채웠던 한국군 88정비부대가 나간 다음에야 현재 모습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역사에 따라 도시가 쓰임을 달리해 올 동안 주민들의 생활상도 변화를 겪어왔다. 조병창이 들어섰던 때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흘러온 노동자들의 나무집이 부평 평야 위에 드문드문 자리하고 애스컴이 들어왔을 때에는 기지촌이 되었다. 결국 외부에서 들어온 이들이 모두 물러간 뒤에야 시민들은 과거의 역사 위에 자신들의 역사를 일궈 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속에서 도시의 역사는 문헌자료와 구술, 사진으로만 짐작되며 가장 강렬했던 '애스컴'은 여전히 부평·신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과거이자 현재이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도시에는 다양한 삶이 누적되었고 그 중심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도시를 만들어 낸 시민들의 저력이 있다.

2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전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아카이브로 축적된 도시 역사와 시민들의 이야기로 이를 통해 부평·신촌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더하여 건축가의 '말'을 통해 부평·신촌을 독해하고 기록을 더한다. 다음은 세 명의 작가들이 '소리'라는 키워드로 부평·신촌을 해석한 작품들로 이는 도시의 역사를 감각하게 해줄 것이다.

건축, 사람과 같은 유형의 요소가 도시를 채우고 그 여백에는 무형의 요소들이 메워진다. 그중 소리는 도시를 가장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요소로, 도시의 소리를 듣는 것은 문헌과 이미지를 넘어 당시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부평·신촌을 경험한 시민들의 목소리, 도시를 채웠던 기계소리와 음악소리 등. 이 전시에서는 도시를 이야기하고 상징하는 소리들과 더불어 다른 눈으로 그 역사의 지층을 담아낸 소리들을 공유하여 도시 역사가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확장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신촌新村은 새롭게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으로 새마을이 생기며 시민들이 부른 인식적인 지명이다. 이곳은 경인철도 옆 원통천 서쪽 불모지였으나 일제조병창 및 히로나카(弘中)공장 조성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살면서 마을이 된 것이다. 백운역을 중심으로 신촌로, 경인로, 원통로로 관통되고 부평공원과 굴포천지류 복개지역, 주민 거주지가 밀집된 혼합지역이다.

- 법정동: 부평동, 산곡동, 십정동
- 신촌의 범위: 부평 1~7통
- 면적: 1.00km²
- 인구: 14,292명(남: 7,141 여: 7,151)
- 세대수: 6693명 (2019년 기준)

4 신문기사로 보는 부평 · 신촌

- 동아일보 1938.3.2. "京仁間(경인간),富平廣野(부평광야) 大工場爭先進出(대공장쟁선진출)"
- 대중일보 1946.1.25. "인천공업계가 선망하는 조병창의 사장(死藏)물자"
- 대중일보 1948.6.13. "미군물자 정취범 사살사건 송림동, 산곡동서 발생"
- 동아일보 1955.7.18. "無許可美粧院激增(무허가미장원격증) 洋婦人對象(양부인대상)으로"
- 동아일보 1962.7.29. "미군부대촌의 현실, 서로 돕고 사는 '말쌍의 권외(圈外)'"
- 매일경제 1969.4.28. "基地村(기지촌)등에 충격, 미군표 바뀌던 날 큰 손해에 한숨짓기도"
- 동아일보 1969.5.14. "위안부 한때 데모 '미병학대' 자살동료 상여 메고"
- 동아일보 1970.7.11. "미군감축론 기지촌 풍경(부평)"
- 조선일보 1971.6.12. "부평 미121 후송병원 용산 8군 영내로 이전"
- 조선일보 1972.12.19. "부평 애스컴 한인 종업원 4백 16명 해고통보"
- 중앙일보 1979.2.7. "새한자동차, 중형자동차, 레코드 디젤화 위해 부평에 승용차용 디젤엔진공장 건설계획"

- 중앙일보 1987.6.26. "대학생, 시민 등 3천 여 명 26일 하오 6시부터 부평1동, 부평4동, 산곡동, 청천동 등 부평 일대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다 27일 0시 25분쯤 해산"
- 중앙일보 1997.12.16. "산곡동 주민들 복개천 주차장 신설 혼잡 극심 불편 호소"
- 서울신문 1999.1.7. "부평구, 부평동 286에 주둔해 있던 육군 80정비부대 자리에 부평공원 조성 방침"
- 서울신문 2000.5.8. "부평공원 오는 8월 초 개장"

5 애스컴과 부평 · 신촌 사람들

부평·신촌 주민들은 애스컴에서 하역작업, 차량정비와 같은 군사임무는 물론 취사, 이발, 세탁 등 생활 업종에도 종사했다. 그 밖에 관련 직종으로 노무자, 미장공, 벽돌공, 운전사, 정비공, 용접공, 배관공 등의 기능직과 비서, 타자수, 서기, 은행출납원, 경비원 등의 사무직으로 거의 모든 직종을 아우른다. 미군부대에서는 미군옹역회사나 하청업체를 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자리와 미군이나 군속,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애스컴의 해체로 인해 부대 내 한국인 종사자들이 대폭 줄어들었고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약 2,400여명의 실직자가 발생한다. 이중 3~400명 가량은 이전하는 부대를 따라가거나 다른 미군부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6 도시 변천사

"부평 평야가 일대 공장지구로 되어 장래인구 50만 명을 포용할 대공도로 화하게 된다 함은 세상이 다 아는 바임으로 개론할 여지도 없거니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흥중공장에 수용될 종업원이 1천 5백여 명을 셈하고 있으며 국산자동차공장도 금년 9월경부터 공장 건설에 착공하기로 결정되었다 하여 이 역종업원 1만여 명을 수용하게 된다는 바 그 공사가 3년 이내로 완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로써 본다면 전기 양공장의 건설만으로도 종업원과 그 가족과 이에 따르는 각종 상인을 총합해서 인구 7,8만 명을 돌파할 것이며 3년 후면 부평평야도 일대공업도시로서 면목이 약여할 것이라고 한다." 『매일신보』, 1939. 8. 12.

㉟ 1950~60년대

부평 신촌에서는 일제 패망 전까지 군수물자와 관련된 금속, 기계공업이 발달했으나 1945년 이후 대부분 가동을 멈췄고 1950년대 말 경기 침체로 인해 남아있던 공장들마저 문을 닫는다. 그 자리에 애스컴이 들어서고 이후 부평-신촌의 지역 경제는 대부분 애스컴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에 의존하게 된다. 기계, 병원 등 미군부대 시설들은 경외의 대상이었고 애스컴 데բ의 물자들과 미군관련 산업들은 부평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원천이 된다.

㉠ 1970~80년대

'한국에 복무하는 거의 모든 미군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계를 맺어왔던 애스컴의 폐쇄는 진정 역사적인 사건'(Press Release on Phaseout of Ascom, 1973)

미군경제가 중심이었던 군사도시에서 산업, 상업 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부평공업단지가 새롭게 경제동력으로 부상하며 변화를 이끈다.

미군이 떠난 자리에 유입된 공단 근로자들은 새로운 소비 주체로 도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공단으로 인한 인구 집중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 기능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이 수립된다.

㉡ 1990~2000년대

한국군까지 완전히 철수하고 쌍굴다리 밑 원통천이 복개되고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백운역 개통을 앞두고 있었으며 1983년 제 9 공수특전여단이 철수한 자리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오고 1984년 산곡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계획으로 인해 신촌 집값이 상승했다. 현대아파트와 백운역 개발로 인해 신촌 대로변의 상가들이 생겨나고 개천과 마을 구도를 따라 오피스텔과 빌라 등이 들어선다. 원통천 복개가 마무리 되고 부평 공원이 들어서면서 빌라와 주상복합 형태의 건축물이 서서히 들어온다.

10 부평 · 신촌 도시용어

- 부평조병창: 현 동아, 대림, 육일 아파트 자리와 현대, 우성, 동남, 삼일 아파트, 화랑농장 일대를 조병창 혹은 부평조병창이라고 했는데 일제 강점기 당시 군수기지였기 때문이다.
- 다다구미(多田組): 현 동아아파트 입구에서 복인천 우체국 앞 큰길까지, 조병창 확장공사 당시 하청업자인 다다구미의 현장 사무소가 있던 자리로 일종의 인력시장이었다.
- 디젤사택: 현 부평고등학교 근방. 조병창 확장공사로 인해 4만여명의 디젤자동차 부평공장 부지가 확정되었고 그 사택이 들어선 곳이다. 1955년 지절방(志節坊)으로 바꿨으나 여전히 디젤사택으로 불리고 있다.
- 아랫신촌, 윗신촌: 신촌교에 가까운 쪽이 아랫신촌, 백운역에 가까운 쪽이 윗신촌이다.
- 땡땡거리 : 백운역이 들어서기 전 불안고가 근방을 부르던 명칭이다.
- 삼능·삼능(三菱)사택·홍중(弘中) 사택
부평 2동을 홍중사택 혹은 히로나카 사택으로 부른다. 현 부평공원 자리가 히로나카 상공 군수공장 터로 이 군수공장 노동자 사택이 부평 2동에 수 십 채 있었으므로 붙은 이름이다. 히로나카(弘中)가 미쓰비시(三菱)로 변경되어 미쓰비시 사택 혹은 삼능사택으로 부르다가 줄여서 삼능으로 불렸다.
- 애스컴(ASCOM): 주한미육군병참본부(Army Support Command Korea)
- 애스컴시티(ASCOM CITY): 1951년 주한미군 보급창 설치 이후 6의무 보급창, 4통신대대, 55보급창 등이 들어서고 1963년 캠프 아담스(Camp Adams), 캠프 그란트(Camp Grant) 등 미군 대통령의 이름을 본딴 구역이 형성되며 이를 통칭하던 명칭이다.
- 캠프마켓(CAMP MARKET): 1971년 이후 부평미군부대 이전 및 폐쇄작업으로 인해 55헌병대와 베이커리 등 일부 시설만 남아 축소됨에 따라 불리던 명칭이다.
- 마마상: 부평·신촌 일대에서 운영되던 클럽과 바의 주인을 의미하며 타지역에서도 통용된다.
- 론머니(Lone Money): 대부업
- GI: 미육군 병사의 속칭
- 유엔데이(UN Day): UN 창설기념일. 미군부대를 개방하고 각종행사를 개최했다.
- 도깨비 시장: 미군부대 물건을 불법으로 팔 때 단속이 나오면 순식간에 사라졌다 하여 도깨비 시장이라고 불렸다.
- 톱밥커피: 미군 기지에서 취급하던 양철통 포장의 원두 분쇄커피. 원두 가루가 톱밥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검정사택: 콜타르를 먹인 종이로 집 벽을 바른 집을 부르던 명칭이다.

- 소방재, 소방재말: 미쓰비시 관사촌 건설 당시 일본인들이 감리교회가 있는 쪽에 최신의 소방서를 지었다. 이 소방서가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언덕을 소방재로 부르다 마을이 생겨나 소방재말이라 지칭했다.
- 캄보밴드(Combo Band):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소규모 기악그룹이다. 대규모인 풀 밴드와 상대적인 말이다. 기타, 베이스, 드럼, 피아노, 트럼펫, 트럼본, 색소폰 정도로 구성된다.
- 센츨리쇼(Century show): 여성 쇼단, 섹시함을 강조하는 레퍼토리가 많았다.
- 미8군 쇼: 음악, 춤, 코미디, 마술 등이 어우러지는 종합 쇼. 14인 이상은 빅쇼, 8인 이하는 스몰쇼로 나뉜다.
- 마스터(Master): 팀의 리더로 소속 단원을 훈련시키고, 공연 관리, 매니저를 겸한다.
- 영내 클럽: 부대 내 클럽으로 장교, 하사관, 사병으로 구분되고 백인/흑인, 서비스/일반으로 구분된다.
- 영외클럽: 미군부대 밖에서 운영되던 미군클럽
- NCO CLUB: 하사관 클럽
- EM CLUB: 사병클럽
- Officers CLUB: 장교클럽
- Service CLUB: 여가시설이 갖춰진 클럽
- 급수: 미8군 쇼단의 오디션 등급으로 AA, A, B, C로 구분됐으며 C를 받으면 탈락이었다. 애스컴 부대 내 클럽에서 공연하는 밴드, 연주자들은 적어도 A등급을 받은 실력자들이었고 부평·신촌 클럽들에서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B등급이 많았다고 한다.
- 하우스밴드(House band): 클럽 전속밴드
- 플로어 밴드(Floor band): 전국 순회 밴드
- 오픈밴드(Open band):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연주자들의 밴드를 말한다.
- 미군위안부: 미군을 상대로接客 행위를 하는 여성이다.
- 양공주, 양색시, 유엔마담, 히빠리, 주스걸, 양키 마누라: 미군 위안부를 지칭하는 은어
- 펌푸: 미군위안부를 미군에게 소개하는 소년을 말한다.
- 아리랑 택시: 미군부대 전용택시
- 유엔가족: 한국인 여성이 미군과 결혼한 경우를 말한다.
- 온리(only): 계약결혼
- 오프 리미트(OFF Limited): 출입금지, 미군들의 외출, 외박을 금지하는 것이다.
- 재패니스 빌리지(Japanese Village): 삼릉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 신촌의 역사와 생활사를 다룬 아카이브 전시 개최 이후 전시장 내외부에 '소리'를 키워드로 부평·신촌을 재해석한 사운드, 영상 작품들이 순차적으로 설치되었다. 참여 작가들은 전시 준비 기간 동안 부평 신촌에 관한 다양한 리서치와 답사를 거쳐 도시의 이미지, 역사, 공간 등에서 영감을 받았고 소리를 매개체로 도시를 그려냈다. 소리를 채집하거나, 새롭게 창조하거나, 형식을 전환한 이들의 작업들은 도시의 지층을 담아내고 그 정체성이 끊임없이 확장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의중의 작업인 '단지사이'는 부평 신촌이 형성되는 시간 속에 내포된 레이어,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그 흔적들을 조사한 다음 대표적인 건축 유산인 미쓰비시 사택의 구조 일부를 모듈로 재현한 것이다.

목소 **Morcean J. Woo**

복코 **Boeko**

오대리

이의중



(93)

목소 Morceen J. Woo

음향 디자이너이자 작가로 연극과 영화, 작가들과의 협업을 넘나든다. 2019년 연극 〈7번국도〉, 〈영자〉 등 2018년 〈나는 인간〉, 〈사물함〉, 〈셰익스피어 소네트〉, 〈미아리고개예술극장〉, 〈타즈매니아 타이거〉, 〈9월〉, 〈대성당〉 등, 2017년 〈2017 이반검열〉, 〈가해자 탐구_부록: 사과문작성가이드〉, 〈노동집약적 유희 2017〉, 〈좋아하고있어〉, 〈전화벨이 울린다〉(2017) 외 다수의 연극 음향디자인을 담당했다.

시각 작가들과 협업한 편집, 음향 디자인 및 믹싱 작업으로는

〈반도의 무희〉(남화연, 2019), 〈궤도연구〉(남화연, 2018)

〈보초서는 사람〉(차재민, 2018), 〈Land Sand Strand〉(강서경, 2018),

〈임진가와〉(남화연, 2017), 〈치 차〉(강서경, 2017), 〈Anomalous Fantasy〉

(정은영, 2017) 등이 있다.

영화의 음향 디자인 및 믹싱 작업으로는

〈시 읽는 시간〉(2016), 〈핑핑 막막〉(2013), 〈그의 이름은 도시〉(2011),

〈대한철강〉(2010), 〈out: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2007) 등에 참여하였다.



갈꽃기지통신, 2019, 사운드 설치, 12min

부평·신촌의 소리를 채집한다. 그 소리들은 일정한 서사를 따르거나 선형적으로 무엇을 재현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발생한 소리는 하나하나가 기억의 조각, 시간의 조각, 어떤 축적의 조각일 수 있다. 이 각각의 소리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유발한다. 소리를 통해 공간을 그리고 이미지를 상상하고 우리의 기억 등이 소환된다. 목소는 소리의 조각으로 리듬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 부평·신촌을 그려낸다.

목소는 음향에 가까운 자연의 소리, 도시 환경 곳곳에서 발생하는 소리, 즉 '소음'을 녹음하고 이를 자유롭게 청각적 공간(음역)에 재배열해 특정 장소의 풍경을 소리로 그려내며 이는 사운드 스페이프(Sound Scape) '소리로 그린 풍경'이라 할 수 있다. 채집되고 재배열되고 해석된 소리는 다시 부평·신촌의 시각적 풍경과 어우러진다. 관객이 골목 등지에서 현재의 도시를 응시하며 다른 시간의 소리와 마주할 때 그 심상, 시간들은 덧살이고 사라지며 다양한 감각을 유발한다.

복코 Bockko

복코는 박은지,이진원 2인의 콜렉티브로써 주로 영상매체를 활용한 작업을 진행한다. 현대미술과 무용의 영역에 걸쳐 장르적 실험을 가하고 있으며, 사회의 적극적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으로 신매체연구/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수단 자체가 예술의 새로운 대안적 장치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작업을 설정하고 실험을 하고 있다.

2019 <안은미래>, 서울시립미술관, <자조방방>, 포스트 극장, <매일유업1969-2019>, 상하농원 아뜰리에, 2018년 <북한춤>,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슈퍼바이러스>,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돈의문이 열려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세운전자박물관 개관전>, 세운상가, <Good morning everybody>,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외 다수의 작업과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신촌 부르스 Sinchon Blues, 2019, 싱글채널비디오, 11min 19sec, FHD

출연: 김혜경

부평 신촌에서 불려진 대중가요 '진한 감성', 팝송에서 우러나오는 '흥' 한 시대를 관통해온 청춘의 멋과 기억해내야 할 과거의 아련함으로 가득하다. 대중가요의 노래가사는 시대에 따라서 개인의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기억 더하기, 역사가 남겨놓은 사회 정치적인 정의로 다시 새롭게 의미화 되곤 한다. 시대와 사안에 따라 항상 다르게 읽히는 노랫말이 지금 다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개인의 고민을 품는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대중가요의 가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신촌부르스〉는 부평 신촌에서 불리던 대중음악 가사의 멜로디를 지우고 개인의 내적 리듬으로 다시 천천히 낭독하며 가사를 음미하는 비디오 작품이다. 다발적으로 겹쳐진 과거의 노래를 오늘의 날의 마비된 감각을 깨우는 낮선 속도로, 낯설게 들어 보고, 감각의 변화, 시점의 이동을 느껴보고자 하였다.

멜로디가 사라진 가사는 몸에 축적된 자율신경반응의 기호로 나타나는 즉각적인 경험과 기억을 덜어낸다. 다분히 드라마 가득한 가사들을 지극히 개인의 은밀한 내면의 감성으로 다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한 시대의 뚜렷한 호흡을 해체시켜 새로운 가사의 의미 확장을 시도한다.

오대리

크게 봐서 전자음악 카테고리에 속하는 몇몇 가지의 음악을 만들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 결과물의 바탕이 될 법한 소소한 작업들을 조금씩 했으며 본격적으로는 2010년 부터 지금까지 하이브리드한 성향의 공연과 작업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다.

익스페리멘탈 성향의 노이즈 일렉트로닉 음악 등을 연주한다. 공연 성향에 따라 기존의 전자악기를 변칙적으로 응용하거나 기기를 직접 변형, 제작해 비주얼이나 사운드의 용도로 그때 그때 사용하기도 한다. 2013년 <국풍'13>, 2016년 <레퀴엠>, 2018년 <국풍'18> 이란 제목의 정규앨범과 몇 개의 합작, 음니버스 앨범, EP 등을 발표했다.

부평 모음집 Bpng Suite

00:15:44;09

1. 신촌의 성자 Saint in Snchn 00:00:00;00 -
2. 슬픔 Sorrow 00:02:31;11 -
3. 비가(悲歌) Elegy 00:07:02;17 -
4. **이름없는 골목 Unnamed Alley 00:13:24;11 -**
5. 슬럼 Slum 00:15:54;29 -
6. 영원 Eternity 00:20:15;10 **00:15:44;09**
7. 암시장 Black Market 00:26:13;18 -
8. 애스컴 부락 Ascum Village 00:32:16;26 -
9. 노스텔지어 Nostalgia 00:36:39;04 -
10. 4508-7306 00:41:02;10 -
11. 천사의 도시 Angel City 00:46:24;21 -
12. 부평 콜라주 Bpng Collage 00:51:33;11 -

00:15:44;09

작곡 Music - 오대리 Odaeri

총61분

부평 모음집 Bpng Suite, 2019, 사운드&싱글채널 비디오, 60min



Track List

- | | |
|--------------------------|-------------------------|
| 1. 신촌의 성자 Saint in Snchn | 7. 암시장 Black Market |
| 2. 슬픔 Sorrow | 8. 애스컴 부락 Ascom Village |
| 3. 비가(悲歌) Elegy | 9. 노스텔지아 Nostalgia |
| 4. 이름없는 골목 Unnamed Alley | 10. 4508-7306 |
| 5. 슬럼 Slum | 11. 천사의 도시 Angel City |
| 6. 영원 Eternity | |
| 12. 부평 콜라주 Bpng Collage | |

오대리가 작곡, 연주, 믹스한 <부평 모음집>은 12개의 연주곡으로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스코어를 연상시킨다. 사전 조사를 통해 작가가 습득한 부평의 도시 역사에는 한국근현대사를 압축해 놓은 시간이 녹아있다. 그 속에 쌓인 이야기와 사건들은 작가 개인에게 도시를 더욱 탐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부평 모음집은 그 시간과 심상이 종합된 개인의 결과물이다.

가사가 없는 곡들은 각각 제목을 달고 있지만 제목과는 관계없이 감상자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온다. 그 경험은 각자의 경험과 생각에 의해 다른 파장을 일으킬 것이며, 같은 음악은 개인의 역사에 따라 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부평-신촌의 역사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기지촌이었던 과거는 지금도 정주하고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과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역사이다. 역사의 부침, 국가의 정책과 논리에 의한 변화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응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은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의 터전을 가꿔나간 이들의 유연함과 용기는 오늘의 시간을 만드는 근원이 되었을 것이다.

* 작가는 부평-신촌에 관한 자료 외 주한 미군과 기지촌 등 그 주변 생활을 다뤘던 대표적인 영화들에서 영감을 받았다.

- 신상옥 감독, 지옥화(1958)
- 임권택 감독, 아벤고 공수군단(1982)
- 유현목 감독, 상한 갈대(1984)
- 장길수 감독, 은마는 오지 않는다(1991)



이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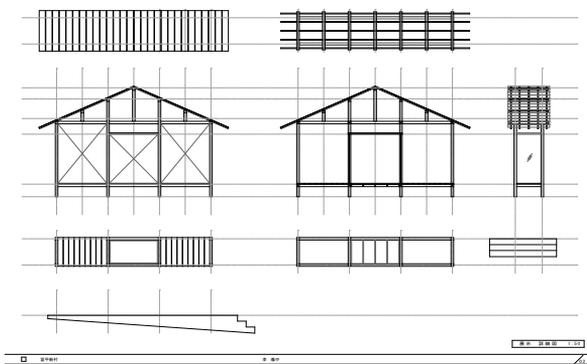
일본에서 건축문화재 및 전통마을을 공부하고 건축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쿠라시키재생공방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귀국 이후 LH와 AURI에서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담당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인천으로 내려와 <건축재생공방>을 시작하였다. 1920년대 얼음창고였던 건물을 재생한 <아카이브 카페 빙고>를 시작으로 건축가로서 활동하며 원도심 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부평은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로 형성된 도시이며 변화의 과정들이 깊게 새겨져 있다. 다양한 도시 요소와 시간의 레이어가 존재하는 만큼 하나의 공간을 두고도 도시를 생각하는 주체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왜곡되고 변형된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듣는 어느 것도 이 도시의 일부일 것이다.

‘단시사이’는 부평이라는 도시의 형성 과정 중 초기에 조성된 미쓰비시 사택의 실측도를 기반으로 식민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던 노동자사택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을 연결하여 보여주고자 제작된 것이다.

미쓰비시 사택은 부평의 대표적인 네거티브 근대유산이다. 이곳은 탄광노동자의 사택보다 열악한 수준의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도시화에 따른 일제의 주택보급 실험으로 예전보다 콤팩트 한 모듈의 공간으로 계획되었고 단치마(團地間)라고 불리는 850*1700 다다미 기준의 주택으로 규격화하여 보급하기에 이른다.

본 구조물은 당시 보급된 규격 사이즈로 재현한 다다미 모듈로 실험의 프로포션으로 복도에 노란색과 파란색의 창호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도시의 왜곡과 변형을 표현한다.



단지사이, 2019,
 목구조, 아크릴, 다다미,
 1,030*1,880*2,700mm
 제작 협력: 잇다 스페이스





노기훈

백운-부평 미군부대, 2013 Pigment Print

120x150cm

Copyright 2013 by 노기훈

2019 부평·신촌 생활사 3

이종숙(1938)

이종숙은 1979년 부평 신촌으로 이주하여 1996년까지 화이트 로즈(송도홀)을 운영했다. 당시는 애스컴이 해체를 결정하고(1973) 6년이 지난 후이므로 전성기의 클럽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나 몇몇 클럽이 남아 명맥을 잇고 있었다. 이종숙의 이야기는 현재 당시의 클럽 운영자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평 신촌 클럽 운영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증언이다.

1 클럽 전성기 이후 (키클럽, 그린도어)

- 면담자 선생님들 다 여기에서 사셨던 분들이고.
- 구술자 없어요 이제. 클럽하던 사람들도 없고, 없어. 나이들이 다 먹었고. 그때 내가 제일 젊었었나 봐.
- 면담자 그렇죠, 선생님이 79년도에 오셨으니까.
- 구술자 제일 젊었고. 연세들 다 잡셔서 다 돌아갔어요. 키클럽도 벌써 돌아갔지. 그린도어도 벌써 돌아갔지. 키클럽(클럽) 돌아가셨을 때 그 많은 판들을 길에다 그냥 다 갖다 버렸는데 너무나 속이 안타깝더라고. 아깝게 하던 판, LP판들이지 그 전에는. 그걸 다 길에다 버렸는데 너무나 내가 속이 상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랬지.
- 면담자 그러면 키클럽은 사장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싹 정리가 된 거예요?
- 구술자 그럼요, 그럼. 할머니가 돌아간 다음에, 그때에도 할머니였어. 키클럽 할머니라고 그랬거든 내가. 남편 분이 좀 젊어. 중간에 만나셔서. 이북 양반인데, 좀 젊은 양반을 만나가지고. 그 양반이 정리하고 말았지 뭐. 집도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시면 혼자야. 아들, 딸도 없이 혼자였어 그 할머니가. 이북 사람인데. 친척도 없고, 그냥 혼자.
- 면담자 피난 오셔가지고.
- 구술자 네, 피난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나 봐. 그래가지고 집도 자기 집이었고 그랬는데. 돌아가시면 그만이지 뭐.
- 면담자 그린도어는?
- 구술자 그린도어는 딸이 하나 있었지. 동생도 있었고, 남동생. 여기에서 구멍가게 하다가. 돌아가시니까 딸이 좀 하다가, 딸도 미국가서 많이 살고 그래가지고 물정을 모르고 그래서 잘 못했어. 클럽도 못 하고.

2 동네의 변화

- 면담자 저는 부평공원이 조성된 다음에 여기에 와서 봤어요. 근데 그 전에 선생님 보셨을 때에는 아직 미쓰비시랑 그거 남아있었죠?

구술자 있었죠. 한국군인, 병기창이었었지.

면담자 그때는 담으로 이렇게?

구술자 네네, 담으로 막혀 있었죠. 미쓰비시가 아니라, 병기창이라 했어 그때는. 미쓰비시는 왜정시대고.

면담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선생님 옛날보다?

구술자 그럼요. 그 전엔 여기 기지촌이라고 해서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창피해서 여기 산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면담자 맞아요. 그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술자 지금은 그런 거 다 없어졌지.

면담자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죠?

구술자 다 바뀌었지. 그리고 그런 장사했던 사람들은 없어 지금은. 없어. 아마 유일하게 나밖에 안 남았지 (웃음). 나중에 어떻게 해서 걸려 들어와서 나밖에 안 남았나봐. 별 구경 다 하고 재미있었어요.

면담자 그 당시의 동네 모습도 거의 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나요?

구술자 요런 골목은 다 남아있지 그대로요.

면담자 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술자 길은 그대로 남아있죠. 골목 안에, 골목길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밖에는 다 바뀌었어도. 공원 들어가는 저 쪽은 많이 바뀌었지 빌라를 많이 지어서. 이 쪽에는 지금 현 집들이 많아 제일, 우리 사는 데에.

면담자 딱 공방 있는 그 쪽으로?

구술자 응. 옛날에 그대로 있어 여기는.

면담자 저희가 지난번에 저쪽 밑에서부터 이렇게 돌았는데 사실 저쪽 밑에는 옛날 건물이나 이런 게 거의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계속 여기 사실거죠, 그렇죠?

구술자 살아야지 그럼요,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어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아래층에, 단층에 사니까 들어가기 좋고, 나가기 좋고, 좋죠 지금. 집이 허술하긴 해. 고치긴 고쳤어도 아파트나 그런데만 못하지.

면담자 요즘 아파트야 뭐.

구술자 그래도 편안해요 그냥. 아래층에서 들락날락 하니까.

- 면담자 만약에 뭐가 실질적으로 선생님의 주거환경이나 이런 게 좋아지면 좋겠죠?
- 구술자 그럼요, 좋아지면 좋죠. 좋아져야 좋죠. 근데 뭐 돈이래도 있으면 다 새로 짓고 여기서라도 깨끗이 짓고 살면 되죠. 근데 돈도 없고 (웃음). 그냥 살아야지. 그래도 집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지. 집이라도 있는게 다행이야. 그렇게 알고 살아야지.
- 면담자 바깥 쪽은 못 샀지만.
- 구술자 네네. 바깥쪽 못 산걸 지금 후회를 많이 해.
- 면담자 저희 어머니도 맨날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도 사지 못하고 전세로 있던 곳을 옮기면 그쪽 엄청 오르고. 다들 그게 있나 봐요.
- 구술자 한창 그 전에는 집을 사면 남았잖아. 집을 사면 남고. 아파트 사면 더 남고. 우리는 돈 복이 없어서 저기 연수동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연수동 가서 살으려고. 아파트를 해서 갔어요. 한 10년만에 이사를 오는데 별로 모르지를 았더라고. 근데 일단 나온 다음에 그렇게 버쩍 올라가지고. 급절이 올라가지고 (웃음). 그래서 내가 우리는 돈 복이 없는 사람이야 그랬지. 그때에도 연수동 살면서 여기 송도를 다녔어요. 새벽이면, 5시 되면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졸립지 뭐. 집안에서도 그래, 새벽에 차 끌고 가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웃음). 그렇게 생각을 해라.
- 면담자 영업시간은 어땠어요?
- 구술자 5시까지 계속. 새벽 5시까지. 특별히 아주, 특별히. 그 전에 못 하게 할 때에도 계속 했으니까. 계속 그냥 으레. 5시까지. 못 하게 하는 그계 있었잖아요. 단속하고. 그럴 때에도 여긴 특별히, 특별지대 (웃음). 그러니까 한국 사람 오면 단속하러 온다 하지.
- 면담자 여기에서 계속 지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동네가 이렇게 바뀌는 것도 계속 보고,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그렇잖아요. 느낌이 어떠세요? 그런 생각드는데?
- 구술자 글썄. 글썄 뭐라고 해야 할까. 다 나이 먹으면 죽게 되어 있고, 나이 먹어서 죽는 사람은 나이 먹어서 죽는다. 내가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젊은 놈들은 나쁜 짓 하면 빨리 죽는다 (웃음). 내가 맨날 그래요 집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는데서 그러면 안 되지만 집에서 그래요 맨날. 나쁜 짓 하는 놈들은 빨리 죽는다 (웃음).

면담자 키클럽 사장님 돌아가신 다음에 판을 길에다가 내다 버렸을 때 마음이...

구술자 마음이 아프지, 그럼. 한 양반 돌아가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지.

면담자 이 도시 부평 신촌이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보면. 앞에 공연도 있고, 커피숍도 좋은데 있고, 뒤에 정취가 있는 골목도 있고. 그 전에 안 좋았을 때부터 계속 이 변천사를 보셨으면 미운 정, 고운 정이 있을 거 같아요.

구술자 좋아지니까 좋아요. 우리 동네, 우리 사는 동네만 헌집이야 죄다. 빈 집도 있고. 그게 나쁘고, 내가 맨날 이렇게 큰 길이 났으면 변화가 아녜요. 변화가니까 좋다 내가 맨날 그래요. 변화가라서 좋다 맨날 그래요.

면담자 지금 공방 골목, 사시는 데랑 골방 골목 거기가 옛날엔 메인 골목이었다고.

구술자 그렇죠. 그럼요. 미군들만 다니는 골목이었지.

면담자 그렇더라구요.

구술자 지금도 저렇게 큰 길이 저쪽으로 나고, 아울렛에서 들어오는 큰 길이 없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된 건지 생각이 안 나요. 봤는데도 여기가 뭐가 있었는지 생각이 안 나 (웃음). 좁은 길이었잖아 전부.

면담자 맨날 왔다갔다 하는 길만 가게 되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그런게 아닐까요?

구술자 그렇지도 않아요. 노상 살고 봤는데도 그 길이 커지니까. 그 전에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 생각이 안 나.

면담자 너무 많이 바뀌었나 보다.

구술자 그럼. 여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커졌는데 뭐. 뒤에 두 번째 들어앉았던 게 큰길로 나왔는데 뭐, 집이. 뒷집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 집이 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런 집은 참 운수 좋은 집이다 (웃음). 운수 좋은 집이죠. 뒤에 앉았다가 앞길이 되었으니. 우리 아는 사람은 또 몇 평 되지도 않는데 앞으로 나와 가지고 4층집을 지어서 금방 부자가 됐어요. 아울렛에서 들어오려면 파란집은 땅이 넓었었는데 그건 다 뺏기고, 그 다음 집은 뒤에 있던 게 앞으로 나온 거지. 길이 이렇게 튼 게 얼마나 넓어졌으니까.

면담자 그렇게 길을 넓히고, 도시 자체를 정비하면서 토지정리 같은 걸 했었나 봐요.

구술자 했겠죠. 보상주고 다 했지. 우리도 거기에서 헐릴 적에 보상 받았죠.

3 송도홀을 인수한 된 계기

구술자 우리는 그 이후에, 79년도에 여기를 들어오게 됐어요. 다 해산 되서 없을 적에.

면담자 이 후에 들어오신 거예요?

구술자 네 그 이후에. 그 전부터 했던 게 아니고. 지금 바깥양반 된 사람이 술을 좋아하고 하니까 클럽을 잘 다녔어요.

면담자 이 주변에?

구술자 네, 이 주변에 클럽이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꽤 있었어요 몇 군데. 키클럽, 그린도어클럽, 송도홀. 송도홀은 우리가 맡은 거고. 또 한군데 어디 있었는데 그건 우리 오자 없어졌나봐. 드림보트클럽은 우리 오자 없어졌나봐. 잘 몰라, 그건 잘 못 봤어요. 그렇게 3군데 있었어요, 나 왔을 때. 다 해산되고 없을 때 왔어.

면담자 선생님 여기에 어떻게. 선생님 태어나신 연도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 38년이죠. 42살에 여기에 왔어요, 42살에.

면담자 어떻게 이주를 하시게 된 거예요 선생님?

구술자 그게 아까 얘기하듯, 클럽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한 군데를 잘 알았어요. 송도홀을 잘 알아서.

면담자 송도홀이?

구술자 응, 그 송도홀의 주인이. 급한 얘기를 하면서 빌리라니까는 금방 주겠지 하고 빌려줬죠. 나중에 알고보니까, 지금은 다들 죽고 없어. 죽고 없어. 말하자면. 한 며칠만 쓰고 주겠다는 걸, 며칠이 아니라 석달이 가도 안 줘. 3년이 가도 안 주는 거잖아.

면담자 아이고, 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구술자 그럼요. 홀을 이렇게 하면 잘 되는 줄 알고 그럼 너만 할게 아니라 같이 하자.

면담자 클럽을?

구술자 클럽을 같이 하자고 해서 들어오게 된 거지. 장사 이런 것도 생전 모르고, 다른 장사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데 왔어요.

면담자 어디에서 거주하다 오신 거예요?

구술자 저 너머 십정동에서 살았어요.

면담자 십정동에서. 그럼 부평에 계시긴 계셨던 거네요.

구술자 있었죠. 그러니까 클럽을 잘 다녔지. 그 술 좋아하는 사람이 클럽을 잘 다녔지 (웃음).

면담자 그러면 이주하셔서 지금 거주하신 집에 계속 거주하신 거예요 선생님?

구술자 조금 옮겼죠. 뒤에 있다가 여기 사는 데로 왔지.

면담자 전에 운영하셨던 클럽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구술자 지금 길이 났어요. 그때 또 운이 나빠서 길이 나버렸어. 지금 저기 오시다보면 부일식당이라고 있어요. 부일식당하고 그 사이에. 우리 집만 딱 막은 거야.

면담자 다른 뎀 다 남아있는데?

구술자 다 남아 있는데. 길을 뒤로 난거야.

면담자 거기만?

구술자 네. 소방도로가 났어.

면담자 74년도에 이주하셨고.

구술자 아니죠. 79년도에. 74년도에는 다 해산된 거야 부대가. 해산이 되다시피 해서 미군도 얼마 안 남고 그랬을 때예요. 그러니까 클럽도 미군 몇 있으니까 명맥을 이어갔을 뿐이야 그때도. 잘 되지도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았지. 불법이지 이제.

면담자 불법이에요?

구술자 불법이지. 미군만 들어와야 되니까. 외국인만 들어와야 되니까. 외국인 전용 클럽이라고 해서 테마를 아주 외국인 전용 업소라고 해서 국내인은 못

들어오게 써있었어요.

면담자 문 앞에?

구술자 문 앞에 써놨지.

면담자 그게 허가받고 이런 과정이 어려웠나요?

구술자 그게 있었던 거니까 모르지 우린요. 있었던 걸 인수한 거니까. 인수한 것도, 같이 하자고 해서 들어왔더니 그 넓은 홀에서, 이게 한 40평되게 이렇게 탁 터졌어요. 이런 것도 없이 탁 터진데 테이블 놔두고. 저만치 비워가지고 춤추고 그런 자리였어. 그런데 자리가 안 되는 거야. 미군들이나 나오면, 그 사람들은 안주 없이 맥주 한 병. 한 병 사가지고 가서 마시고 또 한 병. 한국 사람처럼 몇 병, 몇 병 가져다가 마시지 않아요. 카운터에서 한 병 사가지고. 조그마한 병. 안주는 또 공짜로 주면 잘 먹어. 안주는 없어요. 시키진 않고. 과자 같은 거 조금 주면 잘 먹어요. 먹으면서도 시키진 않아. 그리고 위스키 같은 거. 타서. 얼음도 넣거니와 다른 것도 타죠. 콜라를 탄다든가.

면담자 소다수?

구술자 그런 걸 타든가, 오렌지 주스를 타든가. 술 이름에 따라서 달라지죠.

면담자 일종의 칵테일이었던 거네요.

구술자 칵테일이지 칵테일. 그런 걸 잔술로 팔고. 그런 거였어요. 10명이 오면 10병. 하나 앞에 하나씩. 그렇게 했었지.

면담자 약간의 미군은 남아 있었는데.

구술자 그래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 그때도. 나중에 없어졌지. 그때만 해도 꽤 많았어요.

면담자 미군들은 어때요 오면? 문화라든가 노는?

구술자 그 사람들은 아주 뭐랄까. 만약에 담배를 핀다고 하면 바닥에 버리는 법이 없고. 군인들이라 그러냐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바닥에 버리잖아요 여기에 재떨이 있어도 버리는데 (웃음). 그 사람들은 재떨이를 찾아와서 버려요.

면담자 매너가 있었다는 뜻이네요.

구술자 그럼요. 군인들이라 그러냐, 그 사람들 매너가 좋아서 그러냐. 성냥을

켜도 꼭 찾아와서 버리지 이렇게 버리지를 않아. 그런 매너는 배울만한.
선진국이라서 그런가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 (웃음).

면담자 클럽 이름은 뭐였어요 선생님?

구술자 송도홀인데, 한국말로 송도홀인데 화이트로즈. 화이트 와이트로즈,
화이트로즈 했어.

면담자 송도홀이랑 화이트로즈랑 같은 거예요?

구술자 딴 이름을 그렇게 쓰더라구요. 미국 사람도 와이트로즈, 와이트로즈 하는데
한국 사람은 송도홀이에요, 송도홀. 그제 중간에 어떻게 바꿨었나 봐.
영어 쓰지 말라고 해서 바꿨는가 봐. 이름은 송도홀이에요. 근데 위에다
화이트로즈라고 썼어.

면담자 간판엔 송도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술자 위에다 조그맣게 쓰고, 밑에 송도홀이라고 크게 쓰고. 근데 그런 사진을
하나 안 남겼어 내가 (웃음). 아쉬워요.

면담자 너무 아쉽네요. 저는 송도홀이랑 화이트로즈가 별개로 되어 있다고 계속
조사가 되어가지고.

구술자 그 전엔 화이트로즈였는데 그거를, 간판을 아마 한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영문을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해라. 그때 아마 송도홀로 고친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물어보진 않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런 거
같아요. 그 사람도 중간에 맡았으니까, 먼저 주인도 중간에 맡았으니까 그걸
모르는지, 물어보지를 않아서 모르는지. 몰랐어요 그거를.

면담자 정리를 해보면, 송도홀이 있었는데 운영하시던 분이 선생님 내외분에게
돈을 꾸가고 갚지 않아서, 그 채무를 변제하려고 같이 운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주를 하시게 된 거고.

구술자 네네 그렇죠. 저기 삼릉에 무슨 클럽하는 분이 또 하나 있었어요.

면담자 드림보트?

구술자 아니예요. 오래되니까 그것도 잊어버리네 (웃음). 미군 클럽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개인으로 그냥 했나봐, 개인적으로. 미군 클럽을 했어요.
남편이 미국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했어요 삼릉에 가서.

4 클럽의 양생시들

- 구술자 그때도 아가씨들이 있었어요.
- 면담자 그 클럽 안에?
- 구술자 아니. 자기네들이...
- 면담자 출퇴근 하는?
- 구술자 출퇴근도 아니고, 출퇴근은 카운터만 쓰고. 자기네들이 자유롭게 와서 벌어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았어. 그 사람들한테 팔세(괘시) 받는 게 말도 못했어 (웃음). 팔세를 내가.
- 면담자 초보니까. 그 분들은 프론데? (웃음)
- 구술자 그럼 프로지.
- 면담자 어떻게 텃세를 부리던가요 선생님?
- 구술자 처음 와서 촌사람 같은 사람이 카운터에 앉아있으니까 행패를 하는 거야. 맥주병을 팍 집어던져 저기다가.
- 면담자 선생님한테?
- 구술자 나한테는 안 던지고 저기...
- 면담자 선생님 있는 쪽에?
- 구술자 여기 카운터가 있으면 저쪽에 던져. 괜히 시비를 하 거야. 병을 던져서 깨요. 한 번 두 번 며칠을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엔 석유통을 가져다 놓더라고. 그때는 석유를 뺐어요. 난로에. 하도 약오르니까 석유통을 앞에다 뺐어.
- 면담자 선생님이?
- 구술자 석유장사가 갖다놨지. 석유통을 하나 갖다뺐어. 던지길래 나는 그거를 발로 빵 쳤지 (웃음).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야. 불이라도 붙으면 큰일 나니까. 너는 남의 꺼 깨지만 난 내 꺼다. 시작을 하니까 다 도망가고.
- 면담자 그럼 사실 별게 아니었네요 그 분들.
- 구술자 별게 아니죠. 팍 잡았지 이제 (웃음).
- 면담자 그 다음부터는 어땀어요?
- 구술자 꼼짝을 안하지. 그 다음부터는 꼼짝을 못하지. 처음에 아주 굉장했어요,

굉장했어요.

면담자 그렇네. 병을 깬다는게.

구술자 무섭죠. 술잔을 들고 있다가 탁 깨고. 머칠을 그러면서 당하고 있으려니
벌벌 떨리고. 속에서 불이 나지. 석유통 한 번 발로 차서 내가 이겼어 (웃음).

면담자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해지셨어요?

구술자 그러네요. 그 다음부터는 친해서 잘 지냈죠.

면담자 그 관계가, 그 분들이 이전에 기지촌에서 양공주라고 속된 말로, 양색시라고
부르던 분들인 거예요?

구술자 그럼요. 오래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지네도 아니꼽다고 (웃음).

면담자 그 분들은 송도홀에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고.

구술자 아니지.

면담자 거기에 왔다갔다 하면서 미군들, 애인이나 이런 분들 있으면 같이 와서 술도
먹고 음악도 듣고 그랬던 거죠.

구술자 그렇지.

면담자 기억에 남는 분 혹시 있으세요? 친하게, 계속 운영하다가?

구술자 친하게 오래있었던 사람도 있지. 근래에 죽은 사람도 있어, 근래에.
근래래도 죽은 지 한 10년은 넘었다. 제일 끝에까지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미국들을 많이 갔죠. 미국 사람들 따라서 미국을 많이 가고. 갔다 온
사람들도. 또 계약결혼들을 해서 한 달이고 1년. 한 달은 아니고, 1년 있다
가잖아요 미군들이. 1년 있다가 가요. 그럼 그동안 계약결혼으로 살고.
살아도 내게 소속한 여자에게는 수입이 생기는 거야, 주인이.

면담자 계약결혼을 한다는 거는 용돈조로 돈을?

구술자 받지. 한 달에 돈을 받고 사는 거지.

면담자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웃음)

면담자 기억에 남는다는 양색시분에 대하여 약간 설명?

구술자 그 사람에 대해서?

면담자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구술자 그 사람들 나중에 뭐, 미군들이랑 많이 살았는데. 나중에 미군도 가버리고
없고. 따라가지도 않고. 그냥 혼자 생활하다가.

면담자 이 근처에서?

구술자 네 이 근처에서 살았지. 오래 살았지.

면담자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구술자 네네. 병이 나가지고.

면담자 아파가지고.

구술자 네. 클럽에서 일을 많이 했어 또. 내가 96년도까지 했을 걸 아마.

면담자 선생님 클럽?

구술자 그 땐 아주 미군 1명, 2명밖에 없을 때야

면담자 96년도에는?

구술자 그렇죠. 한국 사람이야 순전히 이젠 (웃음). 그니까 손님이 버글버글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없어도 가슴이 내려앉고. 아주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손님이 미군이 따라 오면, 같이 오면 괜찮아. 동행해서 왔다
그러면 괜찮은데.

면담자 한국 사람들?

구술자 그럼요. 그것도 아니고 자기네끼리 들어왔는데 그걸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조사를 나오잖아요 또.

면담자 한국 사람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술자 그럼요 조사를 나오지. 그러면 그것도 걱정이고. 길 나는 바람에 관둔
거예요.

면담자 길 나서 아예 싹 처분을 해버리고?

구술자 네 없애버렸죠.

5 클럽의 쇠퇴기와 변화

면담자 그래도 한 16년 정도를 운영 하셨어요 선생님. 엄청 긴 시간인데.

구술자 16년? 더 했을 걸 아마. 79년에서 96년도니까 17년? 그거 밖에 안 됐나?

한 20년 한 줄 알았는데 (웃음).

면담자 강도는 거의 20년이 뭐야, 한 30년의 강도일 거 같아요. 그러면 음악같은 거는 클럽에서 밴드들이 와서 연주를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구술자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 밴드도 뭐를 줘야 되잖아. 돈을 줘야 하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 안 되고. 잠깐 일시로 했고. 그 전에는 모르겠어요. 일시로 했고 주로 판을 틀었죠, 판을.

면담자 LP판을?

구술자 네. DJ도 놔두고.

면담자 DJ도 있었어요?

구술자 네, 뮤직박스도 꽤 컸어요.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노래 맨날 틀어주고.

면담자 신청곡 받아가지고 LP틀고?

구술자 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넓은 데에서 춤추고. 재밌게들 놀다 가고 그랬죠.

면담자 그럼 거기 구조가 큰 홀에 뮤직박스가 있고?

구술자 카운터가 길었어요. 이정도로 길어, 저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어. 옆에 나중에엔 뮤직박스 조그맣게 해놓고. 그래도 DJ가 있었어 그때까지도. 김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또 죽었어 요새. 김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뮤직박스가. 그 사람들 있을 땐 편안했는데. 나중에엔 음악을 틀어야 하는데 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맨날 틀고 (웃음). 나중에 가선 그랬지.아니 그 많은 판을 다 어쨌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

면담자 그럼 계속 클럽을 한국 사람도 받고, 미국 사람도 받고?

구술자 너무 손님이 처음에 없어가지고 그 넓은 홀에서 맥주 한 병 팔아 저녁에. 기가 막힌 거 아니예요. 저녁에 즐기고 앉았지 맨날. 한 병 팔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엔 흔하지만 그때는 처음으로 우리가 큰 프로젝터 해놓고. 프로젝터가 이만했어 그냥. 천장에 다는 게 이만했어. 지금은 요만하데 아주 조그마해 가지고. 화면을 크게 저기에다 해놓고 했어요. 미국 노래도 틀고, 한국 노래도 틀고 화면도 나오는 걸 틀고 했더니 조금 나아지더라고. 노래방처럼 했어 또.

면담자 가라오케처럼? 노래도 볼 수 있게?

구술자 네네. 그때만 해도 은판 이만하게. 은판 이만한 게 있어. 지금도 내가 있어.

면담자 은판이 뭐예요 선생님?

구술자 색깔이 은판이야. 가라오케 판이야 그게. 한 장에 그때 돈으로 비싸다고 했던건데. 그건 지금도 있어 내가 (웃음).

면담자 그런 것도 틀고. 많은 고민을 하셨네요 운영하는데에.

구술자 많이 했죠. 이렇게 저렇게. 한국 사람들 어쩔 수 없어, 한, 두명 오는데 어떻게 해 그거를. 그럭저럭 하다가 길 난다는 바람에.

면담자 길은 언제 났어요 선생님? 그게 96년도?

구술자 네, 보상을 97년도에 받았어. 그것도 1년을 끝다가 받았어. 96년도인가, 95년도인가 그때 길이 났어요. 95년도에 났을 거야 아마. 1년을 내가 끌고. 세상에 뒤에는 다 헐어 들어오고 우리집만 남으니까, 우리집이 제일 앞 아니예요. 쓰레기가 밀려들어와서 못 살겠어. 쓰레기가 밀려들어와 막 뒤에서. 뒤에는 다 헐고, 가정집들이니까 헐고 앞의 줄만 막고 있으니까 쓰레기가 밀려 들어오니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손들고 내놔죠.

면담자 여기 주변에 선생님 정말 많이 바뀌었죠?

구술자 아이 그럼요.

면담자 처음 들어오셨을 때에는 동네 풍경이 어땠어요?

구술자 앞 줄로 전부 문 닫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면담자 처음에 오셨을 때?

구술자 그럼요. 그때만 해도 앞 줄로 전부. 그래서 우리가 앞 줄에 집 못 산걸 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뒤에다 집을 사가지고 지금 망했다 그러는 거야 (웃음). 앞 줄을 그냥 싼 값에 사서 사서 하는걸 못 사고, 뒤에 여인숙 하는 집 그거를 사고. 머리가 둔해가지고 (웃음). 앞 줄이 그냥 술집이라곤 우리집 하나 밖에 없었어요. 저 위에 백운역 꼭대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면담자 그때 그린도어도 하셨었어요?

구술자 있었지 그때.

면담자 그린도어는 영업했었죠?

구술자 영업 했지. 키클럽도 했어요. 우리 할 때 키클럽, 그린도어, 또. 그린도어 아주머니, 키클럽 할머니. 전부 할머니들이야. 나를 불러다가 (웃음).

면담자 어땠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구술자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때 위협을 느꼈을 뿐이지 지금 다 잊어버리지 (웃음).

면담자 보통이 아니셨을 거 같은데.

구술자 아 그럼요. 키클럽 할머니 보통 아니고. 그린도어 마마상도 보통이 아니고. 나이가 내가 또 젊지, 그때 내가 42살이었으니까.

면담자 그래 맞아. 그 당시 거기에서 연주하셨던, 여기 말고 신포동 외국인클럽에서 연주하셨던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마마상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구술자 마마상이라고 그래. 위스키메리 지금도 있을걸? 위스키메리 있어. 그게 같은 협회지.

면담자 협회가 있었어요?

구술자 그럼요, 협회가 있었지. 여기는 인천지부이고, 중앙은 서울에서부터 동두천, 의정부. 내가 해마다, 매달 한 번씩 해줘 그거를.

면담자 그런 거예요? 협회의 이름이 그러면?

구술자 특수관광협회죠. 특수관광협회.

면담자 그럼 선생님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인천 지부에 누가 소속이 되어 있고.

구술자 그렇죠. 그런게 다 나와.

면담자 회장은 누구고, 그런 거를 매번 정리해서 보내주고 그런 일 하셨다는 게 아닐까요?

구술자 그걸 매년 찾아요 매년.

면담자 외국인클럽을 열면 당연히 거기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구술자 소속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가 아니라 그때 허가가 났던 사람들은 다. 새로 허가를 안 내줬을 거야 아마. 그 당시에 처음에 하던 사람들만 했을 거야. 많죠. 의정부, 동두천 그런 데가 많아요 아주.

면담자 부평은 그때는 많이 찾아들었던 때라서...

구술자 그럼요. 부평이 옛날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 들어오는 골목 있잖아요,

골목에서부터 저 위에 백운역 가는 끝에까지 클럽이 짝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골목 안에도 클럽이 짝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외국인들밖에 못
들어왔어.

면담자 아예 이 거리 자체에?

구술자 거리 자체에 일반인들은 잘 못 들어왔어. 젊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잘 못
들어오고.

면담자 무섭기도 하고.

구술자 무서울 건 없겠지만, 못 들어오게 했어. 청소년은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써놨어요 입구에. 그랬었던 동네고. 이 뒷골목은 쪽 길어 저기까지
긴데. 거기는 전부 가게. 튀김집, 뭐 무슨 집 그런게 이렇게 쪽 있었지.
조그조그마하게 짝 있었어요. 거기에 저녁에 가면, 나 여기 안 왔을 때.
구경한다고 여기에서 일부러 내려서 십정동 걸어가고 (웃음). 구경하려고.
여기 부대 앞에 쪽 여자들이 섰고.

면담자 서있어요?

구술자 그럼. 들어가려고. 부대 안에 클럽이 있잖아요. 클럽에 들어가려고 짝 섰고.
요 골목으로 가면 미군들이 드글드글해. 그럼 그거 구경하려고 여기 내려서
일부러 걸어갔다고 (웃음).

면담자 약간 별세계 같았을 거 같아요.

구술자 네, 별세계죠.

면담자 되게 하려하고. 근데 여기에 막상 이사오셨을 때에는 앞에 가게도 하나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

구술자 네, 거의 안 남고. 클럽도 3개밖에 없고. 그럴 때에 와서, 너무 늦게
와가지고. 장사도 못 하면서.

면담자 아니에요 선생님, 무슨 소리세요. 그래도 처음엔 미군들이 좀 남아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몇 년도부터 확 빠지기 시작 했었을까요?

구술자 막 빠진 게 아니라 차차 줄더래요. 모르는 사이에 차차 줄어. 월급들 타야
돈이 있으니까 외상들을 먹어요. 한 달 외상을 먹잖아요. 장부가 다 있어.

면담자 지금도 다 갖고 계세요?

구술자 없죠, 다 버렸지 뭐.

면담자 아까워라.

구술자 있으면 착착 잘 가져와. 근데 가는 달에는 안 가져와 (웃음). 가는 달에는 꼭 떼먹고 가.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은 주고, 떼먹고 가는 사람이 더 많아.

면담자 세상에.

구술자 재밌는 일도 많았어요.

면담자 어떤 일, 기억에 남는 일 좀 있으세요?

구술자 무슨 날인진 몰라. 지금은 생각도 안 나는데. 부대에서 미군들이 훌리볼을 다 하나씩 두르고.

면담자 훌리볼?

구술자 응 훌리볼. 침대커버인가 봐 아마. 훌리볼을 두르고 부대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훌에 와서 한바탕 춤 추고 가고.

면담자 춤추고? 이볼 들고?

구술자 응. 발가벗었는데. 말들을 하면 속은 발가벗고.

면담자 아니 진짜 발가벗고 훌리볼 들고?

구술자 훌리볼 들고 춤을 한바퀴씩 추고선 막 웃곤 가요 (웃음). 그런거 할 때 얼마나 재밌고 했었는지.

면담자 왜 그랬을까요?

구술자 그게 노는거지. 무슨 홀리데이인지 뭐 그런 날. 자기네도 노느라고.

면담자 재밌는 게 필요하니까.

구술자 웃음거리로 노느라 그랬겠지. 그러곤 세계 각국 사람들을 다 만나. 미군도 미국 사람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세계 각국 사람을 다 만나지. 까만 사람부터 하얀 사람. 여러 나라 사람들을 다 만나지. 그래서 내가 야 여기 앉아서 세계 각국 사람을 다 만난다. 여행하는 거 보다 더 낫다.

면담자 재밌어요 선생님.

구술자 재밌어요. 재밌었죠.

면담자 재밌어요. 장사만 좀 잘 됐어도.

구술자 그래도 한 때는 잘 됐어요. 처음에 그 큰 화면 걸었을 때 너무나 장사가

잘 됐어요.

면담자 어느 정도?

구술자 흠이 짝 차고. 그때 제일 장사가 잘 됐어.

2019 부평·신촌 생활사 4

장흥식(1953)

1957년 가족과 함께 부평·신촌으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거주중이다. 장흥식이 주로 거주했던 곳은 아랫신촌을 지나 경원대로·부평공원로를 따라 내려와 굴다리를 지나면 나오는 곳으로 부평3동 성당 뒤편이다.

1 부평 · 신촌으로의 이주와 거주하던 집에 대한 기억

- 면담자 선생님 여기에서 제가 원주민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부평 신촌에서 아예 태어나신건지?
- 구술자 저는 원래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나서 4살 때 여기로 이사 와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 면담자 그러면 당시에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 구술자 네, 그렇죠. 미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미군부대 자동차 정비공으로 취직하기 위해서 상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 면담자 4살 때, 당시에는 너무 어렸으니까 기억이 많이 남아있으실 거 같지는 않는데 어떠세요?
- 구술자 그래도 6살,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기억은 다 나죠.
- 구술자 그렇죠, 그 이후는. 아버님의 직업에 관한 기억은 좀 어떠세요?
- 구술자 미군부대에서 자동차 수리했다는 기억밖에 없죠.
- 면담자 그때 당시에 거주했던 주소?
- 구술자 그때 당시로 십정동 182번지인가.
- 면담자 집의 형태는 어땠나요?
- 구술자 형태는... 기와지붕.
- 면담자 기와지붕에 1층 단층에?
- 구술자 단층이죠
- 면담자 단층에 나무로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시멘트?
- 구술자 흙벽돌에다가 나무.
- 면담자 방은 혹시 몇 개였는지 기억하세요?
- 구술자 저는 그때 당시 세를 살았기 때문에. 방 하나 가지고 살았죠.
- 면담자 집 구조가 혹시 네모 형태에 방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옛날?
- 구술자 그때 살았던 집이 바로 여기 뒷 집이에요.
- 면담자 아 여기 뒤에?
- 구술자 뒤에. 혼자, 단독이지 뭐. 단독인데 방 하나에 거실 하나 그랬죠.

면담자 그럼 여기 아직도 집이 남아있나요?
 구술자 있어요, 이 집 그대로 있는 거예요.
 면담자 그럼 여기에서 계속 사시다가?
 구술자 아니요. 여기에서 세를 살다가 바로 위에 윗 층에 세 살고. 세를 몇 집을 옮겨 다니면서 살았죠.

2 당시 생활의 단면

구술자 이 동네는 사실 피난민들이 많았어요. 충청도, 전라도, 이북에서. 피난민들이 와서 미군부대가 있으니까 취직하려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들 몰려왔죠. 다들 살기가 힘들었어요. 보리밥도 먹기가 힘들었고.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보리밥을 먹기가 힘들었고, 미군부대에서 구호해주는 옥수수 삶아 먹고, 꿀꿀이죽이라고 있어요. 미군들이 식사하고 남은 밥을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일반 민간인이 리어카를 들고 들어가서 한 드럼통을 실고 나오면서 종을 흔들면서 다니면 우리가 사먹고 그랬어요. 한 깡통에 열만지 몰라.

면담자 깡통에 담아서요?
 구술자 깡통에 담아서. 드럼통을 실고 나오면, 그게 몇 리터인지 모르겠어. 높이는 한 요정도 되고, 둘레는 한...(손으로 높이를 가늠하며)

면담자 음식집 같은데 가면 있는 이정도 높이?(업소에서 사용하는 크기의 깡통을 말함)
 구술자 그런 깡통이 있었어요. 미군들이 먹은 식료품이나 캔, 통조림용이지. 이런 빈 깡통에 먹고 그랬어요.

면담자 가격이 기억나세요?
 구술자 가격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동전이었어요. 동전 가지고.
 면담자 그게 선생님 몇 살 때 기억이세요?
 구술자 내가 4살 때 여기에 왔으니까, 그 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팔았겠죠. 내가 4살 때 왔을 때 팔았겠죠.

면담자 식생활에 대해서 옥수수랑 꿀꿀이죽 얘기 하셨었는데.

구술자 고구마, 감자. 감자도 많이 먹었고. 보리밥만 하루 세끼 먹어도 다행이었어요 사실은. 보리도 귀했어요. 그만큼 식량이 부족했던 거지.

면담자 반찬은 그러면?

구술자 반찬은 뭐 김장 때 김치같은 경우도 고춧가루도 못 넣었어요. 그냥 소금에 절여서. 그것도 참 맛있었다고. 소금에 절여서 먹고, 무청이라고 해서 우거지를 해서 먹고. 두부공장이 이 근처에 있어서 비지로 비지찌개 많이 해먹고 그랬었죠.

3 미군에 대한 에피소드

면담자 4살이 지방에서, 상주에서 올라왔을 때 외국인을 처음 봤을 거 같은데 그 느낌이나 그런 거 기억나세요?

구술자 그때 당시에는 주로 미군들 보는 게 훈련. 줄을 지어서 행군하는 거지. 이쪽(집) 앞이 다 개천, 냇물이 흐르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때 여기에서 발가벗고 수영하고 그러면 성당 앞길, 좁은 길 있죠. 거기로 해서 군인들이 한 1개 소대가 쪽 지나가죠. 미군들 오면 우리가 사진 찍어달라고 발가벗고 서서 그러면 사람들이 찍고 그랬거든요. 미군들이 가면 헬로, 껌 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껌도 주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우리 누이뻘 되는 사람들이 미군들하고 결혼해서 미국을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보니까 이 미군들이 여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은 이렇게 못 산다 선전을 했던 거라. 그러가지고 그 누이들이 귀국해서 하는 얘기가 "야, 너네들 미군이 사진 찍자고 하면 절대 찍지 말라"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죠. 미군들이 지나가면 발가벗고 우리는 숨어 있다가 미군들이 사진 찍으려고 하면 돌맹이를 집어던지고 그랬다고.

면담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구술자 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미군들이 사진을 안 찍었지.

면담자 맞아요. 영어는 어디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당시에?

구술자 영어는 미군들하고. 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는, 어릴 때에도 미군들하고 손짓 발짓하면서 대화하고 그랬죠.

면담자 만나면 그냥 김미, 아까 뭐라고 하셨죠?

구술자 헬로 껌쥬 (웃음). 기브미 뭐 이런 거.

면담자 그런 것처럼 손짓 발짓 하면서 (웃음). 그래도 꼬마 애들이 그렇게 하면 귀엽게 잘 받아줬나 봐요.

구술자 받아주고, 사진을 많이 찍었지 개들이.

4 원통천의 기억과 어린 시절 놀이

면담자 여기 앞에 개천이 다 복개되어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상상이 안 가요, 애기만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물도 되게 맑고.

구술자 맑아. 식수로도 사용했었어요.

면담자 그 정도로 맑았었나요?

구술자 네. 개천이 있어서, 그때에는 생활이 힘들잖아. 자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갈을 모아가지고 그걸 팔기도 하고.

면담자 자갈을 어디에다 팔아요?

구술자 자갈을 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우자동차, 새나라자동차가 생기면서 개인택시가 있었거든. 택시 오면 세차하고 그랬었다고. 물이 아주 깨끗했었는데 그랬다고.

면담자 미군부대도 저기에서 세차하고?

구술자 미군들은 안 했지. 자기 영내에서 다 했겠지.

면담자 영내에서 하고.

구술자 빨래도 그쪽에서 하고. 먹는 식수는 개울이 이렇게 흐르면 개울이 옆에, 산 밑에서 내려오는 물이 졸졸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물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걸 모아서 먹고 그랬다고.

면담자 개울가에서 떡감고 놀고, 식용으로도 쓰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거 말고 다른 여가생활이라고 해야할까? 학교를 아직 안 갔을 때인데 계속 놀았을

거 같은데 뭘 하고, 어떤 놀이를 주로 하셨나요?

구술자 겨울에는 얼음이 얼었으니까 철사로 썰매를 만들어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굵은 철사를 이렇게 감았다고. 그럼 양쪽으로 해서 잘 나가겠지

면담자 나무 판대기, 이런 팔자에 철사를?

구술자 밑에다가 나무 각목 같은 걸 넣는다고. 각목 밑에다가 철사를 이렇게.
나무로 하면 잘 안 나가니까 철사로 하면 잘 나갈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면담자 그걸 직접 만드셨어요?

구술자 만들었지.

면담자 또 기억나는 건?

구술자 나무 각목에다 톱으로 홈을 파가지고 납작한 생철이 있어요, 그걸
꽂아가지고 또 타고.

면담자 그때 철 같은 거 귀하지 않았어요?

구술자 글썄. 철이 귀하다고 그런건 못 느꼈어요. 미군부대가 있어서 그런지.
고물상으로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철을 구하는 건, 썰매
만드는 철은. 좀 귀했을 수도 있어요.

면담자 근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주워가지고 하고. 돌아다니실 때 동네 풍경은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구술자 이쪽에는 거의 주택이 옥수수 심고 밭이었죠 뭐. 간석오거리도 그렇고. 집은
몇 채 없었어요. 어렸을 때 추억은 미군들이 지금 현대아파트 3단지, 그
쪽에 사격장이 있었어요.

면담자 사격장이요?

구술자 사격장. 우리가 사격장으로 간다고. 가서 미군들이 사격하는 거 뒤에 있다가
사격이 끝나면 탄피 주워다가 고물상에 가서 팔아서 강냉이도 사먹고
그랬었죠.

면담자 탄피가 철이니까 비싸게?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탄피를 그렇게 많이 주웠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르신들이.

- 구술자 탄피를 주웠고. 그 당시에는 미군들이 권총 사격을 한 다음에 서울우유 종이팩 같은 거 그걸 한 잔씩 마신다고. 마시다가 개들이 다 안 마시고 가거든. 그러면 서로 뛰어가면서, 서로 먹으려고. 당시로 얘기하면 사실 비싸겠지.
- 면담자 워낙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 구술자 그때에는 잘 산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잘 사는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들. 집에 쌀 하나만 있어도 부자야. 나머지는 부자라고 할 수 없죠.
- 면담자 선생님 그러다가 학교를 들어가셨잖아요. 학교를 서초등학교? 그때는 다 서초등학교를 들어갔다고.
- 구술자 그렇죠. 이름은 다 서초등학교예요.
- 면담자 근데 서초등학교가 되게 멀더라구요. 얼마나?
- 구술자 걸어서 갔어요. 철길로 해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30분 이상 걸렸을 거예요. 애들이 놀다가. 삼릉 애들, 신촌 애들, 이 동네 애들, 삼거리 애들 다. 기차 철로를 따라서 갔죠.
- 면담자 처음에 학교를 딱 들어가면 되게 낯설잖아요. 여기에서도 오고, 저기에서도 하고 근데 부평 신촌 애들이라고 하면 뭔가 무서워했다고 해야 하나?
- 구술자 몰라, 우리 그런 건 없었고. 저희는 삼릉, 신촌, 삼거리 세 군데 지역 패싸움을 많이 했어요.
- 면담자 왜? 그냥? (웃음)
- 구술자 그냥 하는 거지 뭐, 애들끼리. 누가 이 동네 애들이 한 대 맞았다 하면 어 누구한테 맞았어, 신천 누구한테 맞았어 하면 여럿이 가서 개 때리고. 그러면 신촌 애들이 오 누가 와서 누굴 때렸다 하면 개네들이 와서 때리고 그랬었죠.
- 면담자 불싸움도 하고 그랬던데?
- 구술자 그렇죠. 과격했지. 그 당시에 보름날 같은 날엔 불강통 있죠, 그걸 돌리다 집어 던지기도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물상에서 다야 있죠, 다야. 다야를 불을 붙여서 산 꼭대기에서 밑으로 구르는 거예요. 그러면 굴러서 지금 현재 대주아파트에 주택이 한 군데 있었어요. 그 집의 문을 들이

받아가지고 그 집에 불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고 (웃음).
추억거리가 많았어요. 그리고 겨울 되면, 그때 연탄재랄까. 나이가
먹어서 그랬지. 그때는 연탄재가 있어서, 연탄재가 겨울 되면 광광 열면
딱딱하잖아. 돌맹이 상이거든. 그걸 던지면서 놀았다니까. 그러면 얼굴
이런데, 코가 부러지고 그랬지.

면담자 그렇죠 맞으면 엄청 아프죠.

구술자 그때는 험하게 놀았어요, 사실. 험악했지.

면담자 몇 살 때까지?

구술자 그래도 한 국민학교 6학년 때? 스케이트 타다가도 스케이트 꼬챙이로도
싸우고. 아주 과격했어요. 어릴 때에는 구슬치기, 또 딱지치기, 자치기
라고 해서 나무로 쪼매난 게 있어서 양쪽을 연필 깎듯이 깎아요. 가운데
여기에다 땅 속에 흙을 파서 치고, 튀어오르면 또 치고 하는 자치기라고
있었어요. 그걸 많이 했었고. 여자들은 고무줄놀이를 많이 했었지. 술래잡기
같은 걸 좀 했었어요. 저번에 저희집이 기와지붕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기와지붕이 아니라 벧집으로 한 초가집이 많았어요.

면담자 이 근방예요?

구술자 네. 벧단으로 지붕을 쌓아가지고. 기와지붕은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한
거고. 그때 당시에는 초가지붕이 많았었는데.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겨울에 새들이 추우니까 지붕 밑에서 잠자고 있거든요. 그러면 밤에 후레쉬
불을 비치면 새가 움직이지 못 한다고.

면담자 왜요?

구술자 불빛 보고. 도망을 못 가요. 그러면 손을 집어넣어서 잡아가지고 구워서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뱀, 구렁이 같은 것이 벧집 밑에, 지붕 밑에
살아가지고 손을 잘못 넣으면 물리지. 독사가 아니고 구렁이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거죠. 겨울엔 그런 것도 했었고. 여름에는 지금 주안5공단 그 쪽에
염전이 많았어요. 염전하는 데에 가서 수영도 하고, 물에 빠져서 익사사고도
참 많았어요. 이 동네에서 주안염전까지 가려면 산을 넘어서 한 1시간
가까이 갔을 거예요.

- 면담자 그 수영을 하기 위해서요?
- 구술자 네. 특별한 놀이가 없으니까 친구들과하고 같이 갔던 거죠.
- 면담자 오늘은 수영하러 가자 그러면 거기 가는 거예요, 걸어서?
- 구술자 가는 거죠. 가면서 옥수수, 감자를 서리하는 거지 남의 밭에. 서리를 해서 배고프면 구워서 먹고 하루종일 놀고 그랬었어요.
- 면담자 되게 건강하고 여유가 그래도 있는 어린 시절을 보내신 거 같아요. 신촌이라고 하면 지금도 사람들이 선입견이 되게 강하게 있잖아요. 지금은 음악도시, 옛날에 번성했던 곳, 클럽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시골 농촌의 여유로운 마을 모습과 다르지 않았던 거 같아요.
- 구술자 그렇죠. 여기 놀이라는 것이 시골 애들 노는 것하고 똑같고. 친구들 간의 의리는 굉장히 좋았어요. 다들 어렵게 살았고, 빈부격차가 없었고. 다 비슷비슷하니까. 항상 친구들과하고 같이 하교하게 되면 같이 놀고. 특별한 놀잇거리가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놀고.
- 면담자 서초등학교 왔다 갔다 할 때에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 둘씩 모여서 우르르 갔다가 끝나면 우르르 오고 그랬던 거예요?
- 구술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갔죠. 그러다가 삼릉 친구들과하고 신촌 친구들과하고 패싸움도 벌이고.
- 면담자 (웃음) 네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패싸움을 그렇게 하셨다고.

5 양색시에 대한 기억

- 면담자 왔다갔다 하고, 학교 다니고. 그래도 이 곳에서 계속 사셨잖아요. 양색시나 이런 분들도 직접 봤을텐데 기억이 나세요?
- 구술자 나죠, 기억이 많이 나죠. 여기에서 미국 간 누님들도 있고. 그때 당시 우리가 양색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양식을, 빵, 카레 라든가 하는 양식을 일찍 먹었다고 생각해요. 소세지, 햄 이런 걸.
- 면담자 갖고와서?

- 구술자 팔기도 하고, 얻어 먹기도 하고. 양색시, 양부인들이 저녁 때 미군들 클럽에 가서 놀거든. 놀다 오면서 얻어 오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그럼 그런 걸 우리들한테 주기도 하고.
- 면담자 옷차림은 어땠나요, 양부인들?
- 구술자 양공주라고 해서 좀 아했죠. 미니스커트 같은 것도 입고. 미군들 상대하니까. 양색시, 양부인들도 보면 흑인 상대하는 여자 따로 있고, 백인 상대하는 여자가 따로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흑인하고 생활하는 여자를 백인들은 같이 생활을 안 해요. 클럽도 마찬가지로요. 흑인이 왕래하는 데에는 백인이 안 가고. 그때 당시에도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미군 애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뒤늦게 알았지만 그 당시 미군들이 굉장히 무식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무식한 애들. 개네들이 한국에 와서 외로우니까 한국 위안부들이랑 생활하다가 미국에 가서 같이 생활하다가 미국 가서 바로 이혼한 여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 면담자 많이 맞고.
- 구술자 응, 많이 얻어 맞고.
- 면담자 말씀하신 것처럼 흑인 상대하는 분들, 백인 상대하는 분들이 겉으로 보기에 차이가 좀 났었나요?
- 구술자 차이가 없었죠. 근데 자기네들은 안데요. 미군 백인들은 냄새 맡고 안다고 그러더라고. 개네들은 흑인 남자 상대하는 여자는 상대를 안 하더라고.
- 면담자 그것도 재밌네요.
- 구술자 엄밀히 따지면 달러 획득이라든가, 국가 근대산업에 아주 밑거름이 됐지.
- 면담자 네, 나라에서도 관리를 했잖아요. 병원을 여기서 두고.
- 구술자 신촌은 주로 양색시라고 해서 미군들을 상대하는 위안부들이 많았어요. 이 동네도 있었고. 거기에서 그 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내 친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현찰이 좀 있으니까 양색시들한테 빚을 주고. 고리대금업자지 한 마디로.
- 면담자 일수 같이?
- 구술자 일수 같이 하기도 했었고.

면담자 여기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많았던 동네였던 거 같아요.

6 도시에 대한 다양한 기억

면담자 클럽이나 그런데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구술자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한국인들은. 밖에서 구경은 했지. 개네들은 맥주 한 잔 시켜놓고 테이블에서, 여자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랬었죠. 사건사고도 많았었죠.

면담자 그거는 기억하세요 혹시? 화폐개혁 때문에 그 전까지 벌어들였던 돈들이 다 종이조각이 되어서 여기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고.

구술자 글썄요, 어릴 때니까 경제가 타격이 어떤가 실감을 못 하죠. 근데 화폐개혁을 했다는 건 알고 있지. 내가 그 당시 돈이 쓸모가 없어서, 휴지조각이 된 것도 있어요. 소액돈 같은 경우는 환전이 안 되어서 그냥 버리거나 이랬던 게 기억이 나요.

면담자 인천남중 진학하시고, 인천남고. 어머니께서 그래도 교육에 되게 열심히셨던 거 같아요.

구술자 그렇죠. 아들 하나기 때문에 아들은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는 다 그랬잖아요.

면담자 그렇죠. 선생님이나 기억에 남는 분들은 계세요? 서초등학교에서?

구술자 있죠. 친구들은 만나기도 하죠. 아랫동네에 사는 친구들도 있고, 부평에 오래 살다 보니 동창들 가끔 보는 경우도 있어요.

면담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학교에 혼혈 아동이 있었어요?

구술자 많았었죠. 혼혈 아동도 있었고, 고아들도 많았어요. 전쟁 고아. 고아원이 지금 신명보육원인가, 맹인학교 있는 데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혼혈아도 몇 명이 있었어요. 고아들은 주로 미군부대에서 지원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그랬었지. 그래서 부평에는 장애학교, 맹인이라든가 농아라든가 이런게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제일 빨리 이쪽 지역에 생겨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은 미군들 때문에. 미군들이 자원사업을 했었거든. 개네들이 거기에도
고아원도 짓고, 장애아들도 돌봐주고 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면담자 성당 지을 때에도 자재 같은 것도 도와주고, 신문 찾아보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기록을 많이 찾아봤어야 했는데 집 지을 때 나무자재 같은 것도
많이 주고 도와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구술자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여기 부평 삼릉성당 여기 지을 때에 외국인 신부님이
계셨거든요. 그 신부님이 제일 잘 한게 고아 사업. 고아 사업을 많이 했어요.
미국 갈 때 몇 명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분이 1982년도인가, 5년도인가
심장병 어린이들 치료도 캐나다로 보내서 도와주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면담자 신촌에서 난 인물 중에 권투선수 홍수완 이런 분들.

구술자 그 분은 삼릉. 그 사람이 훈련 받으면 노상 경인국도로 뛰고.

면담자 보셨어요? (웃음)

구술자 봤죠. 자기 형제들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옛날에 아베베, 맨발의 아베베도
경인국도로 해서 뛰는 것도 보고.

면담자 땡땡 거리인가 어디 지나가는 것도 보셨다고.

구술자 땡땡 거리는 이 쪽인데, 이 쪽이 아니라 경인국도로 지나갔지. 경인국도로
해서 서울로 달린 거지. 땡땡 거리 여기는 백운역 있는데. 그 자리가 철로가
지나니까 기차가 지나갈 때 땡땡 거리면서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로는 안 지나갔지. 4-19, 5-16 혁명 때도 버스가 여기에서 지나갔고,
버스로. 실미도에 나오는거 있죠? 탈주범들. 그 사람들도 여기에서
버스 타고 올라간 거 아니야, 경인국도로. 역곡에서 차 대고 거기에서
많이 사살되고 그랬었지. 그때에는 다들 비참했지. 학교 다닐 때에는
옥수수하고 강냉이, 미군들이 주는 구호물자. 우유도 있어요. 우유가
지금은 탈지분유라고 그러나? 기름기를 빼낸 거.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기름기가 있었다고 분유가. 그걸 찐다고 밥 위에. 밥 하는 그릇에다가 우유,
가루분유를 넣어서 물을 부어서 찐면 딱딱해지거든. 그걸 먹고 그랬지.

면담자 그럼 단 맛이 나지 않아요, 밥에서?

구술자 그릇에다 찌니까 맛은 우유 맛 따라오니까 상관없지.

면담자 도시락 같은 건 어떻게 가지고 다니셨어요?
구술자 도시락 싸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안 싸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랬죠.
싸서 다니는 사람은 그냥 콩보리밥이죠 뭐. 콩보리밥도 하루 세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지. 거의 옥수수, 강냉이죽, 꿀꿀이죽. 꿀꿀이죽 같은 경우에는
여름엔 금방 부패하잖아요. 부패하면 신맛이 난다고. 그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소다라고 있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 가루, 하얀 가루. 소다를
뿌려가지고 깡통에 장작불 때서 끓인다고. 그러면 신 맛이 없어, 희한하게.
그러면 배달도 안 나고.

면담자 그걸 어디에서 배웠어요? 그때 다 암암리에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 라고
해서 먹던?

구술자 그렇지. 요일마다 메뉴가 다 틀리잖아. 금요일 같은 경우엔 야채가 많이
나온다고. 토마토, 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수요일엔 고기가 많이
나온다고. 소고기, 햄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걸 다 알았다고. 그러면 고기
많이 나오는 날엔 한 깡통 더 사고. 거기에는 사실 요지, 이쑤시개도 나오고
넵킨도 나오고, 담배꽂초도 나오고 그렇지. 나중에는 그걸 계속 먹고 하니까
안 먹는 날에는 먹고 싶어. 인이 배겼다고 그러지.

면담자 부대찌개가?

구술자 부대찌개가 그때에 아마, 의정부에도 미군부대가 있으니까. 햄, 소세지 이걸
넣어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서부터 유래가 됐겠지.

ㄱ 부평 · 신촌 주민들의 직업 단면

면담자 그러면 당시에 일하던 부모를 가진 집이나 농사 짓는 집 이렇게네요.

구술자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 직업은 미군부대 다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그때 당시 공장도 있고 그랬으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섞였지.

면담자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었던 거지 기지촌에 의해서 여기가 다 돌아가고
그런 건 아니었네요.

구술자 그렇진 않지. 기지촌은 미군 상대하는 사람은 분류가 따로 있지. 클럽과 음악, 그건 일부 시민들이 거기에 속했지.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양색시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었지. 일반 누님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양색시가 된 사람은 별로 없거든. 몇 명만 됐고. 미군부대 종사자는 어머니뻘 되는 사람들이 세탁일 하고, 아버지는 청소나 잡일이나 정비공 이런 걸 했었고. 나이 젊은 애들은 미군들 하우스보이라고 해서 구두 닦아주는 역할을 했었고. 미군 일에 종사하던 사람이 여기 남아있지 않은 건 미국에 간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에 간 사람들도 많아. 양색시했던 분들은 그때 당시에 나이가 있어가지고 죽었지 많이 지금은. 그때 나이 20살이면 지금 70인데. 송탄으로 간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나중 세대일거야 아마. 그때 한창 양색시로 일했던 사람들은 20~30년 전에 이미 다 죽었어. 작고했어. 안 남아있어. 어머니는 그때 뭘 하셨냐면, 그 동네에 논에다 벼를 심거든요. 거기에 가서 일을 해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알바지 뭐. 일당 받고서. 그런 일을 하셨지. 농사 도와주고.

면담자 여기 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많이 하셨겠어요.

구술자 그런 일도 많이 했죠, 남의 일. 저희 어머니는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미군이 한국 가정집에 살았어요. 그 사람이 한국 여자하고 같이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집을 돌봐주는 식모 역할을 했던 거야. 그런데 한 날은 그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이 갑자기 죽었어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미군들이 헌병 부르고 생 난리를 친거지 강아지 죽었다고. 그때 우리 생각으로는 하찮은 동물 죽은 거를 개네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범죄자 취급한 거지.

면담자 어머니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속상하셨겠어요.

구술자 그럼요. 한국 아주머니, 어머니들이 미군들 집에 가서 식모살이, 집 봐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님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 뭐가 좋았냐면 미군들한테는 TV가 있었다고, 텔레비전. 우리는 처음 보는거지. 담 밑에서 몰래 쳐다보고 그랬었지. 그런 기억도 나네요.

면담자 밖에서 나와서 살 수 있었던 건 장교?

구술자 영외 거주자는 아마 장교일 거예요.
면담자 살림살이가 되게 좋은 편이었겠어요.
구술자 그렇죠. 개네들은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집도 넓은 데다 쓰고 그랬죠.
면담자 그 사람들이 가족이랑 같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혼자?
구술자 가족은 별로 없고, 부인하고 둘이서 사는 거 같아요. 그러다 몇 년 있으면 임기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족들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오는 거 같지는 않더라구.

8 유엔데이 (UN DAY)와 금봉어 양식장

구술자 한 가지 또, 일년에 한번씩 미군부대에서 미군들이 주민들을 초청해서 큰 트럭에 실어다가 송도 유원지, 지금의 연수구지. 송도 유원지로 많이 데려가서 배불리, 배터지게 먹고, 놀고, 수영하게 했었어요.
면담자 주민들을 데리고요?
구술자 네, 주민들.
면담자 그럼 주민들은 어떤 주민들을?
구술자 어머니, 아버지, 저희들. 식구들이 다.
면담자 되게 많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갈 순 없었을 거 같은데.
구술자 다 데리고 갔죠. 원하는 사람만. 그 당시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트럭으로 GMC에서 나왔던 트럭 있어요, 뒤에 사람 타는 거. 그거 5~6대, 10대 그 정도 가가지고. 그 당시에 우스운 얘기는 뭐냐면, 항상 배고프잖아요. 근데 가면 개네들이 치즈니, 빵이니, 우유니, 햄버거니 아주 푸짐하게 먹는 걸 중단 말예요. 그럼 배불리 막 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하는 애들도 많았어. 갑자기 고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면담자 보리밥 먹다가 (웃음).
구술자 그렇죠. 그랬었어요.

- 면담자 이번에 얘기하셨는데 누가 금봉어를 양식장을 누가 했다고, 친구 아버님이?
 그게 참 신기해요.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가요.
- 구술자 금봉어를 당시에 키워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특별히 돈 벌이가 없으니까.
 망태라고 하죠, 긴 막대기를 놓고 양쪽에 어항을 내다놓고 금봉어를 담아서
 동네를 다니는 거지. 이 동네도 있겠지만, 간석동, 인천까지 멀리 다니면서
 금봉어를 팔았어요.
- 면담자 그 양식장을 집 근처에?
- 구술자 이 근처가 아니라 요 아래로 내려가면 굴다리가 있어요. 굴다리 가기 전에
 우측으로 창의마을일거야 아마. 그 정도에, 늘봄마을. 그 정도에 크게
 웅덩이를 파가지가 키웠었죠.
- 면담자 웅덩이를 봤어요? 넓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 구술자 어릴 때 기억으론 굉장히 넓었어요. 평수로 따지면 한 200평 정도는 될
 거예요 아마. 크게 했어요. 이거 한 5~6배 정도. 크게 했죠.
- 면담자 송도유원지 소풍 말씀하셨는데, 송도유원지 말고 유엔데이(UN DAY)라고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구요. 유엔데이라는 날이 있어서 그 날은
 미군부대를 개방했다.
- 구술자 아 그 날인가 보다, 유엔데이가 그 날인가 보다. 하여간 그 날에는
 미군부대를 개방했어요.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들어가 보니까. 헬기도 뜨고,
 골프장도 있었고.
- 면담자 빵공장 까지는 얘기 들었는데.
- 구술자 골프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었고. 굉장히 컸었어요.
- 면담자 소프트볼 뭐 그런?
- 구술자 소프트볼. 지금의 베이스볼이 아니라 소프트볼이라고 공이 좀 커요. 경기
 방식이 약간 틀리지. 공을 던지는 방식도 틀리고. 보통 야구는 위에서
 밑으로 던지는데 이거는 밑에서 위로 던지면서 포수한테. 밑으로 쳐서 그런.
- 면담자 헬리콥터 태워주는 것도 체험하게 해주고.
- 구술자 저는 그런 체험은 못 했어요. 보기는 했어도 타지는 못 했어요.
- 면담자 송도유원지가 더 좋았던 거죠, 선생님은?

구술자 송도유원지 가서 특별히 기억나는 건 거기에서 수영 실컷 할 수 있었고, 먹을 거 많이 먹을 수 있었고. 그거 밖에 기억이 안 나오 특별히. 더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었어요.

9 미군위안부에 대한 생각

면담자 저번에 하신 말씀 중에 인종차별이 당시에도 심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 사건 같은게 혹시 있으셨나요?

구술자 그때 당시엔 그게 인종차별인 줄 몰랐죠 어릴 때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군들이 흑인과 백인, 아시아계 이런 인종차별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당시엔 인종차별이라는 걸 몰랐죠. 그때는 미군들이 흑인들하고는 잘 놀려고도 안 하고, 흑인들이 출입하는 클럽에는 안 가려고 그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그때 당시에도 인종차별이 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면담자 신문기사 같은 거 찾아보니까 오히려 백인들이 여기에서 일하던 위안부들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살해당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미군위안부 노조가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이 그 관을 가지고 가서 1번 게이트 앞에 가서 데모를 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구요.

구술자 근데 그거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면담자 그렇죠, 선생님은 어렸을 때니까 그때는.

구술자 그때 당시에도 미군들이 주로 술, 양주를 위안부들에게 많이 먹여가지고 위안부들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알콜 중독자들도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면담자 보통 선생님 같은 연배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를 깔보거나 하대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라도 나옴텐데 선생님은 그런 게 하나도 없으신 거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구술자 그때 당시에는 위안부들이 그래도 잘 사는 축이죠. 매일 현금이 들어오니까. 일반 보통 주민들은 딱히 돈이 들어올 데도 없고, 먹는 거부터 부족하잖아요. 위안부들은 일단 미군하고 생활하게 되면 미군들 PX에서

나오는 물건들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또 많이 갖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들한테도 나눠주고 하기 때문에. 먹는 거 우선 해결되지, 돈 문제도 해결되니까 그 사람들은 나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깔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사실 도와주는 입장이야, 엄밀히 따지면. 식생활을. 그런 위치였어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위치가 높아지고 하니까 몸 팔고 하는 일은 직업적으로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안 봤어요.

면담자 선생님 어렸을 때 당시의 어른들도 그 사람들을 굳이 하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구술자 못 하죠. 않았죠. 그 사람들 도움 받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생활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게 되면 집주인도 월세를 받으니까 이득이고. 서로 이득이고.

면담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집이 여러 집이 들어와 있는 형태의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미군 위안부 분들도 계셨어요?

구술자 있었어요. 그 속에서 낳은 혼혈아 애들도 있었고.

면담자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시죠?

구술자 그 아이들은 보통 19~20살까지는 같이 놀고 생활했었어요. 그 이후로는 여자에 같은 경우에는 결혼했겠지. 결혼하고 이 지역을 떠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는 잘 모르겠어요.

면담자 그래도 19살 때까지는 같이 지냈으면 되게 오랜 시간동안?

구술자 그렇죠. 학교도 같이 다녔기 때문에.

면담자 계속 친구로 같이?

구술자 그렇죠, 친구로 같이. 지금처럼 혼혈아, 다문화가정 해서 멸시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일대 일로 이름 불러가면서. 없을 때 쉽게 부를 때는 튀기라고 해요. 근데 거의 같은 친구로 똑같이 지냈지 차별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면담자 선생님 말고 다른 분들도, 혼혈아들이 너무 많았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차별이나 그런 걸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술자 없었죠. 같이 살 비벼가면서 놀았기 때문에 똑같이.

면담자 되게 다른 관점인 거 같아요. 근데 약간 부평 저 쪽 안으로, 신촌으로 들어가면 또 어떤 분들은 기지촌이었다는 과거를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구술자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정이나 여러 가지 비춰봤을 때에는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때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은 정조관념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정조관념이 많이 희박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어른들은 정조관념이 아주 강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면담자 보수적인 사회였으니까.

구술자 아주 보수적이었지.

10 부평 · 신촌 지도를 보며 한 이야기

면담자 혹시 여기에서(신촌로)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때 좀 기억나는 상점 같은 거 있으세요? 업종이 특이한?

구술자 상점이 도로변으로 쪽 있었고, 이쪽 안에는 양색시들 집들이 즐비했었지 다닥다닥.

면담자 여기가 1번 게이트인데 다 여기에 몰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클럽이나 이런 것들이.

구술자 그렇죠. 이 위에 아폴로클럽이라고 있었고.

면담자 네네, 아폴로가 있었고. 여기에 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뒷신촌인가요 선생님? 여기가 뒷신촌, 여기가 아랫신촌. 선생님이 주로 사셨던 곳은 신촌까지는 안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처음에 이주하셨던 곳이 약간 이 쪽이고 이 근방으로. 여기보다는 확실히 이 쪽이 조용하다고 해야 하나?

구술자 그렇죠 아무래도. 사건사고가 좀 덜 하죠. 미군들하고 양색시들이 많이 거주했기 때문에, 술집들도 많았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이 쪽이 많았었어요.

- 면담자 여기는 미쓰비시 사택은 어디?
- 구술자 미쓰비시 사택은 철길 따라서 가면 요즈음에 있을 거야. 지금도 헌 집으로 남아있는데 즐사택이라고 있었어요. 즐지어서 이렇게.
- 면담자 어렸을 때에는 개념이 아예 몰랐었죠?
- 구술자 그냥 사택, 사택 했죠.
- 면담자 사택 사택하고 이야기는 했었어요?
- 구술자 했었죠. 일본 사람들이 거주했던 거 하고. 일본사택이라고 그랬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런 건.
- 면담자 그래도 여기에서 살았던 원주민들이 역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인지는 하고 있었던 거네요?
- 구술자 그렇죠.
- 면담자 여기는 왜 땡땡 거리예요 선생님?
- 구술자 기차가 지나가면 땡땡땡 종을 쳐가지고 차도 건너지 마라, 사람도 건너지 마라 그게 신호잖아. 땡땡.
- 면담자 그래서 땡땡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는 그냥 앞산, 저기는 뒷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밌네요, 지명이.
- 구술자 십정동은 우물이 10개 있어서 십정동이라고 하는 거고. 십정동은 우리도 십정동이지만 열 우물이라고 해서 염전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동암역 가는 데에. 열 우물. 우물이 10개라고 해서 십, 우물 정자. 우물이 10개가 있어서 십정동. 산 넘어서는 미쓰비시 있었다고 해서 한자로 미쓰비시.
- 면담자 여기가 굴포천이 계속해서 마을을 끼고 흘렀던 거잖아요. 물이 되게 풍부했었나 봐요?
- 구술자 물이 풍부했죠. 산 위에 묘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깨끗했고.
- 면담자 집집마다 우물도 있었다고 하고.
- 구술자 집집마다 있었죠. 집집마다 우물을 파가지고 식수로 이용하고.
- 면담자 지금도 흔적이 있는 집도 있겠네요?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 구술자 근데 이 동네는 지금은 없어요. 십정동. 여기는 지금 없어요.

면담자 여기 많이 변했어요? 제가 그냥 보기에는, 자세히는 못 봤는데 집들이 낮은 편이라서.

구술자 근데 여기 집들은 약간 개량·보수만 한 거지, 형태는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거기가 그런 집이 많고, 많이 재개발 되어 가지고 빌라 이런 게 많이 들어섰죠.

면담자 여기도 선생님 택인데 되게 길어요. 길고, 이런 방에 턱이 높아가지고 올라가는 게 특이한, 일반적이지는 않은 구조잖아요.

구술자 구들장으로 있었죠, 구들장. 연탄 때는. 나무 떼고, 연탄 때는 구들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보일러로 하니까.

면담자 그래서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의 구조가 남아있는 거 같아요.

구술자 큰 뼈대는 남아있어요.

11 마지막 이야기

면담자 왜 안 떠나셨어요 선생님?

구술자 글썄 그렇게 물어보면 (웃음). 살다보니까 아는 사람이 여기에 있고, 특별히 내 직업하고도. 글썄.

면담자 보통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하면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고, 더 좋은 동네로 가고 싶고. 특히 저희 아버님 세대이신 거잖아요. 그 분들이 딱 그 생각을 하시잖아요.

구술자 근데 제가 70 거의 다 된 나이에서 가만히 돌아보면 내 생활이 안정되었달까, 변화가 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그냥 그대로 살지 않았나. 내 생활이 변화가 있었고, 안정되지 않고 큰 변화가 있었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겠죠. 그렇지만 큰 변화없이 평범한 시민으로 살다보니까 그랬던 거 같아요.

면담자 너무 좋으세요. 얼굴도 평안해 보이시고 (웃음).

구술자 고맙습니다 (웃음).



(१५३)

생활사 I

성낙필(1935)

인천 송림동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 입학 무렵에 신촌으로 이주하여 성장하였다. 6·25전쟁 발발 시에는 부평을 점령한 인민군에게 동원된 경험도 있으며 피난 시 부모님 및 형제들과 헤어져 부산으로 갔다가 1968년 다시 부평으로 돌아와서 계속 거주하였다. 부평 3동 성당 건립의 조력자이자 부평 신촌 지역의 다양한 상황들을 해결하는 데 늘 앞장서는 등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동력삼아 활동하고 있다.

(144)

"그 동네가 몇 가구 안돼요 거기도 한 이십 가구 될까 열댓 가구 될까 있었고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봐도 보통 우리나라 촌처럼 감나무도 심고 전부 다 이렇게... 동네에서 있었고 그 담에는 동네 있는데가 요기 지금 무슨 여학교 앞에 고만한 동네 있었고 여기 신촌 있었고 동네 진짜 오래된 동네는 여기 십정동 동네 오래된 동네야 그거 있었고 이 근처 사람 없었어요"

"옆에 인민군이 하나 서 있어요. 그래서 서 가지고 (옆을 쳐다보며) 그 친구보고 이렇게 키를 재보니깐 나보다 작아! (옆을 다시 한 번 쳐다보며) 이렇게 보니깐 나보다 작아, 키가! 그러고선 가만히 서 있으니깐 조금 있으니깐 여름인데도 이슬 내리고 그러잖아? 춥더라우 그냥! 아주 추워요! 그래 덜덜 떨고 하더니. 이 친구가 울어. 그래 "왜 우냐?" 했더니, 학교 다니다 왔대! 학년 물어보니 나하고 같은 학년이야. 그러더니 이 친구가 어머니 생각난다고 우는 거야! 말하자면 이게 점령군인데 이걸 불쌍하게 봐줘야 될지, 어떻게 봐줘야 될지 (손을 좌우로 흔들며) 모르겠더라고."

"지금 거기 희망천이라고 그러는데 (탱크가) 여섯(6) 대가 나란히 있었어 근데 어린애는 어린애야 그걸 또 구경 간다고 갔잖아 난 그게 얼마나 두꺼운가 의심스러웠던 거야 그게 근데 얼마나 두꺼운가 뚫어진 자리는 고개를 숙여 보듯이 두께를 볼 수 있을거 아니야... 양손을 위쪽으로 올리며 맞으니깐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나오다가 전부 들러붙어 죽었어 거기 습포가 다 달라붙으니깐 그 안에 있는 포탄이 다 터지니깐. 근데 좀 보니깐 시체가 탱크 위에 붙어있어."

"죽은 사람 또 희한하지 그걸 며칠 있으니깐 시큼털털한 냄새가 나. 그러니 어른들이 그러는 거야 "아 이거 치워야겠다 시체 썩은 거다" 그러니깐 전부들 나가서 이게 거적 같은 거 하나 놓고선 다리 양쪽에 들고선 하나 옮겨 놓구들구 치우는 건데 그걸 어디다 많이 통째로 묻었냐하면 거기 길 건너 산에 경인도로 쪽에 산에다가 두 구덩이 묻었거든"

"철로 하나 차이 인데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나중에 클럽을 많고 미군들 많이 들끓을 때도 이쪽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딴 동네 같았어 이쪽은. 확실확실했고 여기서 시끄러운 데가 여기하고 신촌하고 산곡동, 산곡동이 백마장이 아주 요란 했어요"

생활사 2

강오식(1944)

1944년 군산 출신으로 1964년 경 인천으로 이주하여 씨맨스클럽과 빅토리
바에 연주활동을 했다. 군예대에서 각종 쇼와 공연에 참여했다. 제대 후
성광음악학원 운영, 유니버설 클럽의 악단의 밴드마스터로서 활동하였다.
음악활동 외에도 수석, 서예 등에도 실력이 있어, 인천시 원로작가 초대전에
출품하기도 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음악을 기록하는 일과 더불어
여전히 현역으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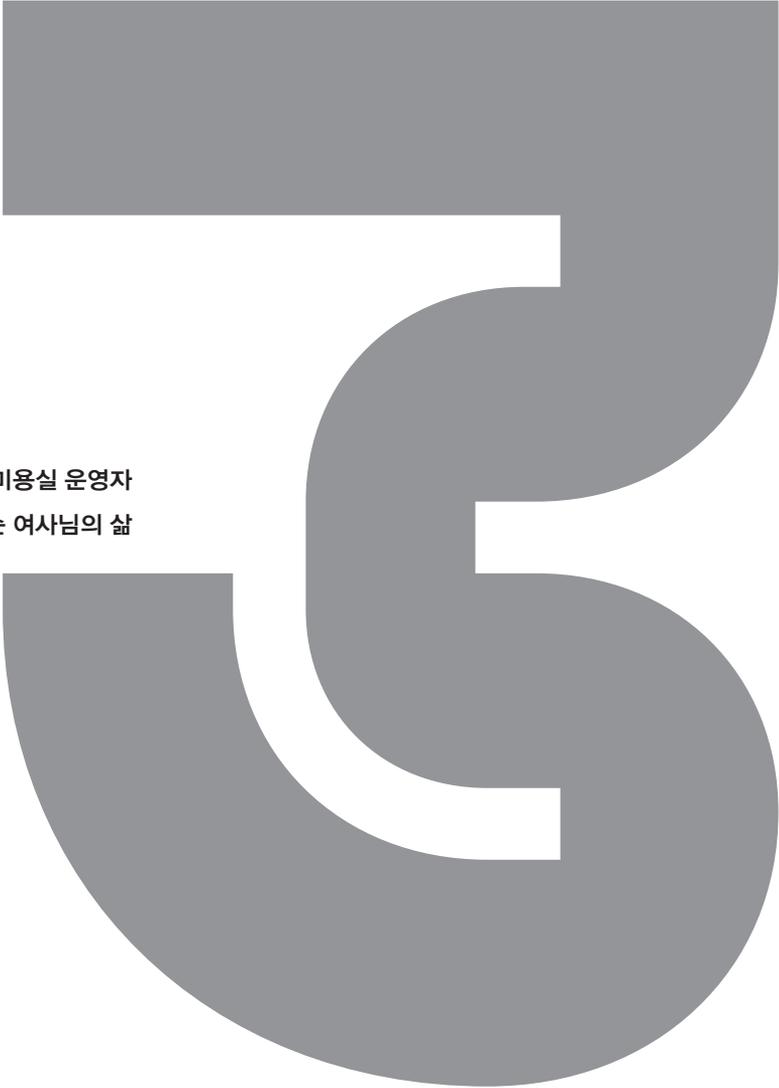
"시장에 백만불 바(Bar)라고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명신당 사거리쪽 거기 앞에 조금 더 저쪽으로 가 백마장쪽으로 오십 미터나 백 미터 가나 거기에 이층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밑으로 가면 춘희살롱(Salon)도 있고 또 저 밑으로 가면 막걸리 바(Bar)가 하나있었고 그때는 다 바(Bar)라고 그랬어 뭐 빅토리 바(Victory Bar)니 무슨..."

"가로수바(Bar)가 그 옆에 있고 가로수바(Bar)가 지금어디냐면 동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으로 지금은 큰 빌딩섰죠 거기가 가로수바(Bar)이고 그 맞은편이 공공칠(007) 바(Bar)가 있었어"

"다른 데서 살다가도 삼릉 거기 모여요 거기 이제 모여서 그 하우스밴드(House Band)라고 그래서, 닭장차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걸 타고 뭐 용주골이나 파주나 이런 데로 동두천도 그런 데로 공연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파티(Party)같은 데 뭐 때에 따라서는 가고 뷔페(Buffer)하는데도 가서 음악도 해주고 그런..."

"내가 여기 올라왔을 때가 육십 한 사오(1964~1965)년 되었을 거예요. 그 무렵인데 처음에 와서 일 자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랬는데 여기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성모병원 앞에 거기가 전부 논이었거든요? 그런데 옛날 집들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양손을 번갈아 가며 앞으로 흔들며) 논으로 이렇게 가서. 그러니깐 그게 농가 주택이지. 거기서 내가 방을 하나 하숙해서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동네에 그룹(Group) 연습을 하는 애들을 몇 명 만났어요. 네(4) 명이 하더라고요. 그게 이름은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는 개 우영이라고 우영이가 드럼을 치고. 하우영이다! 하우영이라는 그 친구가 드럼(Drum)을 치고 문창성이라는 친구가 기타(Guitar)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냐? 개, 개는 잊어버렸네, 안 만나가지고. 개도 기타를 치고 기타가 셋(3)이었어요. 그러니깐 나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개네들이 연습하는데 개네들은 보컬(Vocal) 위주로 하는데 기타 기량이 완전 아마추어야. 하기는 해도. 그래서 내가 거기서 끼어서 나는 경험이 과거 조금 있으니까 그 멤버(Member)를 활성화해서 인천에 신포동에 씨맨스클럽(Sea Men's Club)이라고 양키클럽(Yankee Club)들이 있어요."

생활사 3



청파 미용실 운영자
한정순 여사님의 삶

참고자료

정진철, 김현석, 정연학, 하수민 저, 『부평역사박물관 학술총서 2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 2015

(148)

한정순 여사님은 부평 신촌 원주민 2세대인 임종우의 모친이다. 신촌 이주 전에는 작전동에 거주하였고 6·25전쟁 휴전 이후 스무 살이 되던 해에 이종사촌의 소개로 중매결혼을 하여 부평 신촌 284번지에 정착하였다. 임종우 선생님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이후 신촌으로 돌아와 애스컴 기지에서 약품 창고지기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시집 온 초기에는 시어머니와 할머님을 모시고 살았고 그리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다. 그러다 2층집에 서울사람이 내려와 미용실을 차렸고 그때 장사하는 것을 보며 흥미를 갖게 된다. 이후 어깨너머로 미용일을 배워 청파 미용실을 차리게 된 것이다. 초기에는 커트 기술을 배우지 못해 미용사를 한 명 고용하여 그 사람이 커트를 하고 한정순 여사는 고데기만 맡았다고 한다. 1958년 큰아들을 낳고 서울 남산 밑에 있는 정화미용학교에 다니며 미용기술시험을 치루고 1962년 서울특별시 면허를 취득한다.

1960년 초기 신촌에는 10개 정도의 미용실이 운영되고 있었고 제일 오래된 곳은 경인미용실이었다고 한다. 당시 한정순 여사가 운영하던 청파미용실은 서울의 최신 머리스타일을 바로바로 도입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었고, 신촌 내에서도 유행이 빨리 돌았기 때문에 서울 명동에서 신촌의 유행 스타일을 배워가기도 했다고 한다. 미용실이 점점 잘 되서 나중에는 두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한정순 여사까지 세 명이 일했고 하루 손님은 60~70명 정도였다. 파마 가격은 만원 정도로, 임종우에 따르면 "파마 한번에 땅 한 평은 살 정도"의 돈이었으니 당시로써는 큰 금액이었다.

당시 미용실 손님은 대부분 근처에서 일하는 양색시들이었다. 한정순의 구술에 의하면 부평 신촌의 양색시들은 외지에서 온 경우가 다수였고 단골을 정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들은 매일 고대기로 스타일을 냈는데, 당시 제일 유행했던 스타일은 올림머리와 상고머리였다. 고데기는 한 번에 이천 원 정도 했고 양색시들이 부담했다고 한다. 포주들의 감시 때문에 청파미용실은 양색시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의 편지를 주고받는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한정순 여사는 애스컴 해체 이후인 1974년 신촌의 청파미용실을 정리하고 서울 대방동에 미용실을 차린다. 이후 1976~1977까지 대방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신촌으로 돌아와 의상실을 운영했고 1983년 부개동으로 가족이 모두 이주하면서 신촌을 떠나게 된다.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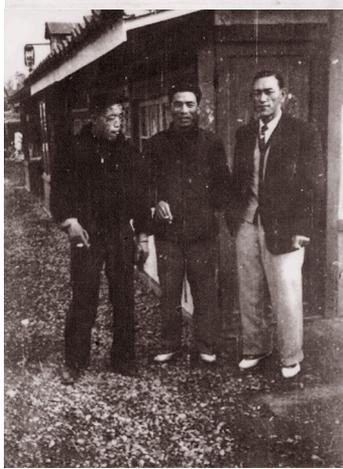
미용사면허증

본적 경기도
성명 **韓 貞 順**
사기 1934년 3월 12일생

이용사 및 미용사법 시행규칙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사람에
게 미용사의 면허증을 교부함

사기 1962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청 **윤 태 일**
서울특별시 미용사면허증 제 115호



생활사 4

이연옥(1954)

1986년에 부평 신촌으로 이주하여 한 자리에 터를 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부평 신촌에서 두 아이를 낳고 이웃과 어울리며 복작대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곳은 기지촌이나 조병창으로 요약되는 도시이기보다 자신의 삶이 뿌리를 박고 피어나는 아름다운 터전이다.

"우리가 왔을 때는 이미 10년 전쯤에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은 거의 이주를 하시고 이제 일반 분들이 많이 사시고. 하여튼 간 좋았어요... 요 앞마당에다가 빨간 다라이 놓고 여기가 풀장이다. (웃음)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 꿈이 컸죠. 그럼 거기서 수영, 애네들은 엄청 행복해 했고 자기들이 그런 걸 한다는 거 자체를 너무 즐거웠고. 막 지렁이에다가 소금 뿌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저기 분꽃이 많았는데 분꽃 귀걸이 그것도 해주고..."

"여기 이사와서 계속 집 대문이 옆 골목으로 돌아가서 작은 그런 문이었어요. 그런데 새 대문을 앞으로 달게 된거야. 그 문도 얼마나 고르고 골랐는지. 큰 대문을 달고 나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을수가 없어. 그걸 계속 왔다갔다 하고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그걸 좋아했는지 몰라"

"나래네, 은아네, 유씨 아줌마네, 뒷집은 인이네, 독립군 아저씨, 김치공장, 이화오토바이 사장님... 다 이웃들이었어요. 이화오토바이 사장님은 이제 가게를 안 하셔서 내가 그 물건들 다 모아다 놔서 너무 아까워서. 다 시간이 서러있는 거잖아요."

"88부대 담 이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새벽에 깨울 필요가 없었다니까.

기상나팔소리 때문에 그거 듣고 깨는 거야, 우리 큰애가 학교 들어가자마자 내가 나의 자랑 나의 집 그래 갖고 에세이를 하나 써가지고 올린거야 지네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나는 나를 낳은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나의 이런 집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런 걸 다 쓴 거야 애가"

"어렸을 때 애들한테 "야 이거 세느강이야. 눈 감고 코 막아" 막 (웃음) 우리 화실에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한테도 그 뒷문 열어놓고 "아우 선생님 냄새나요" 이러면 "야 이거 세느강 흘러가는 소리 들리냐 너희들? 잘 들어봐" 막 이랬었는데 (웃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그 아이들하고 같이 공통의 기억이고 공통의 추억이라는 거 그런 게 줄어들잖아요. 다 개인적인 그런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때 공부했던 애가 얼마 있다 결혼한다는데 "선생님 그때 그 갈탄 난로 어디 있어요?" 그러구 찾더라니까."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
기억지도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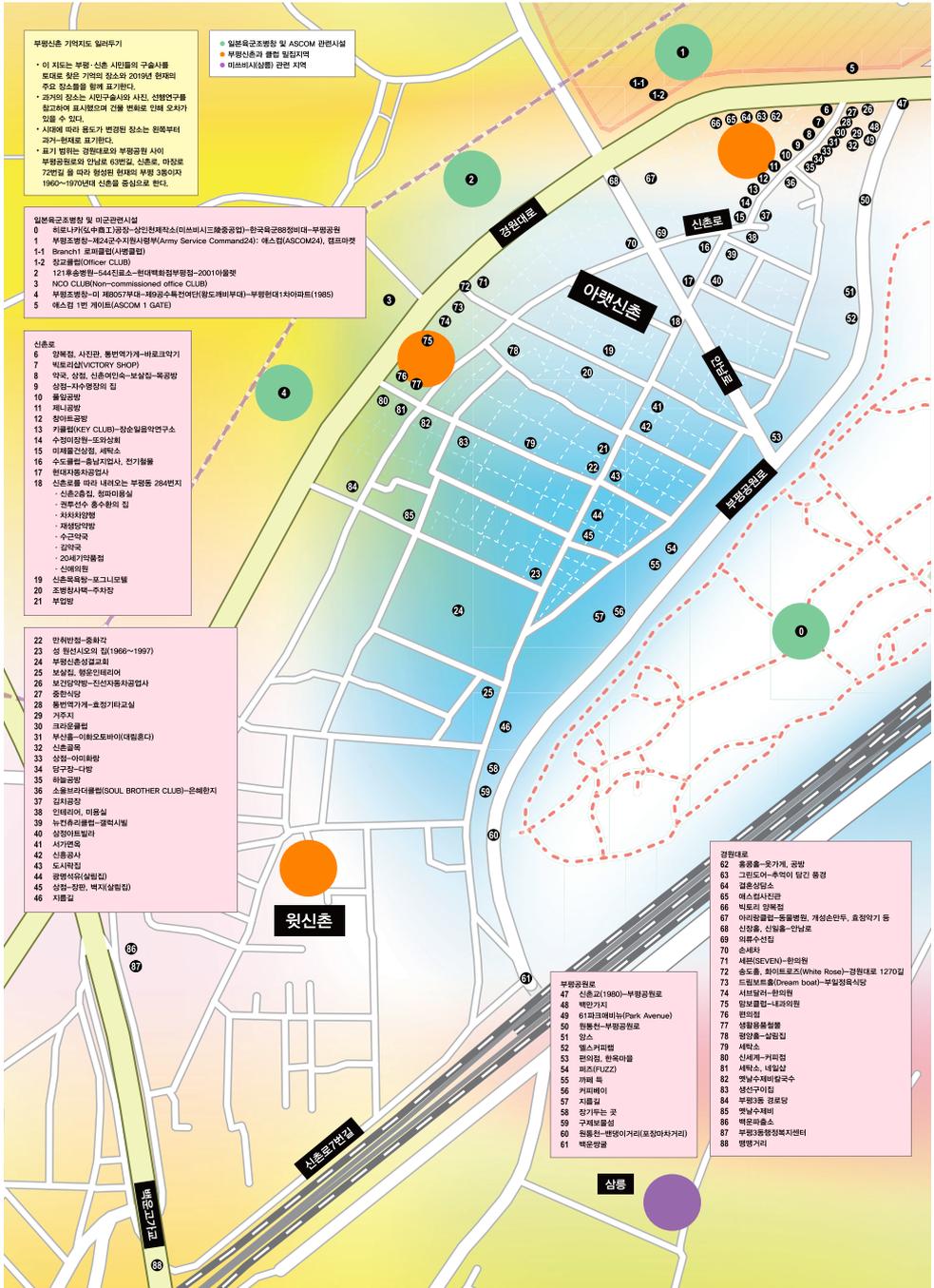
- 디자인: 김규호
- 리서치 및 협력기획: 권효진

부평·신촌은 부평구 전체의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사를 지닌 곳이다. 너른 평야였던 땅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육군조병창이 되면서 사람들이 사는 새로운(新) 마을(村)로 조성되었고 해방 직후 1945년 주한미육군병참본부인 애스컴(ASCOM)이 들어서며 기지촌화 된다. 1973년 공식적으로 애스컴이 해체되고 부평·신촌은 부평수출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채워졌고, 같은 해 현 부평공원 자리에 주둔했던 한국군 88정비부대가 철수한 다음에야 서서히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른 것이다.

도시의 역사적인 부침 속에서 시대에 따른 변화를 겪어 왔고 땅의 쓰임에 따라 도시민들의 삶의 형태도 결정되어 왔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남아 있는 것은 그곳에서 삶을 꾸려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의 기억일 것이다.

2019 애스컴시티프로젝트의 네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부평·신촌에 대한 기록들과 지난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시민들의 기억을 활용하여 도시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지도를 제작했다.

군수공장과 기지촌, 노동자들의 삶이 담긴 부평·신촌의 역사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 역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도 부지런히 삶을 일궈온 사람들의 존재이다. 이 지도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도시의 과거와 땅의 기억을 드러내고 동시에 도시의 현재를 담아 변천사를 살핍으로써 현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한다.



부평신촌 가역지도 일러두기

- 이 지도는 부평·신촌 시민들의 구성사를 확대해 설계가역의 중심과 2019년 현재의 주요 강소를 함께 표기한다.
- 과거의 장소는 시민구술사와 사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표시했으며 건물 번호로 인해 오차가 있을 수 있다.
- 사태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장소는 왼쪽부터 과거-현재로 표기한다.
- 표기 기준: 경향신문의 부평발전 시이 부평발전위원회 안내로 63번길, 신촌로, 마장로 72번길 등 따라 향산면 현재의 부평 3동이자 1960~1970년대 신촌읍 중심지로 한다.

- 일본육군부대청 및 ASCOM 관현시설
- 부평신촌과 결합 발달지역
- 미브(비사정함) 관련 지역

일본육군부대청 및 미군관련시설

- 0 히로니카(日守)중공고(중공-상인한체학소)이쓰비시(日艦중공점)-한국육군88병영(부평공점)
- 1 부평포항청-제2공수지원사령부(Army Service Command24)-해군경(ASCOM24), 캠프라퍼
- 1.1 Branch1 로비클럽(사명클럽)
- 1.2 장교클럽(OFFICE CLUB)
- 2 12부평병원-544신촌소-원대병원(부평청-2001아울렛)
- 3 NCO CLUB(Non-commissioned office CLUB)
- 4 부평포항청-이 제8057부대-제9공수특전여단(황도계대부대)-부평대1차아파트(1985)
- 5 애스컴 1번 게이트(ASCOM 1 GATE)

신촌로

- 6 양복점, 사진관, 흥반역가게-비포크요기
- 7 웨스턴(ROYALTY)점
- 8 약국, 약방, 신촌어안수-보살집-육경방
- 9 상점-자수명점의 집
- 10 물약방
- 11 제사당방
- 12 장미투광방
- 13 키클럽(KEY CLUB)-장승실용학연구소
- 14 수당미당방-포도밭집
- 15 미제물건상점, 세탁소
- 16 수도물집-홍남지점사, 전기물품
- 17 한려자동차점점사
- 18 신촌로에 따라 내려오는 부평동 28번지
 - 신촌소중심, 향미이용실
 - 관부신수 중수향의 집
 - 신촌어안수
 - 재성달약방
 - 수근약국
 - 김만국
 - 오대기약물점
 - 신애의원
- 19 신촌목욕탕-포그노호텔
- 20 조양당사택-주자당
- 21 부업방

윗신촌

- 22 만우만우-홍화기
- 23 설 원스(설)빌(1966~1997)
- 24 부평신촌성당교회
- 25 보살집, 향암인테리어
- 26 보인당(방)-친선자동차점점사
- 27 영환식당
- 28 흥반역가게-홍장기타교실
- 29 거주지
- 30 크라운클럽
- 31 부신동-이화오도비(대일축타)
- 32 신촌골목
- 33 상점-사치방
- 34 영구장-다방
- 35 하늘광장
- 36 소울브라더클럽(SOUL BROTHER CLUB)-온혜한지
- 37 김차광장
- 38 인테리어, 미용실
- 39 휴먼유리클럽-결핵시절
- 40 살랑이방발라
- 41 서가연옥
- 42 신촌공사
- 43 도시락집
- 44 광명성당(살랑집)
- 45 상점-광명, 벽지(살랑집)
- 46 지용길

경향대로

- 62 흥동출-웃기게, 공방
- 63 크로아어-축이이 달진 불경
- 64 결혼상당소
- 65 애스컴사건관
- 66 미용실, 양복방
- 67 아라왕클럽-홍물방, 개성순만우, 효정약기 등
- 68 신당출, 신왕출-안남로
- 69 미용수신점
- 70 순세사
- 71 세븐(SEVEN)-한의원
- 72 송도출, 화이트로즈(White Rose)-경향대로 1270길
- 73 드림하우스(Dream house)-부평대1차아파트
- 74 사보탈러-한의원
- 75 알파클럽-내의원
- 76 편의점
- 77 생활용품상점
- 78 왕양출-살랑집
- 79 세차소
- 80 신세탁-귀피점
- 81 세차소, 내일상
- 82 영남수제과점점점
- 83 영남수제과
- 84 부평3동 경복당
- 85 영남수제과
- 86 미용실, 세차소
- 87 부평대1차아파트
- 88 향정약기

부평공점

- 47 신촌교(1980)-부평공점
- 48 백안가치
- 49 이대(대)버스터미널(Park Avenue)
- 50 알파출-부평공점
- 51 영스
- 52 엘스커미방
- 53 편의점, 한복미용
- 54 피자(FUZZ)
- 55 카페 북
- 56 카페미
- 57 지용길
- 58 장기부는 곳
- 59 구제복출점
- 60 녹음실-백안가치(포장미차가)
- 61 백안양광

부록: 부평·신촌 도시시민연표

부평 신촌에 관한 선행 연구 및 2019애스컴 프로젝트를 통해 조사된 신촌 시민들의 삶을 한국 근현대사와 부평 도시 연표의 주요 내용과 함께 구성한 것이다.

- 1899 · 경인철도 개설, 부평역 설치
- 1907 · 일제 국유미간지이용법 제정
- 1909~1910 · 일제 경기도 부평군 일부 토지조사 실시
- 1914 · 부천군 부내면 대정리로 편제
- 1918 · 김군희 출생(창천체육회, 조기회)
- 1920 · 부평 산곡동 일대 부평 연습장 조성
· 부평수리조합 설치 관개시설 구축
· 이분위 선친 인천 이주, 부평 정착 이후 복화루 개업
· 이석재 출생
· 안상재 출생(명신당 운영자)
- 1921 · 오순환 출생(창천체육회, 조기회)
- 1923 · 황장연 출생(고려재건당)
- 1926 · 심일운 출생(애스컴 근무)
- 1934 · 동양제강 조성
· 부평금속공업사 조성
- 1935 · 성낙필 출생(부평·신촌 원로)
· 김도석 출생(애스컴사진관 운영)
· 박민서 모친 부평 신촌이주, 보건당 약방 개업
- 1937 · 부평은광 광업권 등록 및 채굴사업 시작
· 국산자동차공장 조성
· 부평 연와煉瓦 조성
· 안상재 부평 이주, 부평극장 옆에 거주하며 세공기술 연마
· 이석재, 조부모와 함께 신촌으로 이주
- 1938 · 1938년 히로나카 상공(弘中商工) 공장 착공
· 학교근로보국대 실시
· 히로나카 상공, 미쓰비시(三菱·삼릉) 제강이 인수

- 1939
 - 히로나카 상공 공장 완공
 - 일본인천육군조병창 조성건설계획 수립 및 착수
 - (제1제조소, 평양병기제조소, 조선기계제작소 인천공장 감독)
 - 디젤자동차 공장 조성, 인천제재주식회사 등 2천여만 원 부평평야 투자
 - 이연형, 히로나카 상공 직공으로 근무: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조선독립당 전달
- 1940
 - 부천군에서 분리 후 인천 부로 편입, 소화정으로 개칭
- 1940
 - 일본육군조병창 조성 완료
 - 산곡동 근로자주택 형성
 - 오순환, 김군희, 정은태, 이광운, 이선영 등과 항일결사조직 창천체육회, 조기회 조직
 - 오순환과 김군희 등 1941년 10월 거사를 목표로, 폭발물 제조방법을 배우기 위해 일본육군조병창 위장 취업
 - 이석재, 조병창 근무(~1945)
 - 인천소화동공립심상소학교 개교
- 1941.5.5.
 - 일본육군조병창 개창식 거행(총검공장, 견습공 연습공장 완공)
 - 인천소화동공립심상소학교 소화동공립국민학교로 이름 변경
- 1942
 - 이연형, 일본 경찰에 체포
 - 성낙필 신촌으로 이주
 - 한상배(부평·신촌 토박이) 부친 결혼
- 1943
 - 황장연, 일본육군조병창에서 '고려재건당' 조직, 임시정부 연락원에게 권총 3정과 탄환 50발을 전달하다 적발
 - 오순환 일본 경찰에 체포
 - 이광희 출생
- 1944
 - 황장연 부평조병창에서 무기를 몰래 빼내 임시정부 신교선에게 인계
 - 오순환 징역2년, 김군희는 징역1년 연도(치안유지법 위반) 서대문형무소 수감
 - 인천중학, 인천상업, 인천공업, 인천고녀, 인천소화고녀, 경성공업 등 6개 중고등학생 360명 일본육군조병창에 입창
 - 강오식(음악가) 출생
 - 차차차오남매 차경수 부친 신촌에서 결혼
- 1945.8.15.
 - 광복

- 1945.9.
 - 9월 인천항으로 미군 제24군단 상륙, 미제24군수지원사령부(애스컴, Army Support Command) 부평·신촌 일본육군조명창 시설 접수 및 주둔
 - 황장연 조선국법회의에서 치안유지법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 받음.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출옥
 - 소화동공립 국민 학교 인천부평동 국민 학교로 변경
 - 이호현의 선친, 경기도 안성에서 부평으로 이주 후 양복점 개업
 - 임덕용, 남창상회(남창문고) 개업
- 1946
 - 1946년 동리명 개정
 - 인천 부 고시에 의해 부평동이 됨
 - 인천부평서초등학교 개교
 - 이호현 출생
 - 이분위 출생(북화루 2대 경영자)
 - 미군정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 공포
- 1947
 - 1947년 '공창제도 등 폐지령' 공포
 - 장흥식, 가족들과 부평신촌 이주
- 1948
 -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당선
 - 성낙필 부평동초등학교 졸업
 - 김삼순(레이디버즈) 출생, 부평동 38번지
- 1949
 -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공포 인천부, 인천시로 개칭
 - 김중용(음악인) 출생
- 1950.6.25.
 -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 1950.6.27.
 - 6월 27일 일본육군조명창 주둔 미군 철수 시작
- 1950.7.6.
 - 7월 6일 원통이고개 양민학살 사건 발발
- 1950.9.15.
 -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 이호현의 누나, 전쟁으로 인해 사망, 이호현 손가락 부상
 - 이석재, 대구로 피난
 - 김삼순 가족 피난, 백마장 입구 38번지 정착
 - 성낙필 서울공업중학교 입학 15일 후 전쟁 발발
 - 김영식(신촌주민), 인천 송림동 출생
- 1950.9.17.
 - 9월 17일 원통이고개 전투 발발

- 1951 · 1.4 후퇴, 피난 시민들 귀환 시작
- 1951 · 성낙필 부산으로 피난
- 이석재, 신촌으로 귀환
- 김삼순 가족 부평으로 귀환
- 김영식 신촌으로 이주
- 2월 10일 인천 재수복
- 미군 일본육군조병창 자리에 보급부대 재설치
- 1952 · 제2대 대통령 이승만 당선
- 지방자치제 중단
- 1953.4.26. · 휴전반대 북진통일 성토대회 개최(국민회, 대한청년단, 부인회 등)
- 1953 ·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
- 부평포로수용소 반공포로 석방요구 시위, 6월 18일 560명 탈출, 860명 잔류
- 이석재, 애스컴 취직
- 성낙필 한영고등학교 입학
- 1954 · 부평 애스컴 중국인포로수용시설 건립
- 이석재, 부평3동 동사무소 임시직원 근무
- 1955 · 김국환, 상이군인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화랑농장 조성
- 이본위 부평화교학교 재학(5,6학년 인천화교학교 재학)
- 차차차오남매 차경수 모친 양품점 운영(~1980년도)
- 1956 · 5월 15일 제3대 대통령 이승만 당선
- 인천지방 미군 종업원 인천지구자유노동조합 결성
- 성낙필 부산대학교 영문학과 진학
- 1957 · 2월 4일 현 부평 3동, 부평2 동에서 분동
- 성낙필 군학보병 입대
- 임중우 모친 한정순 여사 청파미용실 개업
- 1959 · 김도석 부평·신촌 이주 애스컴 사진관 개업
- 부평지구 노동조합 설립(클럽종사자 300명 이상)
- 1960 · 1960년 3월 15일 제5대 정부통령 부정선거 이승만 당선
- 4.19 혁명
- 미군종업원노조 전국 주요도시에서 한미행정협정 체결촉구

-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 부평 난민철거촌 40여 세대 무허가주택 철거에 대한 항의로
관계국과 시청 난입
- 임종우(부평·신촌 원주민) 출생
- 차차차오남매 활동 시작
- 1961
 - 5.16 군사쿠데타
 - 인천지구 미군종업원 노동조합, 애스컴지구미군노동조합 한미행정협정과
종업원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서 제출
 - 2월 13일 미군에 대한 최초 노동쟁의 발생 신고,
 - 2월 19일 서울, 인천, 부평지구 조합원 5000여명 쫓겨대회 개최
 - 고영효 애스컴지구 미군노조 부위원장
 - 4월 24일 주한미군사령부 미군종업원에 대한 임금인상(평균 40%) 동의
 - 성낙필 부산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 혁명위 노동쟁의 금지령 공포
 - 정당 및 사회단체, 노조해체령 공포
 - 관광사업진흥법 제정, 공포
 - 위안부 등록제 실시
 -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정, 시행(2004 폐지)
- 1962
 -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 부평공설시장 개설
 - 임종우의 모친 한정순 여사 미용사면허증 취득
- 1963
 - 제5대 대통령 박정희 당선, 제3공화국 출범
 - 부평토지구획정리사업 제2공구 시행
 - 강오식 고향 군산에서 고등학교 중퇴 후 기타 연구소 운영
 - 한정철(부일식당 운영) 카츄샤 신분으로 신촌 이주
- 1964
 - 애스컴, 미육군애스컴보급창으로 개칭(U.S Army Depot)
 - 강오식 군산 수도클럽(Club)에서 연주 활동 시작
- 1965
 - 공업단지 심의위원회, 부평지역 수출공단 지정
 - 인천수출산업공단 정식 인가(효성동, 갈산동, 작전동 일대)
 - 이호현 성광고등학교 졸업

- 강오식 고향 군산에서 부천으로 상경, 삼릉에서 기타리스트 홍철수를 만남
- 1965 · 김삼순 전수학교(현 명신여고)입학 형부 김윤옥(토미김)으로부터 드림 수련
- 한정철 제대
- 1966 ·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공표
- 부평공업단지 기공식
- 강오식 군입대, 군악대로 활동
- 1967 · 제6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당선
- 경인고속도로 착공
- 영풍공업 은광 인수
- 부평문화회관 건립기공식
- 1968 · 구제실시로 인천시 북구 부평3동으로 개칭
- 경인고속도로 개통(제1차 준공)
- 수출산업공단 4단지 조성
- 푸에블로호(Pueblo號) 사건 발생
- 이광희, 부평 이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부평지부 취직
- 성낙필 부산에서 인천으로 귀환
- 위안부 1백여 명 시위(9.25)
- 홍수환(권투선수) 부평·신촌으로 이주
- 1969 · 경인고속도로 제2차 개통
- 부평지구 한미친선회의 개최
- 김삼순 미8군 영내 클럽 연주활동 시작
- 차차차오남매 해체
- 홍수환 프로권투 입문
- 1970 · 새마을 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 김중용 5인조 캄보밴드 활동 시작
- 이호현 명동상회 개업(~1975)
- 김삼순 레이디버즈 활동을 위해 서울 이주, 전국 활동
- 1971 · 제7대 대통령선거 박정희 당선, 신민당·학생 부정선거 규탄
- 미121후송병원, 서울 용산 미8군 영내로 이전개원
- 부평미군부대 이전 및 폐쇄 작업 시작

- 박정희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언 발표
- 1972 · 미8군 지원업무 기능별 분화 추진
- 강오식 성광음악학원 개업(기타, 드럼, 피아노 레슨)
- 홍수환 뱀텀급 동양챔피언
- 1973 · 애스컴(ASCOM) 공식 해체
- 안상재 부평라이온스클럽 운영, 부평공단 유치 논의
- 강오식 음악학원 폐업 후 신신카바레에서 연주활동
- 김삼순 레이디버즈 탈퇴
- 1974 · '신촌로' 명칭 지정
- 동암역 개통
- 부평중학교 민족주체학교 개설
- 강오식 유니버설(Universal) 클럽 외 전국 연주활동
- 청파미용실 서울 대방동으로 이전
- 1977 · 부평3동 십정동, 부평동으로 명칭 변경
- 오순환 대통령 표창 수상
- 청파미용실 한정순 신촌으로 귀환
- 1978 · 부평백화점 개점
- 대도백화점 개점
- 이호현 가구점 개업
- 1979 · 박정희 피살, 전국 비상계엄, 12월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선출
- 이종숙 부평·신촌 이주, 송도홀 인수 운영
- 이연옥, 소병순 부평·신촌 이주
- 강오식 원맨(One Man) 밴드(Band) 활동
- 부평로지하도상가 설립
- 1980 · 5월 18일 광주민주항쟁
- 제11대 대통령 전두환 선출(제5공화국)
- 이본위 복화루 규모 축소
- 홍수환 권투선수 은퇴
- 신촌교 완공
- 두두회 결성(강오식, 김수환, 김동찬 외 음악인들의 모임)

- 1981 · 인천시 북구 부평3동으로 개칭
- 1982 · 산곡동 한양아파트 건립
· 한정철 부일식당, 부일정육점 개업
- 1983 · 청파미용실 한정순 부개동으로 이주
- 1984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민주화 투쟁
· 백운역 개통
· 산곡동 현대아파트 분양광고 신문게재, 1, 2차 분양 시작
- 1985 · 노동조합결성투쟁, 노동조합민주화투쟁, 임금인상투쟁, 근로조건개선투쟁 등 발생
(대성목재, 영창악기, 신흥목재, 서울금속, 한일스텐레스 등)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결성
· 산곡동 현대아파트 3차 분양 시작
· 강오식 부천에서 살롱과 버라이어티쇼 클럽 운영
- 1986 · 인천지역노동자연맹 결성
· 5월 3일 인천항쟁
· 임덕용 작고
· 소병순, 이연옥 부평·신촌 이주
- 1987 · 6월 10일 민주항쟁
· 제13대 대통령 선거, 노태우 당선
· 인천지역 6월 항쟁 부평역에서 시작되어 백마장 입구까지 2,000여명의 시위대로 시작하여 공단 근로자까지 합세하여 7,000여명이 동참. 19일 부평과 동인천 집결 시민 20,000여명 호헌철폐와 최루탄추방을 위한 인천시민대회' 개최
· 부평광산 폐광
· 현대백화점 부평점 개점
- 1988 · 제24회 서울올림픽 개막
- 1989 · 강오식 부천에서 살롱과 버라이어티쇼 클럽 폐업
· 소병순, 이연옥 딸 소리 출생
- 1990 · 오순환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 1990 · 굴포천(원통천) 복개
- 1991 · 1991년 현대백화점 부평점 재개점
- 1991 · 보건당 약방 폐업

- 1992
 - 제14대 대통령 선거 김영삼 당선
 - 계양산살리기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 출범
- 1993
 - 김군희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 1994
 - 1994년 친일파 송병준 후손 부평지역 조상땅(캠프마켓 부지) 찾기 소송 제기
(증거불충분 패소 및 기각)
- 1995
 - 인천시 부평 구 부평3동으로 구명칭 변경
- 1996
 - 부평미군기지 대책을 위한 산곡동, 부평동 주민모임
 - '우리 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선포, 10만인 서명운동 시작
 - 인간띠 잇기 행사 경찰 봉쇄, 항의하는 시민과 학생 연행
 -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발족
 - 미군부대 정문앞 토요 집회 시작
 - 부개역 개통
- 1997
 -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당선
 - 외환위기(IMF)
 - 부평미군부대 공원화 추진 시민협의회 발족
 - 부평미군부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 시민 걷기 대회 개최
 - 부평풍물대축제 개최(연간)
 - 이호현 가구점 폐업
- 1999
 - 99인천시민걷기대회 개최(복개천 주차장)
 - 강오식 연주인 단체 일월 결성
- 2000
 - 미군기지 반환운동, 부평미군기지 옛 정문 앞 24시간 천막농성(674일)
 - 00인천시민걷기대회 개최(복개천 주차장)
- 2001
 - 굴포천 살리기 시민모임 창립식 개최
 - 부평 미군기지 반환, 지역 주민들과 인간띠 잇기 행사
- 2002
 - 인천시민회의 '부평미군기지 반환의 해' 선포
 - 부평공원 개장
 - 부평공원로 개설
 -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체결(2008년 캠프마켓 평택이전 협의)
 - 안남로 개설(신장로 등 미군 클럽이 이 안에 있었음)
 - 송병준 후손 '원인무료로 인한 소유권 등기말소' 소송 제기

2019 에스컴시티프로젝트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

기획·구술채록

고경표

디자인

김규호

발행인

이영훈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행처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발행부서

문화도시팀

사업총괄

최정환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총괄기획가

진행

황유경 기획경영본부장

도움을 주신 분들

부평3동 지역주민,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지도위원회, 자율방범대, 공방골목

주민분들 및 부평3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운영

박재은 팀장, 김성래

발행일

2019년 10월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문의 032.500.2000 / www.bpcf.or.kr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부평구문화재단 및 작가와 해당 저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복제, 변형, 송신을

금합니다.